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19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하이데거 『철학에의 기여』

이 선 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19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하이데거 『철학에의 기여』

이 선 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편집위원 : 백종현(위원장)

김남두

박찬국

이남인

이태수

정원재

김상현(주간)

발 간 사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의 전임연구단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지원 사업비를 받아 앞서 2년 간(2002.8-2004.7) 「철학 텍스트들의 내용 분석에 의거한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을 위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실을『철학사상』별책 제2권 제1호~제14호, 별책 제3권 제1호~제25호로 출간한 데 이어, 그 후속으로 다시금 2년 동안(2004.9-2006.8) 「토피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난 해 일차로『철학사상』별책 제5권 제1호~제14호를 펴냈다. 이제 이 후속 사업의 두 번째 성과물을『철학사상』별책 제7권 제1호~제25호로 엮어낸다.

이 연구 작업은 중요한 철학 문헌들의 내용을 개념 체계도를 세워 분석하고, 이를 디지털 지식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은 지식정보 사회에 있어 철학이 지식 산업과 지식 경제의 토대가 되는 디지털 지식 자원을 생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 연구라 할 것이다.

우리 연구단은 긴 논의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 문화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동서양의 철학 고전들을 선정하고 이를 연구자의 전공별로 나누어, 각각 먼저 분담한 저작의 개요를 작성한 후, 개념들의 관계를 밝혀 개념 지도를 만들고, 그 틀에 맞춰 주요 개념들을 상술했다. 이 같은 문헌 분석 작업만으로도 대표적인 철학 저술의 독해 작업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목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작업의 성과물을 디지털화된 철학 텍스트들에 접목시켜 누구나 각자의 수준에서 철학 고전의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으로 꼽는 철학 고전들은 모두 외국어나 한문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를 지식 자원으로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에 앞서 현대 한국어로의 번역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적절한 한국어 번역이 아직 없는 경우에도 원전의 사상을 이루는 개념 체계를 소상히 안다면 원전에 대한 접근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우리 연구 작업의 성과는 일차적으로는 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지만, 장차 한국어 철학 텍스트들이 확보되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공동 연구 사업의 이 성과물이 인류 사회 문화의 자산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초석이 되고, 한국의 철학 문화 향상에도 이바지하는 바 있기를 바란다.

2006년 5월 25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헌정보센터 장 /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연구책임자 백중현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19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 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하이데거 『철학에의 기여』

이 선 일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6

머 리 말

정보화 시대가 진척되면서 책의 개념에서도 하나의 혁명이 일어났다. 기존의 책을 대체하는 전자책의 개념이다. 전자책은 기존의 책이 갖는 공간성을 제거할뿐더러 기존의 책의 내용을 개념적으로 재조직하여 독자에게 이해의 수고로움을 덜어 주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고전 작품이 젊은이들에게 점점 외면되는 현 세태를 감안한다면, 고전 작품의 디지털화는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금번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도움을 받아 철학 텍스트의 기초 개념의 내용을 디지털화하는 2차년도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이 책은 이러한 작업의 성과물로 출간된 것이다.

이 책은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존재사유를 대표하는 작품인 『철학에의 기여』의 주요 기초 개념을 먼저 해설한 뒤 해설의 근거가 되는 원문을 충실히 제시해 놓은 책이다. 언뜻 보면 아마 이 책 역시 기존의 다른 책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책이 개념에 대한 해설과 인용문을 뒤섞어 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용문을 논의의 전개를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한 반면, 이 책은 독자가 먼저 개념에 대한 해설 부분을 읽고 또 필요에 따라 원문을 참조하여 그 개념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리함을 제공하였다. 또한 개념의 해설에서도 가급적이면 필자의 주관적 이해를 배제하면서 개념 상호간의 객관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물론 모든 해설에는 자기의 해석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과연 필자가 이 점에서 어느 만큼의 성공을 거두었는지는 자신할 수 없으나, 필자 나름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작품임을 밝혀둔다. 또한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에서는 필자에게 『철학

에의 기여』의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지식지도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철학에의 기여』의 성격상 그런 식의 작업이 용이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필자는 분명히 이 점에 일정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럼으로써 앞으로 이 책이 전자책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철학에의 기여』는 하이데거의 존재사유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손꼽힌다. 초기 하이데거의 대저(大著)가 『존재와 시간』이라면, 후기 하이데거의 대저는 『철학에의 기여』라 할 만하다. 하이데거의 존재사유가 생기(生起, Ereignis)로부터 생기에로 나아가는 사유의 부단한 수행이라면, 생기-사유의 전모를 체계적으로 밝혀주는 작품이 바로 『철학에의 기여』이다. 물론 하이데거의 생기-사유를 규명하는 다양한 작품들이 있긴 하나 이 작품들은 생기-사유를 전체적이고 근원적으로 해명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하이데거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출간된 『철학에의 기여』는 아직도 전 세계 많은 철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작품이 그것의 사상적 깊이, 체계성, 근원성에 있어 『존재와 시간』에 버금가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철학에의 기여』는 그것의 제목이 시사하듯, 하이데거 스스로가 우리에게 전수된 서양 철학의 주된 흐름 속에서 이제까지 망각되었던 철학함의 진정한 본령을 일깨우는데 기여하리라고 확신했던 작품이다. 따라서 필자는 『철학에의 기여』에 나타난 하이데거의 존재사유에 대한 개념적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우리는 『철학에의 기여』에 대한 일종의 개념 해설서인 이 책을 통하여 시원적 사태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철학의 가능성을 엿보게 될 것이다.

이 작은 책자 하나를 만드는 데도 필자는 여러 분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은사님이신 소광희 교수님(서울대 명예교수)에게 감사드린다. 소광희 교수님은 필자에게 하이데거의 철학 뿐 아니라 철학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을 열어 주셨다. 또한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문헌센터장님이신 백종현 교수님에게 감사드린다. 언제나 그렇듯 백종현 교

수님은 우리 철학사상연구소 연구원들을 따뜻하게 배려하여 주셨는데,
교수님의 그러한 격려와 독려가 이 책을 출간하는 추진력이 되었다.

2006년 5월
한내 마을에서
약천(藥泉) 이선일

목 차

제1부 철학자 및 철학 문헌 해제	1
1. 하이데거의 생애 및 저작	1
1.1 생애 요약	1
1.2 생애 해설	1
1.3 생애 연보	3
1.4 저작	4
1.4.1 철학에의 기여	4
1.4.2 존재와 시간	5
1.4.3 이정표	5
2. 『철학에의 기여』 해제	6
2.1 『철학에의 기여』 요약	6
2.2 『철학에의 기여』 해설	7
2.2.1 들어가는 말	7
2.2.2 나지막한 울림	8
2.2.3 건네줌	9
2.2.4 도약	10
2.2.5 근거지움	13
2.2.6 도래할 자들	14
2.2.7 마지막 신	16
2.2.8 에필로그: 생기 안에서의 전향	17
2.3 『철학에의 기여』 상세 목차	19
2.4 주요 용어	30

2.4.1	나지막한 울림	30
2.4.2	존재의 떠남	30
2.4.3	곤경	31
2.4.4	공작	32
2.4.5	체험	32
2.4.6	건네줌	33
2.4.7	형이상학의 극복	33
2.4.8	도약	34
2.4.9	생기	34
2.4.10	몰락	35
2.4.11	마주 던짐	35
2.4.12	상호공속적 진동	36
2.4.13	근거지음	36
2.4.14	근거-닭음	36
2.4.15	간직함	37
2.4.16	도래할 자들	37
2.4.17	근본기분	38
2.4.18	주도적 기분	38
2.4.19	몰락하는 자들	38
2.4.20	마지막 신	39
제2부 철학 지식지도		41
1.	철학자 지식지도	41
2.	철학 문헌 지식지도	43
3.	철학 용어 지식지도	44
3.1	나지막한 울림	44
3.2	존재의 떠남	45

3.3 곤경	46
3.4 공작	47
3.5 체험	47
3.6 건네줌	48
3.7 형이상학의 극복	49
3.8 도약	50
3.9 생기	50
3.10 몰락	51
3.11 마주 던짐	52
3.12 상호공속적 진동	53
3.13 근거지움	53
3.14 근거-뒹임	54
3.15 간직함	55
3.16 도래할 자들	56
3.17 근본기분	56
3.18 주도적 기분	57
3.19 몰락하는 자들	58
3.20 마지막 신	59
4. 철학 문헌 내용 지식지도	59

제3부 『철학에의 기여』 내용 분석 연구 67

1. 들어가는 말	67
1.1 제목에 대한 해명	67
1.1.1 공적인 제목	67
1.1.2 본질적 표제	68
1.2 『철학에의 기여』의 사유 궤도	69
1.2.1 이행적 사유	69

1.2.2 다른 시원 안에서의 사유	70
1.2.2.1 다른 시원	70
1.2.2.2 이행적 사유 속에서 제1시원	70
1.2.2.3 말함과 말해져야 할 것의 동일성	71
1.2.3 존재물음	73
1.2.4 『철학에의 기여』의 윤곽	73
2. 나지막한 울림	75
2.1 나지막한 울림과 존재망각	75
2.2 나지막한 울림과 기분	75
2.3 나지막한 울림과 마지막 신의 첫 번째 눈짓	76
2.4 나지막한 울림과 말함	77
2.5 나지막한 울림과 균열	78
2.6 나지막한 울림과 존재의 떠남	78
2.6.1 공작과 존재의 떠남	78
2.6.2 체험과 공작	80
2.6.3 존재의 떠남과 존재 망각	80
2.6.4 존재의 떠남과 스스로 빠져 나가는 은폐로서의 존재	81
2.6.4.1 스스로 빠져 나가는 은폐로서의 존재	81
2.6.4.2 형이상학의 역사 속에서의 존재	81
2.6.5 존재의 떠남에 대한 존재 역사적 해석	82
2.6.5.1 존재의 떠남과 존재의 제1의 역사	82
2.6.5.2 존재의 떠남과 고대 형이상학	83
2.6.5.3 존재의 떠남과 기독교	83
2.6.5.4 존재의 떠남과 근대	84
2.6.6 존재의 떠남과 곤경	85
2.6.6.1 곤경에 대한 통상적 이해	85
2.6.6.2 곤경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	86
2.6.7 공작과 체험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	87

2.6.7.1 공작	87
2.6.7.1.1 공작에 대한 통상적 이해	87
2.6.7.1.2 공작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	87
2.6.7.1.2.1 존재 현성의 방식으로서의 공작	87
2.6.7.1.2.2 공작의 법칙	88
2.6.7.1.2.2.1 공작의 제1법칙	88
2.6.7.1.2.2.2 공작의 제2법칙	90
2.6.7.1.2.2.3 공작의 제3법칙	91
2.6.7.1.2.3 공작과 존재	92
2.6.7.2 체험	92
2.6.7.3 공작과 체험	93
2.6.7.3.1 공작과 체험의 상호 공속성 및 시간적 비-동시성	93
2.6.7.3.2 공작과 체험이 갖는 망상	95
3. 건네줌	96
3.1 건네줌에 관한 논의의 전체적 윤곽	96
3.2 건네줌의 역사적 본질	97
3.2.1 건네줌의 역사적 본질에 대한 해명	97
3.2.2 건네줌과 철학의 근본물음	97
3.3 건네줌과 이행적(移行的) 사유	99
3.3.1 제1시원 이래 존재에 관한 형이상학의 견해	99
3.3.2 제1시원 이래 존재자에 관한 형이상학의 견해	100
3.4 제1시원의 근원적 전유	101
3.4.1 주도적 물음으로부터 근본물음으로의 이행	101
3.4.2 형이상학의 극복	101
3.4.2.1 형이상학의 극복이 갖는 이행적 성격	101
3.4.2.2 현-존재 그 자체에 속하는 것으로서의 형이상학	102
4. 도약	104
4.1 도약에 대한 예비적 이해	104

4.2 도약의 의미	104
4.3 도약의 주도적 기분	105
4.4 도약에서 바라본 존재의 역사	106
4.4.1 이행의 낯설음	106
4.4.2 도약과 생-기	107
4.4.2.1 몇 안 되는 드문 생기들	107
4.4.2.2 존재의 최고의 소명으로서의 생기	108
4.4.2.3 도약과 몰락	109
4.5 도약의 구조	110
4.5.1 가장 극단적인 마주 던짐으로서의 도약	110
4.5.2 던져져 있음 안에서의 마주 던짐	110
4.5.3 상호공속적 진동	112
4.5.3.1 인간과 존재의 상호 관련성	112
4.5.3.2 인간의 극단적 사명	113
5. 근거지움	114
5.1 근거지움의 이중적 의미에 대한 예비적 해설	114
5.2 근거지움의 첫 번째 의미	114
5.3 근거지움의 둘째 의미	115
5.3.1 근거-닭음	115
5.3.1.1 근거-닭음에 대한 해명	115
5.3.1.2 근거-닭음과 현-존재	116
5.3.2 간직함	116
5.3.2.1 진리의 현성과 간직함	116
5.3.2.2 간직함과 존재자	117
5.3.2.2.1 자기 은혜를 위한 밝음과 간직함	117
5.3.2.2.2 존재의 진리를 보존하는 장소로서의 존재자	117
5.3.2.2.3 존재의 진리의 현성	118
5.3.2.2.3.1 마주 던짐과 초연한 내맡김	118

5.3.2.2.3.2 대지와 세계의 투쟁을 투쟁으로 점화함	119
5.3.2.2.4 존재의 진리를 존재자 안에 간직하는 사건에 대한 오해	120
6. 도래할 자들	122
6.1 도래할 자들에 대한 예비적 이해	122
6.2 도래할 자들의 근본기분	123
6.2.1 자제	123
6.2.2 근본기분과 주도적 기분	123
6.3 도래할 자들이 추구하는 앎	124
6.4 도래할 자들과 몰락	125
6.4.1 몰락	125
6.4.2 몰락하는 자들	125
6.5 도래할 자들과 민족	126
6.5.1 민족과 신	126
6.5.2 민족의 본질	127
6.5.3 마지막 신에게로 도래할 자들	128
6.5.3.1 도래할 자들과 마지막 신	128
6.5.3.2 현-존재와 마지막 신에게로 도래할 자들	129
6.5.3.2.1 마지막 신의 눈짓	129
6.5.3.2.2 현-존재를 근거지움	130
6.5.3.2.3 가장 참다운 의미에서 도래할 자	131
7. 마지막 신	132
7.1 마지막의 것이 갖는 본래적 의미	132
7.2 마지막 신을 맞이하기 위한 결단	133
7.2.1 마지막 신을 맞이하기 위한 결단이 갖는 의미	133
7.2.2 완강한 거부로서의 존재	134
7.2.2.1 완강한 거부가 갖는 긍정적 의미	134
7.2.2.2 완강한 거부가 갖는 부정적 의미	135

7.2.3 생기 안에서의 전향	136
7.2.3.1 생기의 이중적 구조	136
7.2.3.1.1 생기의 이중적 구조에 대한 예비적 이해	136
7.2.3.1.2 인간을 향한 존재의 전향	136
7.2.3.1.3 존재를 향한 인간의 전향	137
7.2.3.2 상호 공속적 전향	137
7.2.3.2.1 존재와 인간 사이의 상호 공속적 전향	137
7.2.3.2.2 현존재의 언어	138
7.2.3.2.3 기존의 신들의 회귀와 도피에 대한 최고의 지배	138
7.3 마지막 신에 대한 해명	139
7.3.1 가장 유일무이한 유일성	139
7.3.2 다른 시원으로서의 마지막 신	140
참고문헌	141

일 러 두 기

1. 이 책의 장, 절 표시는 그 내용의 위계에 따라 예를 들어 1. 선과 좋음, 1.1 정의, 1.1.1 영국계보학의 장점, 1.1.2 영국계보학의 심리학 순으로 표시하였다.
2. 3부 각 단락의 맨 앞에 있는 ‘(q1.1)’ 또는 ‘(e1.2)’ 등은 철학지식 지도의 웹 구현을 위한 표시일 뿐, 책의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책을 읽을 때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q’는 인용을 의미하고, ‘e’는 해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숫자, 예를 들어 ‘(q1.1)’은 제 1장의 첫 단락을 그리고 ‘(e1.2)’는 제 1장의 두 번째 단락을 의미한다. 그리고 ‘q’와 ‘e’를 통해서 첫 단락은 인용이고, 두 번째 단락은 해설임을 알 수 있다.

제 1 부 철학자 및 철학 문헌 해제

1. 하이데거의 생애 및 저작

1.1 생애 요약

1889년 9월 26일 독일 동남부 슈바르츠발트의 한 작은 마을 메스키르히에서 가톨릭 교회지기의 아들로 태어난 마틴 하이데거는 이성 일변도로 치닫던 서구의 전통적 형이상학을 뒤흔든 20세기 철학의 거장이다. 그를 20세기 철학의 거장 반열에 올려놓은 『존재와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철학에의 기여』, 『이정표』, 『언어로의 도상』 등은 철학사에 획기적인 작품으로 기록된다. 물론 그는 1933년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총장에 취임함으로써 한 때 정치적 오점을 남긴 바도 있으나, 그가 1976년 자신의 고향인 메스키르히에 조용히 잠든 이후에도 계속 발간되고 있는 80여권의 작품은 그의 존재사유가 오늘의 우리에게 끼치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준다.

1.2 생애 해설

『철학에의 기여』의 저자 하이데거는 이성 일변도로 치닫던 서구의 전통적 형이상학을 뒤흔든 20세기 철학의 거장이다. 거장의 삶을 회고하노라면 우리는 일상인의 삶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무언가의 극적인 요소를 기대한다. 그러나 호기심에 가득 차 현미경을 통해 그의 삶을 살살

이 들여다본들 우리는 실망한다. 물론 1933년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총장에 취임함으로써 한때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쓸린 바가 있긴 하지만, 그는 1923년부터 1928년까지 마르부르크 대학교에 재임했던 시절을 제외하면, 일평생을 프라이부르크와 토트나우베르크의 산장 연구실에서 살면서 연구 활동에 몰두할 뿐이었다. 발터 비멜(Walter Biemel)의 전언에 따르면, 어쩌다 그가 집을 나선 여행길조차 자신의 창작 활동을 위한 것이었고 그것도 대부분 강연을 위해서였다 하니, “그의 작품이 곧 그의 생애다”는 말도 수긍될 정도이다. 그러나 한 사상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를 만나보기 이전 우선은 약사(略史)를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해 이를 간략히 기술한다.

하이데거는 1889년 9월 26일 독일 동남부 슈바르츠발트의 한 작은 마을 메스키르히에서 가톨릭 교회지기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종교에 관심을 보였던 그는 1909년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신학부에 입학한다. 그러나 2년 후 심장에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그토록 열망하던 신학공부를 포기한 채 철학 연구에 전념한 뒤, 그는 불과 2년 만인 1913년 슈나이더 리케르트 교수의 지도하에 『심리주의의 판단론』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또한 1915년에는 『돈스 스코투스의 범주론과 의미론』으로 교수자격을 획득한다. 그러고는 1923년부터 1928년까지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한 뒤, 마침내 그는 1928년 에드문트 후설의 후계자로서 자신의 모교인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정교수로 초빙된다. 그러나 비교적 순탄하던 그의 삶도 그가 1933년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총장에 취임함으로써 명암이 엇갈린다. 비록 그가 1934년 총장직에서 스스로 사임하나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치에 동조하였다는 오명에 시달린다. 급기야 그는 1945년부터 1951년까지는 독일을 점령한 프랑스군에 의해 자신이 몸담던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강제 해직되는 수모를 겪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구금이 풀린 이후에도 대학교로 돌아가지 않은 채, 연구와 강연으로 말년을 보낸 뒤 1976년 5월 26일 고향 마을 메스키르히에서 생을 마감한다. 그는 1976년 5월 28일 그곳 공원 묘지에 안장되었다고 한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단조로우나 또한 어찌 보면 세월의 격랑 속에서 부침하였던 것이 하이데거의 일생이다. 그러나 그의 삶은 단순 소박했다. 마치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고하듯 헤라클레이토스를 찾아간 외국 손님들이 뺑 가마 곁에서 불을 쪼이던 헤라클레이토스를 발견하고는 발걸음을 되돌리려 했듯, 하이데거의 삶도 단지 존재를 향한 한결같은 도정이었다. 물론 하이데거를 혹평하고자 하는 이들은 하이데거의 총장직 취임을 빌미로 그를 우리 시대의 도덕적 희생양으로 삼고 있으나, 만약 하이데거의 정치적 과오가 그의 존재사유가 낳은 필연적 결과였다면 그의 존재사유는 그의 정치적 과오와 더불어 종식되었어야 했을 터인데, 그가 1976년 메스키르히에 조용히 잠든 이후에도 계속 발간되고 있는 80여 권의 작품을 보노라면, 우리는 그의 존재사유가 오늘의 우리에게 끼치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의 자취를 실감할 정도이다. 그의 존재사유를 통해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모태인 전통적 형이상학은 그것의 감추어진 근원을 향해 해체되며, 그 감추어진 근원을 새로운 시원으로 하여 우리 시대를 새롭게 정조할 삶의 보금자리가 마련되었기에, 현대철학의 과제는 하이데거 철학의 재해석이라 불릴 만큼, 어찌면 지금 우리는 하이데거와 더불어 그가 제시한 이정표에 맞추어 숲길을 따라 존재의 진리를 찾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1.3 생애 연보

1889년 9월 26일: 독일 슈바르츠발트의 한 작은 마을 메스키르히에서 부친 프리드리히 하이데거(1851.8.7-1924.5.2)와 모친 요한나 캄프(1858.3.21-1927.5.3)의 아들로 출생.

1903-1906년: 콘스탄츠 김나지움 재학.

1906-1909년: 프라이부르크 대학 김나지움 재학.

1909-1911년: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신학 연구.

1911-1913년: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철학, 정신과학, 자연과학 연구.

1913년: 슈나이더 리케르트 교수에게서 철학박사학위 취득. 논문 제목은 ‘심리주의의 판단에 관한 이론’.

1915년: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교수자격 논문 통과. 논문 제목은 ‘둔스 스코투스의 범주론과 의미론’.

1915-1918년: 군복무.

1917년: 엘프리데 페트리와 결혼.

1918년: 아들 외르크 하이데거 출생.

1920년: 아들 헤르만 하이데거 출생.

1923-1928년: 대우 정교수로 마르부르크 대학 교수 역임.

1928년: 에드문트 후설의 후계자로 프라이부르크 대학 정교수 취임.

1933년: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 취임.

1934년: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 사임.

1976년 5월 26일: 메스키르히에서 사망. 5월 28일 그곳 공원묘지에 안장.

1.4 저작

1.4.1 철학에의 기여

한국어 표준본:

영어 표준본: Martin Heidegger, *Contributions to Philosophy*, Parvis Emad and Kenneth Maly(tran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9.

원어 표준본: Martin Heidegger, *Beiträge zur Philosophie*, GA65, Vittorio Klostermann, Frankfurt am Main, 1989.

1.4.2 존재와 시간

한국어 표준본: 마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소광희 역, 경문사, 1998.

영어 표준본: Martin Heidegger, *Being and Time*, John Macquarrie/ Edward Robinson 공역, Blackwell, 2001.

원어 표준본: Martin Heidegger, *Sein und Zeit*, Max Niemeyer, 비개정 제7판, 1953.

1.4.3 이정표

한국어 표준본:

영어 표준본: Martin Heidegger, *Pathmarks*, William Mcneill(edit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원어 표준본: Martin Heidegger, *Wegmarken*, GA9, Vittorio Klostermann, Frankfurt am Main, 1976.

2. 『철학에의 기여』 해제

2.1 『철학에의 기여』 요약

『철학에의 기여』는 생기(生起, Ereignis)로부터 비롯되어 생기를 뒤쫓아 사유하고자 하는 생기-사유이다. 그런데 생기는 단순히 존재의 진리가 인간을 향하여 도래하는 사건이 아니다. 오로지 인간만이 존재를 이해하는 한에서, 생기는 인간이 자신에게 은닉된 채로 다가오는 존재의 진리를 받아들여 존재자 안에 간직해 놓음으로써만 비로소 생기로서 구현된다. 즉 생기는 곧 전향이다. 존재의 진리가 인간을 향해 전향함과 동시에, 인간이 존재의 진리를 향해 전향할 때, 생기는 비로소 생기로서 구현된다. 『철학에의 기여』는 생기의 이러한 구조를 “상호공속적 진동” 혹은 “생기 안에서의 전향”으로 파악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태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존재와 인간의 상호 관련성이다. 인간이 존재의 진리를 향해 전향할 수 있는 까닭은, 존재가 인간을 자신의 진리 안으로 던져 놓았기 때문이며, 이렇게 던져져 있음 안에서 인간은 자신을 존재의 진리를 향해 마주 던지는 것이다. 즉 인간은 존재에 의해 존재의 진리 안에 던져져 있는 자요, 이 던져져 있음을 자각하는 한에서만 존재의 진리를 향한 인간의 마주 던짐은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 『존재와 시간』에서 시도된 바 있던 초월적-지평적 궤도에서의 존재물음은 근본적으로 동요한다. 인간이 이미 존재에 의해 존재의 진리 안에 던져져 있는 자라면, 존재물음은 궁극적으로 존재 역사적 궤도 안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2.2 『철학에의 기여』 해설

2.2.1 들어가는 말

이 작품의 공적인 제목은 ‘철학에의 기여’이다. 우리는 철학에서의 모든 근본 낱말이 이미 소진된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 제목을 선택하였으나, 이 제목은 그야말로 무미건조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목에서의 ‘철학’이란 낱말을 전통적 형이상학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의 시대는 형이상학으로부터 존재 역사적 사유로의 이행의 시대이다. 이에 발맞추어서 오늘날의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유는 이제껏 형이상학 속에서는 폐되었던 존재의 진리에 관한 사유이다. 이 작품의 제목도 이러한 사태에 대응한다. 즉 이 작품의 공식적 제목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유는 ‘이제까지 여하튼 감추어졌던 존재의 현성의 영역’을 관통함으로써 존재의 고유한 생기에 도달하는 ‘다가올 사유’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추구하는 사유가 ‘이제까지 여하튼 감추어졌던 존재의 현성의 영역’을 관통함으로써 존재의 고유한 생기에 도달하는 ‘다가올 사유’인 한에서, 이 작품의 본질적 표제는 ‘생기로부터’(Vom Ereignis)이다. 우리는 Vom Ereignis를 ‘생기에 관해’ 혹은 ‘생기에 대해’라고 읽기도 하는데, 이러한 읽기는 잘못이다. 이 표제가 의미하는 바는, 생기에게 우리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생기로부터 울려 나오는 그대로 존재를 사유하고 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표제가 의미하는 바에 따라 규정된 인간은 이성적 동물로서의 인간이 아니다. 생기로부터 존재를 사유하고 말하는 한에서, 인간은 현-존재이다. 이 표제로부터 우리는 이성적 동물로서의 인간으로부터 현-존재로서의 인간으로의 본질적 변화를 읽어 내게 된다.

『철학에의 기여』에서 시도된 사유는 이행적 사유이다. 이행적 사유는 철학의 제1시원으로부터 다른 시원으로 이행함으로써 제1시원 안에 감추어져 있던 존재의 진리를 사유하고자 한다. 이행적 사유는 존재의 본질로부터, 즉 생기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다른 시원으로의 이행을 위한 결단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다른 시원은 아직은 예감된 것에

불과하므로, 존재의 진리의 자유로운 짜임 구조를 우리가 존재 자체에 입각하여 짜 맞추는 능력은 아직 없다. 지금 우리는 이행적 사유를 준비하는 단계에 서있을 뿐이다. 따라서 『철학에의 기여』에서 제시된 생기-사유의 윤곽은 이행적 사유의 역사성에 비추어 그려낸 약도로부터 추측된 것에 불과하다. 다만 이러한 윤곽은 존재의 진리에 도래할 자들이 걸어가야 할 시간-놀이-공간에 대한 밑그림으로서는 충분하다.

『철학에의 기여』에서 제시된 생기-사유의 윤곽은 여섯 가지의 짜임 구조로 이루어진다. 나지막한 울림, 건네춤, 도약, 근거지음, 도래할 자들, 마지막 신 등이 이 여섯 가지의 짜임 구조에 해당한다. 이 짜임 구조 각각은 인간 현존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존재의 진리를 뒤 쫓아 사유함으로써 존재의 진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수행 단계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여섯 가지의 짜임 구조는 하나의 본질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여섯 가지의 짜임 구조를 아래의 것(즉 나지막한 울림)으로부터 위의 것으로 상승하는 단선적 계열로 이해한다면, 그러한 이해는 잘못이다. 이 여섯 가지의 짜임 구조 각각은 그 자체의 독자성을 갖기는 하되 모두 동일하게 존재의 진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서로 긴밀하게 관련된다.

2.2.2 나지막한 울림

존재가 자신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한, 우리는 존재를 망각한다. 존재망각은 우리가 처해 있는 곤경이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망각을 존재망각으로서 각성할 때, 즉 곤경을 곤경으로서 인정할 때, 우리는 자신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존재의 나지막한 울림을 들을 수 있다. 현대 기술 문명 앞에서 경악하는 가운데 현대 과학 기술 문명을 가능하게 한 존재의 역사적 운명인 몰아세움(Gestell) 속에 감추어진 존재의 진리를 기다리는 경외심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의 나지막한 울림을 듣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를 존재의 나지막한 울림으로 이끄는 주도적 기분은 경악과 경외이다. 그러나 경악과 경외가 우리를 존재의 나지막한 울림으로 이끄는 근본 기분은 아니다. 우리가 아직 존재자를 지배하고자 하는 형이상학적 의지를 지니고 있는 한, 우리는 현대 과학 기술 문명 앞에서 경악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문명의 찬란함에 예속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우선 요구되는 것은 형이상학적 의지를 스스로 억제하는 자제이다. 우리가 자제라는 기분에 젖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경악과 경외라는 주도적 기분 속에서 존재의 나지막한 울림으로 다가선다. 자제는 우리를 존재의 나지막한 울림으로 이끄는 근본 기분이다. 경악과 경외는 그때마다 자제로부터 발원한다.

2.2.3 건네줌

존재는 자신의 진리를 완강히 거부하면서도 자신의 진리를 우리에게 나지막하게 울리고 있다. 존재의 진리의 나지막한 울림을 우리가 알아들을 때 철학의 제1시원은 자신을 우리에게 건네준다. 즉 이제까지의 철학을 주도했던 “존재자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우리에게 자신을 건네준다. 이처럼 건네줌은 처음에는 제1시원을 건네줌이다. 그런데 우리가 제1시원에 입각해 종래의 존재의 역사를 존재의 진리가 부재하는 역사로서 경험할 때 철학의 제1시원은 우리에게 다른 시원의 존재의 역사의 가능성을 건네준다. 즉 건네줌은 ‘서로-건네줌’이다. 건네줌 안에서는 다른 시원에서의 도약을 향한 준비가 이루어진다.

“존재자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의 주도적 물음으로부터 “존재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의 근본물음을 향한 도약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생기-사유의 둘째 짜임 구조인 건네줌이다. 따라서 건네줌의 주도적 기분은 시원들(즉 제1시원 및 다른 시원)에 관해 물으면서 시원들 상호간을 넘나드는 즐거움이다. 물론 이러한 즐거움은 이제까지의 모든 존재론을 숙고하는 가운데 다른 시원을 향한 결단을 요구하는 즐거움이다.

건네줌은 철학의 제1시원으로부터 다른 시원으로의 이행을 위한 가교를 처음 놓는 존재론적 사건이다. 그런데 철학의 다른 시원이라 하여 우리가 임의로 꾸며 낸 새로운 시원은 아니다. 오히려 철학의 다른 시원은 철학의 제1시원을 가능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묻어지지 않은 채로 제1시원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본질적 가능성으로서의 시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 제1시원의 사유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숙고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말없이 올라나는 다른 시원을 알아들을 때, 제1시원과 다른 시원의 서로-건네줌은 성립한다. 이것이 바로 건네줌의 역사적 본질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적 숙고의 본질을 외면한 채 자신이 임의로 선택한 사유가의 작품에 대한 역사학적 고찰에만 매달려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철학사 강의이다. 철학사 강의는 철학의 주도적 물음 안에 은닉된 채로 전개되고 있는 존재의 역사를 읽어 내지 못한 채 논리학을 통해 철학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철학의 제1시원의 역사를 역사학적으로만 고찰할 때, 존재 자체의 역사인 동시에 모든 결단들 중의 저 결단을 자신 안에 담지하고 있는 그런 역사의 눈짓은 발현하지 않는다.

2.2.4 도약

우리는 사유의 제1시원으로부터 다른 시원으로의 이행을 기초존재론적으로 숙고한다. 이러한 이행은 제1시원으로부터 다른 시원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다. 그런데 제1시원으로부터 다른 시원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도약을 위한 결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결단에서는 우리가 제1시원 및 거기로부터 파생된 생물학주의 등등의 형이상학에 사로잡힌 채 남을 것인가 혹은 다른 시원을 맞이할 준비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인가라는 양자택일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시원은 단지 도약 안에서만 일어나는 한, 다른 시원을 맞이할 준비 역시 이미 하나의 도약이다.

도약은 사유의 제1시원으로부터 다른 시원으로의 도약이다. 사유의 제

1시원의 역사가 자신을 우리에게 건네줄 때 우리가 제1시원 속에 감추어져 있는 다른 시원의 말 없는 목소리를 알아들어 제1시원과 다른 시원 사이에 ‘서로 건네줌’이 성립한다면, 여기에는 이미 다른 시원으로의 도약이 관여한다. 따라서 도약은 시원적 사유의 진행과정에서 가장 과감하게 취해진 움직임이다. 도약은 제1시원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버린 채, 또한 존재자로부터는 아무런 것도 직접적으로는 기대하지 않은 채, 오로지 존재의 완전한 현성인 생기를 향해 뛰어든다. 도약은 제1시원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였음에도 아직 묻어지지 않은 채 감추어져 있는 존재의 역사를 향해 최초의 돌진을 감행하는 모험이다.

도약은 겉으로는 제1시원의 역사 속에서 익숙했던 것은 아무 것도 되 돌아보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도약도 이미 일종의 기분에 젖어 있다. 그러한 기분이 바로 경외이다. 존재의 진리는 머뭇거리면서 자신을 거절하나, 우리가 욕구를 자제하는 가운데, 말없이 울려 나오는 존재의 진리의 목소리를 경외롭게 경청할 때 비로소 도약은 실현된다. 즉 경외에 젖어 있을 때 우리는 머뭇거리는 거절의 ‘그 가장 먼 가까움’을 건디어 내면서 비로소 존재의 완전한 현성 안에 들어선다. 즉 우리는 존재의 완전한 현성 안에 내립(內立)하게 된다.

그런데 제1시원으로부터 다른 시원으로 이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단지 ‘아직 있어온 바 없던 시대’로 들어선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른 시원의 역사는 그야말로 이제까지의 제1시원과는 다른 시원 안에서 펼쳐지는 전혀 다른 역사이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제1시원의 역사가 지금 당장 종말을 고하지는 않는다. 인간만이 존재를 이해하며 또한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간을 필요로 하는 한에서, 존재가 자신의 진리를 향해 회귀한다한들 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이 없다면, 제1시원의 종말은, 아직 장구한 시간 동안, 지금보다 더 활기에 넘치고 더 급속도로 진행되어 이행을 가로막아 간섭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존재로의 가까움에 자신을 집약하지 못한 채 제1시원에서의 삶에만 친숙해 있는 한, 존재로의 가까움은, 달리 말하자면, 제1시원으로부터 다른 시원으

로의 이행은 우리에게 낯선 것으로 남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존재자 일반에게서 존재자의 일반적 특성을 추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존재자가 비로소 존재자로서 드러나게 되는 존재’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존재의 본질을 규정함에서 있어서 존재자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형이상학적 오해에 불과하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자신을 던져오는 존재의 진리를 향해, 즉 생기를 향해 우리를 마주 던지는 한에서 비로소 존재의 진리를 이해한다. 따라서 도약은 존재의 진리(본질)를 향한 가장 극단적인 마주 던짐이다. 존재의 진리를 향해 우리를 마주 던지는 한에서, 우리는 ‘존재의 진리를 활짝 여는 궤도’ 안으로 비로소 도약하며 또한 비로소 우리 자신이 된다.

그런데 존재의 진리를 향해 우리 자신을 마주 던짐은, 우리가 이미 존재의 진리에 의해 존재의 진리 안으로 던져져 있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인간 현존재는 던져져 있는 자이다. 이때 던지는 자는 존재이다. 존재는 이미 우리를 존재의 진리를 향해 던져 놓았다. 그러나 인간 현존재는 자신이 존재의 진리 안으로 던져져 있음을 망각하고 있다. 즉 인간 현존재는 자신과 존재의 근원적 관련성을 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이상학의 역사는 존재 망각의 역사요, 존재 망각이 깊어짐에 따라 존재는 존재자로부터 떠나 버린다. 따라서 존재의 진리를 향한 마주 던짐은 우리가 존재의 떠남이라는 곤경을 곤경으로서 받아들이는 결단을 내려 우리의 던져져 있음을 회복하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점은, 존재의 진리를 향한 마주 던짐에서는 던지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점이다. 인간 현존재는 존재의 진리를 향해 자신을 던지는 자가 된다.

존재는 현성하기 위하여 인간을 필요로 한다. 비록 존재가 새롭게 도래할들, 인간이 존재를 존재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존재의 진리는 실현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생기는, 엄밀히 말하자면, 상호공속적 진동이다. 한편으로는 존재가 인간을 존재의 진리 안으로 던져 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자신의 던져져 있음 안에서 존재의 진리를 향해 자신을 마주 던짐으로써 존재의 진리에 귀속하는 한에서만, 생기는 비로소 생기

가 된다. 생기는 상호공속적 진동이다. 달리 말하자면, 생기는 ‘필요와 귀속의 상호 관련성’이다.

따라서 생기-사유에서 보자면, 인간의 극단적 사명은, 존재가 인간 자신을 존재의 진리로 던지는 한에서, 존재의 진리를 향해 자신을 마주 던져 존재의 진리를 보존하는 것이다. 인간 현존재가 존재의 진리에 의해 근거 지어져 있는 한, 인간 현존재의 제1의 의무는 존재의 진리를 보존함으로써 존재의 진리를 근거 짓는 것이다.

2.2.5 근거지움

인간과 존재가 근원적으로 관련되는 한에서, 근거지움은 이중적 의미이다. 존재가 현성하는 한에서만 존재자가 비로소 존재자로서 드러난다는 것이 근거지움의 첫째 의미라면, 인간 현존재가 근거로서의 존재 그 자체에 도달하여 그것을 인수하는 한에서만 존재의 현성이 비로소 실현된다는 것이 근거지움의 둘째 의미이다. 우리는 이러한 둘째 의미에서의 근거지움을 특히 근거-닭음이라고도 명명한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근거-닭음도 이중적 구조이다. 존재의 진리는 존재자를 통해 구현되므로, 인간 현존재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근거로서의 존재를 받아들여, 근거로서 존재를 근거로서 현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거로서의 존재를 존재자 안에 간직함으로써 존재의 진리를 존재자를 통해 구현해야 한다. 따라서 근거-닭음은 일종의 간직함이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간직함이란 눈앞의 진리를 존재자 안에 추가로 보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현존재에게 은닉된 채 다가오는 존재의 진리를 받아들여 존재자 안에 간직해 놓음으로써 존재의 진리를 존재의 진리로서 현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인간과 존재가 근원적으로 관련된 한에서, 만약 인간 현존재가 존재의 진리를 간직하지 않는다면, 존재의 진리는 현성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존재의 진리를 대지(존재자) 안에 간직해 놓기 위해서는 우선

현존재가 자신에게 현성해 오는 존재의 진리를 존재의 진리로서 맞아들여야 한다. 현존재가 기존의 형이상학적 사유에서 벗어나 자신을 존재의 진리에게 초연하게 내맡기는 가운데 존재의 진리를 향해 자신을 마주 던짐으로써만 현존재는 존재의 진리를 존재의 진리로서 맞이하는 것이다. 존재의 진리를 존재자 안에 간직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존재의 초연한 내맡김과 마주 던짐이 요망되는 것이다.

2.2.6 도래할 자들

도래할 자들은 우리에게 낯선 이들이다. 우리가 존재를 망각한 채로 있고 또한 존재가 존재자를 떠나 있는 한, 존재의 진리를 근거 짓는 자로서의 그들은 우리에게 낯선 이들이다. 그러나 도래할 자들이야말로 우리가 그리는 장래의 인간들이다. 그들을 지배하는 근본기분은 자제함인데, 그들이 형이상학적 욕구를 자제한 채로 존재의 진리에 대해 결단을 내릴 때 비로소 존재의 진리는 현성한다.

도래할 자들은 인간 현존재에게 은닉된 채로 도래하는 존재의 진리에 의해 이미 기분에 젖어 있는 가운데 존재의 진리를 알고자 한다. 그들이 추구하는 앎은 존재의 진리에 대한 앎, 다시 말하자면, 생기에 대한 앎이다. 그런데 이러한 앎은 실용적 가치에서 보자면 무용하나, 앞으로의 역사를 결정짓는 근원적 영역을 밝혀주는 한에서, 참다운 앎이 된다. 참다운 지자(知者)는 그때마다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개별적 사건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개별적 사건들 전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존재의 역사적 운명을 통찰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은닉된 채로 전개되는 존재의 진리를 파악함으로써, 오늘날 역사적 사건의 시각이 존재를 향한 몰락의 시대임을 가늠한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몰락은 통속적 의미에서의 몰락이 아니다. 비본질적인 몰락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우리를 압도하는 거대한 것 배후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 정체하고 마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

해 본질적 의미에서의 몰락은 앞으로의 역사를 결정지을 존재의 진리를 향한 몰락이다. 그러니까 본질적 의미에서의 몰락은 존재의 진리에 이르고자 하는 다가올 자들을 준비하는 도정이요, 지금은 떠나버린 마지막 신을 맞이하기 위한 결단이 내려지는 그 순간과 장소를 침묵하는 가운데 준비하기 위한 도정이 된다.

도래할 자들은 몰락하는 자들이다. 몰락하는 자들은 존재의 떠남이 갖는 저 가장 극단적인 통분을 견디어내는 가운데, 자신에게 말없이 은닉된 채로 다가오는 존재의 진리를 향해 몰락한다. 모든 다른 이들은 존재망각의 역사에 안주한 채 몰락을 두려워하고 부정하나, 몰락하는 자들은 앞으로의 역사를 가늠할 존재의 진리의 현성(즉 생기)으로 자신을 집약하는 저 고요함을 활짝 열어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이들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그 어떤 칙칙한 체념이나 아무것도 참되게 의욕하지 못하는 낙관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그들은 존재의 진리의 부름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운데, 경건한 마음으로 존재의 진리에 관해 끊임없이 묻고 있을 뿐이다.

도래할 자들은 인간에게 은닉된 채로 다가오는 존재의 진리를 향해 도래한다. 그들은 대지와 세계의 투쟁에 불을 지피 생기를 투쟁을 통해 쟁취하는 가운데 존재의 진리를 대지 안에 간직해 넣음으로써 인간을 구원할 마지막 신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들은 자신에게 엄습하는 마지막 신의 눈짓을 간직한다. 그들은 자제하는 침묵 속에서 마지막 신의 섬광을 모아 다시 그 빛을 반사하는 가운데 그 소수의 몇몇 안 되는 드문 이들에게 그 섬광을 선사하는데, 이로써 그들 모두는 현-존재를 근거 짓는다. 현-존재의 본래적 의미가 인간이야말로 존재의 진리가 발현하는 근본적 장소라는 것이라면, 도래할 자들이 마지막 신의 눈짓을 자신 안에 간직함으로써 존재의 진리의 생기를 생기로서 구현할 때 그들은 비로소 참다운 의미에서 현-존재가 된다. 오로지 도래할 자들에게만 생기로서의 존재는 도래하며, 또한 반면에 생기로서의 존재는 이들을 생기하게 하며 이들에게 존재의 진리를 간직할 권능을 부여한다.

마지막 신이 인간 현존재에게 스쳐 지나갈 때 비로소, 이제까지 인간

의 삶의 영역에서 사라졌던 신들의 시대는 다시 막을 올릴 것이며 또한 대지를 착취 가능한 것으로만 탈은폐하던 저 ‘세계가 빈곤한 이들’의 단순한 삶 속으로의 복귀는 종식된다. 따라서 도래할 자들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신에게로 도래할 자들로서, 이제까지 민족답지 못했던 민족을 비로소 민족으로서 존재하게 하는 이들이다. 그러나 마지막 신에게 도래할 자들은 소수이다. 형이상학적 욕구에 젖어 있는 한, 인간 현존재는 자신에게 섬광처럼 다가오는 존재의 진리를 포착하지 못한다.

2.2.7 마지막 신

마지막 신은 기존의 신들에 뒤따라 순서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신이 아니다. 이러한 오해는 시간에 대한 자연과학적 표상에 기인한다. 시간에 대한 자연과학적 표상에 따르면, 마지막 신은 자연과학적 시간 계산에 따라 그것의 도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신에 불과하다. 마지막 신은 낱말 그대로 신들의 존재의 종식을 장식하는 신일 뿐이다.

하지만 마지막 신은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시원이 되는 신을 의미한다. 마지막 신은 존재의 진리가 구현된 인간 현존재의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시원이 되는 신이다. 마지막 신은 인간 현존재의 본래적 삶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다른 시원이다. 마치 우리가 죽음으로 선구함으로써만 비로소 우리의 본래적 가능성을 회복하여 본래적 자기로서의 삶을 펼쳐나가듯, 마지막 신은 우리가 거기로 선구함으로써만 비로소 존재의 진리가 펼쳐지는 삶의 시원이 된다. 따라서 마지막 신에서 ‘마지막의 것’이란 가장 오랜 선-구를 필요로 할뿐더러, 가장 심오한 시원이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마지막 신을 이제까지 형이상학의 역사 속에 등장하였던 기존의 신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마지막 신을 기독교적 신에 비유하지도 말아야 한다. 마지막 신은 이들 신과는 전혀 다른 신이다. 소위 일신론, 범신론, 혹은 무신론 따위에서 언급되는 신이 존재자 전체를 가

능하게 하는 생성 원인으로서는 설정된 형이상학적 신이라면, 마지막 신은 인간 현존재가 존재의 진리를 존재의 진리로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현현하는 그야말로 가장 유일무이한 유일성 자체로서의 신이 된다.

마지막 신이 눈짓할 때 비로소, 그동안 인간의 근원적 삶의 영역에서 사라졌던 다른 신들도 인간에게 도래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들의 도피와 도래에 관한 결단은 존재의 진리를 시원으로 하여 새로운 삶의 지평을 구현하기 위한 결단이다. 존재의 진리는 은닉된 채로 우리에게 생기하는데, 우리가 존재의 생기를 생기로서 맞아들여 존재의 진리를 대지 안에 간직해 놓음으로써 마지막 신을 맞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시대의 질곡을 극복한 새로운 삶의 지평을 펼치게 되므로, 신들의 도피와 도래에 관한 결단은 존재의 진리를 근거 짓기 위한 결단, 즉 생기를 비로소 생기로서 구현할 수 있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의 시간-공간을 활짝 여는 사건이 된다. 특히 존재의 진리는 완강히 자신을 거부한 채로 우리에게 다가오므로, 이러한 결단은 완강한 거부로서의 존재가 비로소 생기로서 생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단이다.

2.2.8 에필로그: 생기 안에서의 전향

생기의 가장 내적인 사건은 전향이다. 생기 안에서는 전향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전향이야말로 다른 모든 전향을 가능하게 하는 은폐된 근거로서 근원적 전향이 된다. 그런데 생기 안에서의 근원적 전향은 이중적 구조이다. 즉 전향은 한편으로는 인간을 향한 존재의 전향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존재를 향한 인간의 전향이다.

존재의 진리는 인간에게 은닉된 채로 도래한다. 존재의 진리는 섬광처럼 인간에게 엄습한다. 우리가 존재의 진리가 밝혀지는 사건을 현(現, Da)이라 한다면, 현의 생기는 인간을 향한 생기이다. 즉 생기 안에서의 전향이 갖는 1차적 의미는 인간을 향한 존재의 전향이다. 그런데 인간은 이처럼 자신에게 엄습해 오는 현의 생기를 생기로서 맞아들일 때에만 비

로소 현-존재가 된다. 현의 생기는 현-존재를 비로소 현-존재로서 근거 짓는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을 향해 엄습해 오는 존재의 진리를 향해 거기에로 매력적으로 옮겨가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때에만 비로소, 존재의 진리를 존재자 안에 간직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현의 생기가 인간을 비로소 현-존재로서 근거 짓는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생기도 인간을 필요로 해야 한다. 인간 현존재가 자신에게 엄습해 오는 존재의 진리를 진리로서 맞아들여 존재자 안에 간직해 놓지 않는 한, 존재의 진리 역시 존재의 진리로서 구현되지 않으므로 존재의 진리의 생기는 인간 현존재를 마땅히 필요로 한다. 생기는 현존재를 그를 향한 부름(소명) 속에 불러 세워 존재의 진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그를 마지막 신의 스쳐지나감 앞으로 데려와야 한다.

생기가 생기로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생기가 인간을 필요로 하는 한, 생기 안에서의 전향이 갖는 2차적 의미는 존재를 향한 인간의 전향이 된다. 생기는 인간이 존재의 진리가 자신에게 건네주는 소명을 소명으로서 받아들여 존재의 진리에 귀속할 때 비로소 생기로서 구현된다. 전향은 귀속하는 자를 향한 소명과 그렇게 소명받은 자의 귀속 사이에서 현성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향은 존재와 인간 사이의 상호공속적 전향이다.

“사유의 위대함이 마음대로 평가될 수는 없다. 오히려 사유의 위대함은, 과연 또한 어느 만큼이나 사유가가 철학의 위대한 물음에 대한 독자적 관계 속으로 자신을 가져올 능력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하이데거는 보편적인 존재물음에 대한 두 가지의 완성의 길(이 완성의 길 중 하나가 『존재와 시간』에서 시도된 초월적-지평적 궤도 위에서의 존재물음이라면, 다른 하나는 『철학에의 기여』에서 시도된 존재 역사적 경험에 입각한 존재물음이다. — 필자의 주) 위에서 철학의 위대한 물음들을 새로운 사유의 근본 태도로 변화하려고 시도하였다. 우리는 단지 극소수의 위대한 이들처럼 사유의 역사를 결정적으로 움직였던 그러한 사유가와 우리가 동시대인이었다는 특권을 향유한다.

일찍이 쾰니히스베르크 대학에서는 임마누엘 칸트의 이름과 그 대학의

이름을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 영예이었듯이,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경우에는 그 대학인들에게 하이데거의 이름을 명명해도 된다는 것은 하나의 명예였고, 명예이며, 또 명예로 남을 것이다.”(Friedrich-Wilhelm von Herrmann, “Die Frage nach dem Sein als hermeneutische Phänomenologie”, Große Themen Martin Heideggers, Verlag Rombach Freiburg, 1990. 30쪽)

2.3 『철학에의 기여』 상세 목차

제1장: 앞서 봄

공적인 제목: 철학에의 기여

본질적 표제: 생기로부터

1절: 『기여』는 ...케도 안에서 묻는다

2절: 생기로부터 말함은 존재물음에 대한 최초의 응답

3절: 생기로부터

4절: 생기로부터

5절: 소수의 이들을 위하여 — 드문 이들을 위하여

6절: 근본기분

7절: 생기로부터

8절: 생기로부터

9절: 전망

10절: 생기로부터

11절: 생기 - 현존재 - 인간

12절: 생기와 역사

13절: 자체

14절: 철학과 세계관

15절: >>민족의 철학<<으로서의 철학

- 16절: 철학
- 17절: 철학의 필연성
- 18절: 사유의 무력감
- 19절: 철학(“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으로)
- 20절: 시원 및 시원적 사유
- 21절: 시원적 사유(마주 던짐)
- 22절: 시원적 사유
- 23절: 시원적 사유. 왜 사유는 시원으로부터 비롯되는가?
- 24절: 시원적 사유에 대한 오도된 요구
- 25절: 역사성과 존재
- 26절: 얹으로서의 철학
- 27절: 시원적 사유(개념)
- 28절: 유한한 사유인 시원적 사유에 대한 측정 불가능성
- 29절: 시원적 사유(본질에 관한 물음)
- 30절: 시원적 사유(숙고로서)
- 31절: 시원적 사유의 양식
- 32절: 생기. 나지막한 울림과 건네줌의 실현 이후에 대한 결정적 전망
- 33절: 존재물음
- 34절: 생기와 존재물음
- 35절: 생기
- 36절: 존재에 대한 철저한 사유 및 언어
- 37절: 존재 및 그것의 침묵
- 38절: 침묵
- 39절: 생기
- 40절: 이행의 시대에서의 사유의 작품
- 41절: 존재에 관한 모든 말 행위는 낱말과 이름 안에 간직된다.
- 42절: 『존재와 시간』으로부터 『생기』로
- 43절: 존재와 결단
- 44절: >>결단들<<

- 45절: >>결단<<
 46절: 결단(선개념)
 47절: 결단의 본질: 존재 혹은 비존재
 48절: 결단은 어떤 의미에서 존재 자체에 속하는가
 49절: 왜 결단이 내려져야 하는가?
- 제2장: 나지막한 올림
 50절: 나지막한 올림
 51절: 나지막한 올림
 52절: 존재의 떠남
 53절: 곤경
 54절: 존재의 떠남
 55절: 나지막한 올림
 56절: 존재의 떠남은 존재망각의 은폐된 방식으로 머무름
 57절: 존재의 역사 및 존재의 떠남
 58절: 존재의 떠남의 세 가지 은폐된 양상들은 무엇이며 또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자신을 내보이는가?
 59절: 완전한 물음 상실 및 마법화의 시대
 60절: 최고의 곤경인 무곤경성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61절: 공작
 62절: 공작과 >>체험<<에 의한 ‘존재의 떠남의 자기 왜곡’
 63절: 체-험
 64절: 공작
 65절: 존재의 비본질
 66절: 공작과 체험
 67절: 공작과 체험
 68절: 공작과 체험
 69절: 체험과 >>인간학<<
 70절: 거대한 것

- 71절: 거대한 것
- 72절: 허무주의
- 73절: 존재의 떠남과 >>과학<<
- 74절: 근원적인 존재의 떠남이 갖는 귀결인 >>총체적 동원<<
- 75절: 과학에 대한 숙고에 관하여
- 76절: >>과학<<에 관한 명제들
- 77절: experiri - experientia - experimentum - >>Experiment
(실험)<< - empeiria - Erfahrung(경험) - Versuch(시도)
- 78절: experiri(empeiria) - >>erfahren(경험한다)<<
- 79절: 정밀과학과 실험
- 80절: experiri - experientia - experimentum - >Experiment
(실험)<<
- 제3장: 건네줌
- 81절: 건네줌
- 82절: 건네줌
- 83절: 존재에 관한 모든 형이상학의 견해
- 84절: 존재자
- 85절: 제1시원의 근원적 전유(專有)는 다른 시원 안에 받을 들여 놓
음을 의미한다
- 86절: 아직 고양되지 않았으며 또한 그 자신에 의해서는 스스로 인식될 수
없는 것으로서의 형이상학의 역사가 마련해 주며 그로써 건네주는 것
- 87절: 제1시원의 역사(형이상학의 역사)
- 88절: 이러한 과제의 울타리에는 >>철학의 역사에 관한<< 강의들이 속한다.
- 89절: 다른 시원으로의 이행
- 90절: 제1시원으로부터 다른 시원으로. 부정
- 91절: 제1시원으로부터 다른 시원으로
- 92절: 제1시원과 다른 시원의 대결
- 93절: 위대한 철학들

- 94절: 다른 시원의 대결
- 95절: 제1시원
- 96절: 존재자를 꺾기로서 간주하는 시원적 해석
- 97절: 꺾기(테크네)
- 98절: 존재자성을 지속적 현전성을 향해 마주 던짐
- 99절: 시원적 사유에서 >>존재<<와 >>생성<<
- 100절: 제1시원
- 101절: 초기에서부터 확고한 빛 속에서 명확히 되어야 한다...
- 102절: 사유: 서구 철학의 주도적 물음의 실마리
- 103절: 독일 관념론의 개념에 관하여
- 104절: 독일 관념론
- 105절: 훔델린 - 키에르케고르 - 니체
- 106절: 제1시원과 다른 시원 사이에서의 대결을 실현함에 있어서 모든 >>존재론<<에 대한 결단
- 107절: 주도적 물음에 대한 응답 및 전승된 형이상학의 형식
- 108절: 주도적 물음의 역사 내부에서의 형이상학적 근본입장들 및 그러한 입장들에 그때마다 속하는 시간-공간에 대한 해석
- 109절: 이데아
- 110절: 이데아, 플라톤주의와 관념론
- 111절: >>아프리오리<<와 꺾기
- 112절: >>아프리오리<<
- 113절: 이데아와 우시아
- 114절: 니체의 근본적인 형이상학적 입장에 관하여
- 4장: 도약
- 115절: 도약의 주도적 기분
- 116절: 존재의 역사
- 117절: 도약
- 118절: 도약

- 119절: 근본물음을 묻는 행위를 통한 준비 과정 안에서의 도약
120절: 도약
121절: 존재와 존재자
122절: 도약(던져져 있음 안에서의 도약)
123절: 존재
124절: 도약
125절: 존재와 시간
126절: 존재와 존재자 그리고 신들
127절: 균열
128절: 존재와 인간
129절: 무
130절: 존재의 >>본질<<
131절: 존재의 본질 안에서의 과잉(자기 은폐)
132절: 존재와 존재자
133절: 존재의 본질
134절: 현-존재와 존재의 관련
135절: 생기로서의 존재의 현성(현-존재와 존재의 관련)
136절: 존재
137절: 존재
138절: 존재의 진리와 존재이해
139절: 존재의 현성: 진리와 시간-공간
140절: 존재의 현성
141절: 존재의 본질
142절: 존재의 본질
143절: 존재
144절: 존재 그리고 근원적 투쟁(존재 자체의 본질 안에서 존재 혹은
비존재)
145절: 존재와 무
146절: 존재와 비존재

- 147절: 존재의 현성(그것의 유한성)
- 148절: 존재자가 있다
- 149절: ti estin과 oti estin에 따른 존재자의 존재자성의 구별
- 150절: 존재자의 무엇 존재와 존재 사실의 구별의 근원
- 151절: 존재와 존재자
- 152절: 존재의 단계들
- 153절: 삶
- 154절: >>삶<<
- 155절: 자연과 대지
- 156절: 균열
- 157절: 균열과 >>양상들<<
- 158절: 균열과 >>양상들<<
- 159절: 균열
- 160절: 죽음을 향한 존재 그리고 존재
- 161절: 죽음을 향한 존재
- 162절: 죽음을 향한 존재
- 163절: 죽음을 향한 존재 그리고 존재
- 164절: 존재의 현성
- 165절: 현성으로서의 본질
- 166절: 현성과 본질
- 167절: 현성으로의 진입
- 제5장: 근거지움
- a) 현-존재 및 ‘존재를 향해 마주 던짐’
- 168절: 현-존재와 존재
- 169절: 현-존재
- 170절: 현-존재
- 171절: 현-존재
- 172절: 현-존재와 존재물음

- 173절: 현-존재
 174절: 현-존재와 내립성(內立性)
 175절: 현-존재와 전체 안에서의 존재자
 176절: 현-존재. 이 낱말에 대한 규명에 관하여
 177절: 떠나-있음
 179절: >>실존<<(『존재와 시간』, 42쪽)
 180절: 존재이해와 존재
 181절: 도약
 182절: 존재를 향해 마주 던짐. 던져져 있는 것으로서의 마주 던짐
 183절: 존재를 향해 마주 던짐
 184절: 존재의 진리에 관한 물음인 존재물음
 185절: 현-존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186절: 현-존재
- b) 현-존재
- 187절: 근거지움
 188절: 근거지움
 189절: 현-존재
 190절: 현-존재에 관하여
 191절: 현-존재
 192절: 현-존재
 193절: 현-존재와 인간
 194절: 인간과 현-존재
 195절: 현-존재와 인간
 196절: 현-존재와 민족
 197절: 현-존재 - 고유함 - 자기성
 198절: 현-존재를 근거지움은 근거-닭음이다
 199절: 초월과 현-존재 그리고 존재
 200절: 현-존재

- 201절: 현-존재와 떠나-있음
 202절: 현-존재(떠나-있음)
 203절: 마주 던짐과 현-존재
- c) 진리의 본질
- 204절: 진리의 본질
 205절: 열려 있는 장
 206절: 알레테이아로부터 현-존재로
 207절: 알레테이아로부터 현-존재로
 208절: 진리
 209절: 알레테이아 - 자신을 은폐하는 것의 열려 있음과 밝음
 210절: 진리의 본질의 역사에 관하여
 211절: 알레테이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의 알레테이아의 위기, 마지막 광채 그리고 완전한 붕괴
 212절: 확실성으로서의 진리
 213절: 진리물음에서 문제가 되는 것
 214절: 진리의 본질(열려 있음)
 215절: 진리의 현성
 216절: 진리물음의 단초
 217절: 진리의 본질
 218절: 진리의 현성의 암시
 219절: 진리에 관한 물음의 짜임구조
 220절: 진리에 관한 물음
 221절: 존재의 현성으로서의 진리
 222절: 진리
 223절: 진리의 본질(그것의 비-본질)
 224절: 진리의 본질
 225절: 진리의 본질
 226절: 은폐의 밝음 그리고 알레테이아

- 227절: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
 228절: 진리의 본질은 비-본질이다
 229절: 진리와 현-존재
 230절: 진리와 올바름
 231절: 알레테이아로서의 진리가 올바름으로 변모하게 된 방식
 232절: 진리에 관한 물음은 역사적 숙고다
 233절: 동굴의 비유에 대한 해석(1931/32, 1933/34)을 진리물음으로
 접목함
 234절: 진리에 관한 물음(니체)
 235절: 진리와 진정함
 236절: 진리
 237절: 믿음과 진리
- d) 심-연으로서의 시간-공간
 238절: 시간-공간
 239절: 시간-공간(예비적 숙고)
 240절: 시간과 공간, 그것들의 >>현실성<<과 >>유래<<
 241절: 공간과 시간 - 시간-공간
 242절: 심-연으로서의 시간-공간
- e) 간직함으로서의 진리의 현성
 243절: 간직함
 244절: 진리와 간직함
 245절: 진리와 간직함
 246절: 참된 것 안에 진리를 간직함
 247절: 현-존재를 근거지움 및 진리를 간직함의 궤도들
- 제6장: 도래할 자들
 248절: 도래할 자들
 249절: 도래할 자들의 근본기분
 250절: 도래할 자들

- 251절: 민족의 본질과 현-존재
 252절: 현-존재 그리고 마지막 신에게로 도래할 자들
 제7장: 마지막 신
 253절: 마지막 것
 254절: 거절
 255절: 생기 안에서의 전향
 256절: 마지막 신
 제8장: 존재
 257절: 존재
 258절: 철학
 259절: 철학
 260절: 거대한 것
 261절: 존재에 관한 사념
 262절: 존재를 향해 >>마주 던짐<< 그리고 마주 던짐으로서의 존재
 263절: 마주 던짐은 모두 던져져 있음 안에서의 마주 던짐이다.
 264절: 존재를 향해 마주 던짐 그리고 존재이해
 265절: 존재에 대한 철저한-사유
 266절: 존재 그리고 >>존재론적 차이<<. >>구별<<
 267절: 존재(생기)
 268절: 존재(구별)
 269절: 존재
 270절: 존재의 본질(현성)
 271절: 현-존재
 272절: 인간
 273절: 역사
 274절: 존재자 그리고 계산
 275절: 존재자
 276절: 존재와 언어

277절: >>형이상학<< 그리고 예술작품의 근원

278절: 예술작품의 근원

279절: 신들은 어떻게?

280절: 이행의 물음

281절: 언어(그것의 근원)

편집자의 후기

2.4 주요 용어

2.4.1 나지막한 울림

존재의 진리는 자신을 완강히 거부한다. 존재는 자신을 드러내는 동시에 자신을 은폐한다. 따라서 존재는 균열이다. 그런데 존재의 나지막한 울림은 이러한 균열을 포함한다. 존재의 나지막한 울림 속에서는 이제까지의 존재의 역사가 자신을 우리에게 건네주는 동시에 또한 새롭게 밝아오는 존재의 역사가 자신을 우리에게 건네주기도 한다. 나지막한 울림 속에서는 존재의 제1시원의 역사 및 다른 시원의 역사가 자신을 우리에게 건네준다.

2.4.2 존재의 떠남

존재는 자신을 드러내는 동시에 자신을 은폐한다. 존재는 균열이다. 존재의 진리가 자신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한, 존재의 드러난 측면은 존재의 진리가 아니다. 즉 존재는 비성(非性)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다면 인간만이 오직 유일하게 존재를 이해하고 있는 한, 인간의 사명은 존재의 은폐와 왜곡을 꿰뚫고 나아가 존재의 진리를 사유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존재의 진리를 사유하기는커녕, 그때마다의 존재의 역사적 운명에 따라 사유한다. 오늘날의 인간은 오늘날의 존재의 역사적 운명인 몰아세움(Gestell) 안에서 몰아세움에 따라 사유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가 구체화된 모습이 공작이다. 공작은 오늘날 인간이 존재자를 대하는 근본적 태도이다. 공작은 이 낱말 자체가 암시하듯, 인간이 존재자를 그것의 고유한 지평 안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존재자를 인위적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존재자로부터 존재는 떠나고 만다. 존재의 떠남은 존재의 비성으로부터 발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의 비성을 깨뜨리고 존재의 진리를 사유하기는커녕 존재의 역사적 운명에 매몰된 채 존재자를 인위적으로 공작함으로 인해 비롯된 존재의 비본질로부터 발원한다. 단, 우리가 주의할 점은 여기에서 언급된 존재의 비본질이란 존재의 진리가 아직 현성하지 않은 채 은폐되어 있다는 의미에서의 비본질이 아니라 존재의 진리가 인간의 인위적 공작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의미에서의 비본질이다.

2.4.3 곤경

존재의 떠남은 존재 망각을 통해 고착화된다. 존재 망각이야말로 인간이 처한 곤경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곤경을 곤경으로서 각성하지 못한 채 마치 우리가 아무런 곤경에도 처해 있지 않은 듯 살아간다. 따라서 무곤경성이야말로 우리가 처한 최고의 곤경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존재가 새로이 도래하며, 또한 다른 한편으로 우리 중 누군가가 존재의 도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한, 우리 중 누군가는 자신이 이제까지 곤경에 처해 있음을 비로소 자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각은 우리에게 우리가 도달해야 할 장래를 비로소 열어 준다.

2.4.4 공작

공작(Machenschaft)이란 낱말은 존재자에 대한 인간의 특정한 태도인 제작(machen)을 즉각 지시한다. 그리스인들은 제작을 포이에시스 혹은 테크네로 이해한 바 있다. 또한 ‘자신을-스스로-제작함’을 뜻하는 뤼지스도 근본적으로는 제작으로서의 테크네에 입각하여 이해된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공작을 단순히 인간의 태도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존재자를 제작한다는 것은 이미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특정한 해석을 전제한다. 존재자가 제작 가능한 것으로서 드러나는 한에서만, 우리는 존재자를 우리의 임의대로 제작한다. 따라서 공작(혹은 제작)은 단순히 인간의 태도가 아니라 존재 현성의 방식이 된다. 비록 공작을 통해서 존재자가 자신의 고유한 의미 안에서 드러나 않고 단지 제작 가능한 것으로만 드러나긴 하나, 즉 공작은 존재가 비본질적으로 현성하는 방식이긴 하나, 존재의 비본질도 본질적으로는 존재의 본질에 속하는 한, 공작은 존재가 현성하는 하나의 방식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의 현성의 방식인 공작에 입각해서만 인간의 하나의 태도인 제작은 가능하게 된다.

2.4.5 체험

근대 형이상학에서 인간이 존재자를 지배하는 방식은 존재자를 자기 앞에 세우는 활동(das Vorstellen: 표상활동)이다. 존재자는 인간의 욕구에 맞게 인간 앞에 세워져 인간의 삶(生) 안으로 편입된다. 표상된 것으로서의 모든 존재자의 존재는 ‘나’의 ‘확실성’에 맞게 규정된다. 이러한 사건을 우리는 체험이라고 명명한다. 체험의 영역에서는 ‘체험된 것’ 혹은 ‘체험될 수 있는 것’, 즉 ‘인간이 자기 쪽으로 가져 올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의 체험의 등장은 인간 중심적 사유 방식을 촉진하며 고착화한다.

2.4.6 건네줌

존재는 자신의 진리를 완강히 거부하면서도 자신의 진리를 우리에게 나지막하게 울리고 있다. 존재의 진리의 나지막한 울림을 우리가 알아들을 때 철학의 제1시원은 자신을 우리에게 건네준다. 즉 이제까지의 철학을 주도했던 “존재자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우리에게 자신을 건네준다. 이처럼 건네줌은 처음에는 제1시원을 건네줌이다. 그런데 우리가 제1시원에 입각해 종래의 존재의 역사를 존재의 진리가 부재하는 역사로서 경험할 때 철학의 제1시원은 우리에게 다른 시원의 존재의 역사의 가능성을 건네준다. 즉 건네줌은 ‘서로-건네줌’이다. 건네줌 안에서는 다른 시원으로의 도약을 향한 준비가 이루어진다. “존재자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의 주도적 물음으로부터 “존재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의 근본물음을 향한 도약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생기-사유의 두 번째 짜임 구조인 건네줌이다. 따라서 건네줌의 주도적 기분은 시원들(즉 제1시원 및 다른 시원)에 관해 물으면서 시원들 상호 간을 넘나드는 즐거움이다. 물론 이러한 즐거움은 이제까지의 모든 존재론을 숙고하는 가운데 다른 시원을 향한 결단을 요구하는 즐거움이다.

2.4.7 형이상학의 극복

주도적 물음으로부터 근본물음으로의 이행은 형이상학의 극복이다. 더욱이 이러한 이행은 형이상학에 대한 최초이자 최초로 가능하게 된 극복이다. 그런데 형이상학의 극복이라 하여 기존의 형이상학을 단순히 내버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형이상학의 극복은 제1시원의 형이상학의 본질을 캐물어 그러한 본질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묻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다른 시원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형이상학의 극복은 이미 다른 시원에 입각하여 묻고 있는 것이며, 이로써 기존의 모든 형이상학은 종말에 이른다.

2.4.8 도약

도약은 사유의 제1시원으로부터 다른 시원으로의 도약이다. 사유의 제1시원의 역사가 자신을 우리에게 건네줄 때 우리가 제1시원 속에 감추어져 있는 다른 시원의 말 없는 목소리를 알아들어 제1시원과 다른 시원 사이에 ‘서로 건네줌’이 성립한다면, 여기에는 이미 다른 시원으로의 도약이 관여한다. 따라서 도약은 시원적 사유의 진행과정에서 가장 과감하게 취해진 움직임이다. 도약은 제1시원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버린 채, 또한 존재자로부터는 아무런 것도 직접적으로는 기대하지 않은 채, 오로지 존재의 완전한 현성인 생기를 향해 뛰어든다. 즉 도약은 제1시원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였음에도 아직 묻어지지 않은 채 감추어져 있는 존재의 역사를 향해 최초의 돌진을 감행하는 모험이다.

2.4.9 생기

존재 망각이 깊어짐에 따라 존재도 자신의 진리로부터 멀어진다. 따라서 존재는 자신의 진리를 향해 회귀하는데, 존재와 인간이 근원적으로 관련된 이상, 존재가 자신의 진리를 회복하여 새롭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인간을 필요로 한다. 즉 존재와 인간 사이에는 전향적 관련이 성립하는데, 이것이 바로 존재의 최고의 소명인 생기이다. 이러한 생기를 통하여 존재와 인간은 서로의 고유함을 회복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점은, 이성적 동물로서의 인간으로부터 현존재로서의 인간으로의 본질 변화이다. 존재와 인간의 근원적 관련성을 망각한 채 마치 스스로 주체인양 거들먹거렸던 것이 지금까지의 이성적 동물로서의 인간이라면, 이제 인간은 신들의 신성함을 맞이할 결단을 내리며 존재의 진리가 펼쳐질 시간-놀이-공간을 수호하는 현존재로서의 인간이 된다.

2.4.10 몰락

생기로서의 존재는 자신을 거절(은닉)한 채로 인간에게 도래한다. 따라서 이를 맞이하기 위하여 인간에게는 존재론적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존재론적 전환이란 인간이 이제까지 제1시원 안에서 누려왔던 익숙한 것을 여인 채 자신의 위대함을 존재의 유일하면서도 일회적인 진리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순간 속에 집약하는 몰락을 의미한다. 즉 제1시원으로부터 다른 시원으로의 도약은 일종의 몰락이다. 인간은 스스로 몰락함으로써만 인간에게 은닉한 채로 다가오는 존재의 진리를 맞는다. 몰락은 생기가 인간에게 자신을 보내오는 그 거절에로의 가장 친밀한 가까움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몰락하는 이는 극히 드물다. 또한 ‘언제’ ‘누가’ ‘어떻게’ 존재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지는 계산의 대상도 아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가 구가하는 문화가 존재의 망각 및 존재의 떠남을 고착화한 현상일뿐더러 인간중심주의를 강화하며 기독교적 오해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존재의 진리를 맞이하기 위한 몰락은 우리에게 요원하다.

2.4.11 마주 던짐

존재의 진리를 향해 우리 자신을 마주 던짐은, 우리가 이미 존재의 진리에 의해 존재의 진리 안으로 던져져 있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인간 현존재는 던져져 있는 자이다. 이때 던지는 자는 존재이다. 존재는 이미 우리를 존재의 진리를 향해 던져 놓았다. 그러나 인간 현존재는 자신이 존재의 진리 안으로 던져져 있음을 망각하고 있다. 즉 인간 현존재는 자신과 존재의 근원적 관련성을 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이상학의 역사는 존재 망각의 역사요, 존재 망각이 깊어짐에 따라 존재는 존재자로부터 떠나 버린다. 따라서 존재의 진리를 향한 마주 던짐은 우리가 존재의 떠남이라는 곤경을 곤경으로서 받아들이는 결단을 내려 우리의 던져져 있음을 회복하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점은, 존재의 진리를 향한 마주 던짐에서는 던지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

이라는 점이다. 인간 현존재는 존재의 진리를 향해 자신을 던지는 자가 된다.

2.4.12 상호공속적 진동

존재는 현성하기 위하여 인간을 필요로 한다. 비록 존재가 새롭게 도래한 들, 인간이 존재를 존재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존재의 진리는 실현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생기는, 엄밀히 말하자면, 상호공속적 진동이다. 한편으로는 존재가 인간을 존재의 진리 안으로 던져 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자신의 던져져 있음 안에서 존재의 진리를 향해 자신을 마주 던짐으로써 존재의 진리에 귀속하는 한에서만, 생기는 비로소 생기가 된다. 즉 생기는 상호공속적 진동이요, 달리 말하자면 ‘필요와 귀속의 상호 관련성’이다.

2.4.13 근거지움

인간과 존재가 근원적으로 관련되는 한에서, 근거지움은 이중적 의미이다. 존재가 현성하는 한에서만 존재자가 비로소 존재자로서 드러난다는 것이 근거지움의 첫째 의미라면, 인간 현존재가 근거로서의 존재 그 자체에 도달하여 그것을 인수하는 한에서만 존재의 현성이 비로소 실현된다는 것이 근거지움의 둘째 의미이다.

2.4.14 근거-답음

인간 현존재가 근거로서의 존재 그 자체에 도달하여 그것을 인수하는 한에서만 존재의 현성이 비로소 실현된다는 것이 근거지움의 두 번째 의미이다. 우리는 이러한 두 번째 의미에서의 근거지움을 근거-답음이라 명명한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근거-답음도 이중적 구조이다. 즉 존재의 진리는 존재자를 통해 구현되므로, 인간 현존재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근거로서의 존재를 근거로서 현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거로서의 존재를 존재자 안에 간직함으로써 존재의 진리를 존재자를 통해 구현해야 한다. 그런데 존재의 진리를 구현하는 방식은 특히 인간 현존재가 거주하는 삶의 지평과 관련하여 대지 위에서의 건축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지가 대지로서 비로소 드러날 때, 존재의 진리도 구현된다.

2.4.15 간직함

근거-답음은 다시 말해 간직함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간직함이란 눈앞의 진리를 존재자 안에 추가로 보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현존재에게 은닉된 채 다가오는 존재의 진리를 받아들여 존재자 안에 간직해 놓음으로써 존재의 진리를 존재의 진리로서 현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인간과 존재가 근원적으로 관련된 한에서, 만약 인간 현존재가 존재의 진리를 간직하지 않는다면, 존재의 진리는 현성할 수 없다.

2.4.16 도래할 자들

도래할 자들은 우리에게 낯선 이들이다. 우리가 존재를 망각한 채로 있고 또한 존재가 존재자를 떠나 있는 한, 존재의 진리를 근거 짓는 자로서의 그들은 우리에게 낯선 이들이다. 그러나 도래할 자들이야말로 우리가 그리는 장래의 인간들이다. 그들을 지배하는 근본기분은 자제함인데, 그들이 형이상학적 욕구를 자제한 채로 존재의 진리에 대해 결단을 내릴 때 비로소 존재의 진리는 현성한다. 마지막 신은 비로소 우리를 스쳐 지나가며 존재자는 자신의 고유한 의미 안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우리 시대의 과제는 도래할 자들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준비는 말없이 다가오는 존재의 진리의 현성을 말없이 맞이할 때 가능하다. 즉 이러한 준비에 기여하는 것은 생기를 묵언으로 맞이하는 시원적 사유이다.

2.4.17 근본기분

도래할 자들의 근본기분을 하나의 낱말로 명명하자면, 자체이다. 자체란 인간 현존재에게 도래하는 생기에 의해 기분에 젖어 있으면서 생기를 알고자 하는 의지로 충만 되어 있는 용기의 심정으로서 존재자를 지배하고자 하는 형이상학적 욕구를 억제함을 의미한다.

2.4.18 주도적 기분

생기의 짜임구조 각각에는 그것을 주도하는 기분이 있다. 나지막한 울림의 주도적 기분이 경악과 경외라면, 건네줌의 주도적 기분은 즐거움이고, 도약의 주도적 기분은 경외이다. 그런데 이 각각의 주도적 기분은 근본기분에 입각하여 근원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주도적 기분들은 도래할 자들의 근본기분인 자체를 통해 하나의 울림으로 통합된다.

2.4.19 몰락하는 자들

도래할 자들은 몰락하는 자들이다. 몰락하는 자들은 존재의 떠남이 갖는 저 가장 극단적인 통분을 견디어내는 가운데, 자신에게 말없이 은닉된 채로 다가오는 존재의 진리를 향해 몰락한다. 모든 다른 이들은 존재망각의 역사에 안주한 채 몰락을 두려워하고 부정하나, 몰락하는 자들은 앞으로의 역사를 가늠할 존재의 진리의 현성(즉 생기)에로 자신을 집약하는 저 고요함을 활짝 열어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이들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그 어떤 칙칙한 체념이나 아무것도 참되게 의욕하지 못하는 낙관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그들은 존재의 진리의 부름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운데, 경건한 마음으로 존재의 진리에 관해 끊임없이 묻고 있을 뿐이다.

2.4.20 마지막 신

우리는 마지막 신을 이제까지의 모든 신 이후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신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오해는 시간에 대한 자연과학적 표상에 기인한다. 시간에 대한 자연과학적 표상에 따른다면, 마지막 신은 자연과학적 시간 계산에 따라 그것의 도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신에 불과하다. 즉 마지막 신은 낱말 그대로 신들의 존재의 종식을 장식하는 신이 된다. 하지만 마지막 신은 오히려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시원이 되는 신을 의미한다. 마치 우리가 죽음으로 선구함으로써만 비로소 우리의 본래적 가능성을 회복하여 본래적 자기로서의 삶을 펼쳐나가듯, 마지막 신은 우리가 거기에로 선구함으로써만 비로소 존재의 진리가 펼쳐지는 삶의 시원이 된다. 따라서 마지막 신에서 ‘마지막의 것’이란 가장 오랜 선-구를 필요로 할뿐더러, 가장 심오한 시원이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제 2 부 철학 지식지도

1. 철학자 지식지도

- 토픽명: 마틴 하이데거
- 토픽 ID: con_heidegger
- 상위 토픽명: 서양현대철학자
- 상위 토픽 ID: con_philosophers

내부 어커런스

원어 이름: Martin Heidegger

영어 이름: Martin Heidegger

생애 요약: 1부 1.1

외부 어커런스

생애 요약: 1부 1.1

생애 해설: 1부 1.2

생애 연보: 1부 1.3

인물 사진:

원어 웹사이트: <http://www.heidegger.org/>

영어 웹사이트: <http://www.philosophypages.com/ph/heid.htm>

한국어 웹사이트: <http://holzweg.netian.com/>

연관 관계

관계된 철학자: 플라톤(anc_plato),

아리스토텔레스(anc_aristotle),

아퀴노의 토마스 아퀴나스(med_aquino),

데카르트(mod_descartes), 칸트(mod_kant),

헤겔(mod_hegel), 에드문트 후설(con_husserl)

기여한 철학 분야: 형이상학(con_metaphysics),

윤리학(con_ethics),

문화철학(con_cul_phil),

미학(con_aesthetics),

인식론(con_epistemology)

주요 저작: 존재와 시간(con_heidegger_being),

숲길(con_heidegger_holz),

이정표(con_heidegger_weg),

형이상학 입문(con_heidegger_meta),

철학에의 기여(con_heidegger_contri),

언어로의 도상(con_heidegger_lang)

기여한 철학 학파: 신칸트학파(con_neokantian_school),

프랑크푸르트학파(con_frankfurt_school)

기여한 철학 이론: 실존주의(con_existential),

해체주의(con_deconstruct),

현상학(con_phenomeno),

해석학(con_hermeneu),

생철학(con_phi_life)

2. 철학 문헌 지식지도

- 토픽명: 철학에의 기여
- 토픽 ID: con_heidegger_contri
- 상위 토픽명: 서양현대철학문헌
- 상위 토픽 ID: con_phil_texts

내부 어커런스

원어 제목: Beiträge zur Philosophie

영어 제목: Contributions to philosophy

원전 요약: 1부 2.1

원전 초판 출판년도: 1989

외부 어커런스

원전 요약: 1부 2.1

원전 해설: 1부 2.2

상세 목차: 1부 2.3

책표지 그림: <http://www.klostermann.de/>

원어 디지털 텍스트: <http://www.klostermann.de/>

영어 디지털 텍스트:

한국어 디지털 텍스트:

철학 문헌 내용 토픽맵: con_heidegger_contri_km.xml

연관 관계

저자: 마틴 하이데거(con_heidegger)

관계된 철학자: 플라톤(anc_plato),

아리스토텔레스(anc_aristotle),

아퀴노의 토마스 아퀴나스(mod_aquino),

데카르트(mod_descartes), 칸트(mod_kant),

헤겔(mod_hegel), 에드문트 후설(con_husserl)

기여한 철학 분야: 형이상학(con_metaphysics),
윤리학(con_ethics),
문화철학(con_cul_phil),
미학(con_aesthetics),
인식론(con_epistemology)

기여한 철학 학파: 신칸트학과(con_neokantian_school),
프랑크푸르트학과(con_frankfurt_school)

기여한 철학 이론: 실존주의(con_existential),
해체주의(con_deconstruct),
현상학(con_phenomeno),
해석학(con_hermeneu), 생철학(con_phi_life)

주요 저작: 존재와 시간(con_heidegger_being),
숲길(con_heidegger_holz),
이정표(con_heidegger_weg),
형이상학 입문(con_heidegger_meta),
철학에의 기여(con_heidegger_contri),
언어로의 도상(con_heidegger_lang)

3. 철학 용어 지식지도

3.1 나지막한 울림

- 토픽명: 나지막한 울림
- 토픽 ID: t1
- 상위 토픽명: 존재
- 상위 토픽 ID: t_con_being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Anklang

영어 용어: echo

한자 표기: 餘韻

용어 설명: 1부 2.4.1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1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con_heidegger)

사용한 철학 문헌: 철학에의 기여(con_heidegger_contri)

사용한 내용 토픽: 나지막한 울림과 균열(c2.5)

3.2 존재의 떠남

- 토픽명: 존재의 떠남
- 토픽 ID: t2
- 상위 토픽명: 존재
- 상위 토픽 ID: t_con_being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Seinsverlassenheit

영어 용어: abandonment of Being

한자 표기: 存在離脫

용어 설명: 1부 2.4.2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2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con_heidegger)

사용한 철학 문헌: 철학에의 기여(con_heidegger_contri)

사용한 내용 토픽: 공작과 존재의 떠남(c2.6.1)

3.3 곤경

- 토픽명: 곤경
- 토픽 ID: t3
- 상위 토픽명: 존재
- 상위 토픽 ID: t_con_being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Not

영어 용어: distress

한자 표기: 困境

용어 설명: 1부 2.4.3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3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con_heidegger)

사용한 철학 문헌: 철학에의 기여(con_heidegger_contri)

사용한 내용 토픽: 곤경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c2.6.6.2)

3.4 공작

- 토픽명: 공작
- 토픽 ID: t4
- 상위 토픽명: 존재
- 상위 토픽 ID: t_con_being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Machenschaft

영어 용어: machination

한자 표기: 工作

용어 설명: 1부 2.4.4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4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con_heidegger)

사용한 철학 문헌: 철학에의 기여(con_heidegger_contri)

사용한 내용 토픽: 존재 현성의 방식으로서의 공작(c2.6.7.1.2.1)

3.5 체험

- 토픽명: 체험
- 토픽 ID: t5
- 상위 토픽명: 존재
- 상위 토픽 ID: t_con_being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Erlebnis

영어 용어: live-experience

한자 표기: 體驗

용어 설명: 1부 2.4.5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5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con_heidegger)

사용한 철학 문헌: 철학에의 기여(con_heidegger_contri)

사용한 내용 토픽: 체험(c2.6.7.2)

3.6 건네줌

- 토픽명: 건네줌
- 토픽 ID: t6
- 상위토픽명: 존재
- 상위토픽 ID: t_con_being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Zuspiel

영어 용어: playing-forth

한자 표기:

용어 설명: 1부 2.4.6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6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con_heidegger)

사용한 철학 문헌: 철학에의 기여(con_heidegger_contri)

사용한 내용 토픽: 건네줌에 관한논의의 전체적 윤곽 (c3.1)

3.7 형이상학의 극복

- 토픽명: 형이상학의 극복
- 토픽 ID: t7
- 상위 토픽명: 존재
- 상위 토픽 ID: t_con_being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Überwindung der Metaphysik

영어 용어: the overcoming of metaphysics

한자 표기: 形而上學 克服

용어 설명: 1부 2.4.7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7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con_heidegger)

사용한 철학 문헌: 철학에의 기여(con_heidegger_contri)

사용한 내용 토픽: 형이상학의 극복이 갖는 이행적 성격(c3.4.2.1)

3.8 도약

- 토픽명: 도약
- 토픽 ID: t8
- 상위 토픽명: 존재
- 상위 토픽 ID: t_con_being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Sprung

영어 용어: leap

한자 표기: 跳躍

용어 설명: 1부 2.4.8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8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con_heidegger)

사용한 철학 문헌: 철학에의 기여(con_heidegger_contri)

사용한 내용 토픽: 도약의 의미(c4.2)

3.9 생기

- 토픽명: 생기
- 토픽 ID: t9
- 상위토픽명: 존재
- 상위토픽 ID: t_con_being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Ereignis

영어 용어: enowing

한자 표기: 生起

용어 설명: 1부 2.4.9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9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con_heidegger)

사용한 철학 문헌: 철학에의 기여(con_heidegger_contri)

사용한 내용 토픽: 존재의 최고소명으로서의 생기 (c4.4.2.2)

3.10 몰락

- 토픽명: 몰락
- 토픽 ID: t10
- 상위토픽명: 존재
- 상위토픽 ID: t_con_being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Untergang

영어 용어: going-under

한자 표기: 沒落

용어 설명: 1부 2.4.10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10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con_heidegger)

사용한 철학 문헌: 철학에의 기여(con_heidegger_contri)

사용한 내용 토픽: 도약과 몰락(c4.4.2.3)

3.11 마주 던짐

- 토픽명: 마주 던짐
- 토픽 ID: t11
- 상위 토픽명: 존재
- 상위 토픽 ID: t_con_being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Entwurf

영어 용어: projecting-open

한자 표기: 對應投射

용어 설명: 1부 2.4.11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11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con_heidegger)

사용한 철학 문헌: 철학에의 기여(con_heidegger_contri)

사용한 내용 토픽: 던져져 있음 안에서의 마주 던짐(c4.5.2)

3.12 상호공속적 진동

- 토픽명: 상호공속적 진동
- 토픽 ID: t12
- 상위 토픽명: 존재
- 상위 토픽 ID: t_con_being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Gegenschwung

영어 용어: counter-resonance

한자 표기: 相互共屬的 振動

용어 설명: 1부 2.4.12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12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con_heidegger)

사용한 철학 문헌: 철학에의 기여(con_heidegger_contri)

사용한 내용 토픽: 인간과 존재의 상호 관련성(c4.5.3.1)

3.13 근거지움

- 토픽명: 근거지움
- 토픽 ID: t13
- 상위 토픽명: 존재
- 상위 토픽 ID: t_con_being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Gründung

영어 용어: grounding

한자 표기: 定礎

용어 설명: 1부 2.4.13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13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con_heidegger)

사용한 철학 문헌: 철학에의 기여(con_heidegger_contri)

사용한 내용 토픽: 근거지움의 이중적 의미에 대한 예비적 해설(c5.1)

3.14 근거-답음

- 토픽명: 근거-답음
- 토픽 ID: t14
- 상위 토픽명: 존재
- 상위 토픽 ID: t_con_being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Er-gründung

영어 용어: en-grounding

한자 표기:

용어 설명: 1부 2.4.14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14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con_heidegger)

사용한 철학 문헌: 철학에의 기여(con_heidegger_contri)

사용한 내용 토픽: 근거-답음에 대한 해명(c5.3.1.1)

3.15 간직함

- 토픽명: 간직함
- 토픽 ID: t15
- 상위 토픽명: 존재
- 상위 토픽 ID: t_con_being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Bergung

영어 용어: sheltering

한자 표기: 看守

용어 설명: 1부 2.4.15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15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con_heidegger)

사용한 철학 문헌: 철학에의 기여(con_heidegger_contri)

사용한 내용 토픽: 진리의 현성과 간직함(c5.3.2.1)

3.16 도래할 자들

- 토픽명: 도래할 자들
- 토픽 ID: t16
- 상위 토픽명: 인간
- 상위 토픽 ID: t_con_man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die Zukünftigen

영어 용어: The ones to come

한자 표기: 到來者

용어 설명: 1부 2.4.16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16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con_heidegger)

사용한 철학 문헌: 철학에의 기여(con_heidegger_contri)

사용한 내용 토픽: 도래할 자들에 대한 예비적 이해(c6.1)

3.17 근본기분

- 토픽명: 근본기분
- 토픽 ID: t17
- 상위 토픽명: 인간
- 상위 토픽 ID: t_con_man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Grundstimmung

영어 용어: grounding-attunement

한자 표기: 根本氣分

용어 설명: 1부 2.4.17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17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con_heidegger)

사용한 철학 문헌: 철학에의 기여(con_heidegger_contri)

사용한 내용 토픽: 자제(c6.2.1)

3.18 주도적 기분

- 토픽명: 주도적 기분
- 토픽 ID: t18
- 상위 토픽명: 인간
- 상위 토픽 ID: t_con_man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Leitstimmung

영어 용어: guiding-attunement

한자 표기: 主導的 氣分

용어 설명: 1부 2.4.18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18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con_heidegger)

사용한 철학 문헌: 철학에의 기여(con_heidegger_contri)

사용한 내용 토픽: 근본기분과 주도적 기분(c6.2.2)

3.19 몰락하는 자들

- 토픽명: 몰락하는 자들
- 토픽 ID: t19
- 상위 토픽명: 인간
- 상위 토픽 ID: t_con_man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die Unter-gehenden

영어 용어: those who are going-under

한자 표기: 沒落者

용어 설명: 1부 2.4.19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19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con_heidegger)

사용한 철학 문헌: 철학에의 기여(con_heidegger_contri)

사용한 내용 토픽: 몰락하는 자들(c6.4.2)

3.20 마지막 신

- 토픽명: 마지막 신
- 토픽 ID: t20
- 상위 토픽명: 신
- 상위 토픽 ID: t_con_god

내부 어커런스

원어 용어: der letzte Gott

영어 용어: the last god

한자 표기: 最終的 神

용어 설명: 1부 2.4.20

외부 어커런스

용어 설명: 1부 2.4.20

연관 관계

사용한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con_heidegger)

사용한 철학 문헌: 철학에의 기여(con_heidegger_contri)

사용한 내용 토픽: 마지막의 것이 갖는 본래적 의미(c7.1)

4. 철학 문헌 내용 지식지도

1. 들어가는 말

1.1 제목에 대한 해명

1.1.1 공적인 제목 (e1.1.1.1 / q1.1.1.2)

- 1.1.2 본질적 표제 (e1.1.2.1 / q1.1.2.2)
- 1.2 『철학에의 기여』의 사유 궤도
 - 1.2.1 이행적 사유 (e1.2.1.1 / q1.2.1.2)
 - 1.2.2 다른 시원 안에서의 사유
 - 1.2.2.1 다른 시원 (e1.2.2.1.1 / q1.2.2.1.2)
 - 1.2.2.2 이행적 사유 속에서 제1시원 (e1.2.2.2.1 / q1.2.2.2.2)
 - 1.2.2.3 말함과 말해져야 할 것의 동일성 (e1.2.2.3.1 / q1.2.2.3.2 / q1.2.2.3.3)
 - 1.2.3 존재물음 (e1.2.3.1 / q1.2.3.2)
 - 1.2.4 『철학에의 기여』의 윤곽 (e1.3.1 / q1.3.2 / q1.3.3)

2. 나지막한 울림

- 2.1 나지막한 울림과 존재망각 (e2.1.1 / q2.1.2)
- 2.2 나지막한 울림과 기분 (e2.2.1 / q2.2.2 - q2.2.4)
- 2.3 나지막한 울림과 마지막 신의 첫 번째 눈짓 (e2.3.1 / q.2.3.2)
- 2.4 나지막한 울림과 말함 (e2.4.1 / q.2.4.2)
- 2.5 나지막한 울림과 균열 (e2.5.1 / q.2.5.2)
- 2.6 나지막한 울림과 존재의 떠남
 - 2.6.1 공작과 존재의 떠남 (e2.6.1.1 / q.2.6.1.2 / q2.6.1.3)
 - 2.6.2 체험과 공작 (e2.6.2.1 / q.2.6.2.2)
 - 2.6.3 존재의 떠남과 존재 망각 (e2.6.3.1 / q.2.6.3.2)
 - 2.6.4 존재의 떠남과 스스로 빠져 나가는 은폐로서의 존재
 - 2.6.4.1 스스로 빠져 나가는 은폐로서의 존재 (e2.6.4.1.1 / q2.6.4.1.2)
 - 2.6.4.2 형이상학의 역사 속에서의 존재 (e2.6.4.2.1 / q2.6.4.2.2)
 - 2.6.5 존재의 떠남에 대한 존재 역사적 해석
 - 2.6.5.1 존재의 떠남과 존재의 제1의 역사 (e2.6.5.1.1 / q2.6.5.1.2)

- 2.6.5.2 존재의 떠남과 고대 형이상학 (e2.6.5.2.1 / q2.6.5.2.2)
- 2.6.5.3 존재의 떠남과 기독교 (e2.6.5.3.1 / q2.6.5.3.2)
- 2.6.5.4 존재의 떠남과 근대 (e2.6.5.4.1 / q2.6.5.4.2)
- 2.6.6 존재의 떠남과 곤경
 - 2.6.6.1 곤경에 대한 통상적 이해 (e2.6.6.1.1 / q2.6.6.1.2)
 - 2.6.6.2 곤경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 (e2.6.6.2.1 / q2.6.6.2.2)
- 2.6.7 공작과 체험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
 - 2.6.7.1 공작
 - 2.6.7.1.1 공작에 대한 통상적 이해 (e2.6.7.1.1.1 / q2.6.7.1.1.2)
 - 2.6.7.1.2 공작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
 - 2.6.7.1.2.1 존재 현상의 방식으로서의 공작 (e2.6.7.1.2.1.1 / q2.6.7.1.2.1.2-3)
 - 2.6.7.1.2.2 공작의 법칙
 - 2.6.7.1.2.2.1 공작의 제1법칙 (e2.6.7.1.2.2.1-2 / q2.6.7.1.2.2.1.3-5)
 - 2.6.7.1.2.2.2 공작의 제2법칙 (e2.6.7.1.2.2.2.1 / q2.6.7.1.2.2.2.2)
 - 2.6.7.1.2.2.3 공작의 제3법칙 (e2.6.7.1.2.2.3.1 / q2.6.7.1.2.2.3.2)
 - 2.6.7.1.2.3 공작과 존재 (e2.6.7.1.2.3.1 / q2.6.7.1.2.3.2)
 - 2.6.7.2 체험 (e2.6.7.2.1 / q2.6.7.2.2)
 - 2.6.7.3 공작과 체험
 - 2.6.7.3.1 공작과 체험의 상호 공속성 및 시간적 비-동시성 (e2.6.7.3.1.1 / q2.6.7.3.1.2)
 - 2.6.7.3.2 공작과 체험이 갖는 망상 (e2.6.7.3.2.1 / q2.6.7.3.2.2)

3. 건네줌

- 3.1 건네줌에 관한 논의의 전체적 윤곽 (e3.1.1 / q3.1.2)
- 3.2 건네줌의 역사적 본질
 - 3.2.1 건네줌의 역사적 본질에 대한 해명 (e3.2.1.1 / q3.2.1.2)
 - 3.2.2 건네줌과 철학의 근본물음 (e3.2.2.1 / q3.2.2.2 / q3.2.2.3)
- 3.3 건네줌과 이행적(移行的) 사유
 - 3.3.1 제1시원 이래 존재에 관한 형이상학의 견해 (e3.3.1.1 / q3.3.1.2)
 - 3.3.2 제1시원 이래 존재자에 관한 형이상학의 견해 (e3.3.2.1 / q3.3.2.2)
- 3.4 제1시원의 근원적 전유
 - 3.4.1 주도적 물음으로부터 근본물음으로의 이행 (e3.4.1.1 / q3.4.1.2)
 - 3.4.2 형이상학의 극복
 - 3.4.2.1 형이상학의 극복이 갖는 이행적 성격 (e.3.4.2.1.1 / q.3.4.2.1.2)
 - 3.4.2.2 현-존재 그 자체에 속하는 것으로서의 형이상학 (e3.4.2.2.1 / q3.4.2.2.2)

4. 도약

- 4.1 도약에 대한 예비적 이해 (e4.1.1 / q4.1.2)
- 4.2 도약의 의미 (e4.2.1 / q4.2.2)
- 4.3 도약의 주도적 기분 (e4.3.1 / q4.3.2)
- 4.4 도약에서 바라본 존재의 역사
 - 4.4.1 이행의 낫설음 (e4.4.1.1 / q4.4.1.2)
 - 4.4.2 도약과 생-기
 - 4.4.2.1 몇 안 되는 드문 생기들 (e4.4.2.1.1 / q4.4.2.1.2)

4.4.2.2 존재의 최고의 소명으로서의 생-기 (e4.4.2.2.1 / q4.4.2.2.2)

4.4.2.3 도약과 몰락 (e4.4.2.3.1 / q4.4.2.3.2)

4.5 도약의 구조

4.5.1 가장 극단적인 마주 던짐으로서의 도약 (e4.5.1.1 / q4.5.1.2)

4.5.2 던져져 있음 안에서의 마주 던짐 (e4.5.2.1 / q4.5.2.2)

4.5.3 상호공속적 진동

4.5.3.1 인간과 존재의 상호 관련성 (e4.5.3.1.1 / q4.5.3.1.2 / q4.5.3.1.3)

4.5.3.2 인간의 극단적 사명 (e4.5.3.2.1 / q4.5.3.2.2)

5. 근거지움

5.1 근거지움의 이중적 의미에 대한 예비적 해설 (e5.1.1 / q5.1.2)

5.2 근거지움의 첫 번째 의미 (e5.2.1 / q5.2.2)

5.3 근거지움의 두 번째 의미

5.3.1 근거-닭음

5.3.1.1 근거-닭음에 대한 해명 (e5.3.1.1.1 / q5.3.1.1.2)

5.3.1.2 근거-닭음과 현-존재 (e5.3.1.2.1 / q5.3.1.2.2)

5.3.2 간직함

5.3.2.1 진리의 현성과 간직함 (e5.3.2.1.1 / q5.3.2.1.2)

5.3.2.2 간직함과 존재자

5.3.2.2.1 자기 은폐를 위한 밝음과 간직함 (e5.3.2.2.1.1 / q5.3.2.2.1.2)

5.3.2.2.2 존재의 진리를 보존하는 장소로서의 존재자 (e5.3.2.2.2.1 / q5.3.2.2.2.2)

5.3.2.2.3 존재의 진리의 현성

- 5.3.2.2.3.1 마주 던짐과 초연한 내맡김 (e5.3.2.2.3.1.1 / q5.3.2.2.3.1.2)
- 5.3.2.2.3.2 대지와 세계의 투쟁을 투쟁으로 점화함 (e5.3.2.2.3.2.1 / q5.3.2.2.3.2.2 / q5.3.2.2.3.2.3 / q5.3.2.2.3.2.4)
- 5.3.2.2.4 존재의 진리를 존재자 안에 간직하는 사건에 대한 오해 (e5.3.2.2.4.1 / q5.3.2.2.4.2)

6. 도래할 자들

- 6.1 도래할 자들에 대한 예비적 이해 (e6.1.1 / q6.1.2)
- 6.2 도래할 자들의 근본기분
 - 6.2.1 자제 (e6.2.1.1 / q6.2.1.2)
 - 6.2.2 근본기분과 주도적 기분 (e6.2.2.1 / q6.2.2.2)
- 6.3 도래할 자들이 추구하는 앎 (e6.3.1 / q6.3.2)
- 6.4 도래할 자들과 몰락
 - 6.4.1 몰락 (e6.4.1.1 / q6.4.1.2)
 - 6.4.2 몰락하는 자들 (e6.4.2.1 / q6.4.2.2)
- 6.5 도래할 자들과 민족
 - 6.5.1 민족과 신 (e6.5.1.1 / q6.5.1.2)
 - 6.5.2 민족의 본질 (e6.5.2.1 / q6.5.2.2 / q6.5.2.3)
 - 6.5.3 마지막 신에게로 도래할 자들
 - 6.5.3.1 도래할 자들과 마지막 신 (e6.5.3.1.1 / q6.5.3.1.2 / q6.5.3.1.3 / q6.5.3.1.4)
 - 6.5.3.2 현-존재와 마지막 신에게로 도래할 자들
 - 6.5.3.2.1 마지막 신의 눈짓 (e6.5.3.2.1.1 / q6.5.3.2.1.2)
 - 6.5.3.2.2 현-존재를 근거지움 (e6.5.3.2.2.1 / q6.5.3.2.2.2)
 - 6.5.3.2.3 가장 참다운 의미에서 도래할 자 (e6.5.3.2.3.1 / q6.5.3.2.3.2)

7. 마지막 신

7.1 마지막의 것이 갖는 본래적 의미 (e7.1.1 / q7.1.2 / q7.1.3)

7.2 마지막 신을 맞이하기 위한 결단

7.2.1 마지막 신을 맞이하기 위한 결단이 갖는 의미 (e7.2.1.1 / q7.2.1.2)

7.2.2 완강한 거부로서의 존재

7.2.2.1 완강한 거부가 갖는 긍정적 의미 (e7.2.2.1.1 / q7.2.2.1.2)

7.2.2.2 완강한 거부가 갖는 부정적 의미 (e7.2.2.2.1 / q7.2.2.2.2)

7.2.3 생기 안에서의 전향

7.2.3.1 생기의 이중적 구조

7.2.3.1.1 생기의 이중적 구조에 대한 예비적 이해(e7.2.3.1.1.1 / q7.2.3.1.1.2)

7.2.3.1.2 인간을 향한 존재의 전향 (e7.2.3.1.2.1 / q7.2.3.1.2.2)

7.2.3.1.3 존재를 향한 인간의 전향 (e7.2.3.1.3.1 / q7.2.3.1.3.2)

7.2.3.2 상호 공속적 전향

7.2.3.2.1 존재와 인간 사이의 상호 공속적 전향 (e7.2.3.2.1.1 / q7.2.3.2.1.2)

7.2.3.2.2 현존재의 언어 (e7.2.3.2.2.1 / q7.2.3.2.2.2)

7.2.3.2.3 기존의 신들의 회귀와 도피에 대한 최고의 지배 (e7.2.3.2.3.1 / q7.2.3.2.3.2)

7.3 마지막 신에 대한 해명

7.3.1 가장 유일무이한 유일성 (e7.3.1.1 / q7.3.1.1 / q7.3.1.2)

7.3.2 다른 시원으로서의 마지막 신 (e7.3.2.1 / q7.3.2.2)

제 3 부 『철학에의 기여』 내용 분석 연구

1. 들어가는 말

1.1 제목에 대한 해명

1.1.1 공적인 제목

(e1.1.1.1) 이 작품의 공적인 제목은 ‘철학에의 기여’이다. 우리는 철학에서의 모든 근본 낱말이 이미 소진된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 제목을 선택하였으나, 이 제목은 그야말로 무미건조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목에서의 ‘철학’이란 낱말을 전통적 형이상학으로 오해하지는 말아야 한다. 오늘의 시대는 형이상학으로부터 존재 역사적 사유로의 이행의 시대이다. 이에 발맞추어서 오늘의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유는 이제껏 형이상학 속에서 은폐되었던 존재의 진리에 관한 사유이다. 이 작품의 제목도 이러한 사태에 대응한다. 즉 이 작품의 공식적 제목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유는 ‘이제까지 여하튼 감추어졌던 존재의 현성의 영역’을 관통함으로써 존재의 고유한 생기에 도달하는 ‘다가올 사유’이다.

(q1.1.1.2) 공적인 제목은 지금은 필연적으로 창백하며 통상적이며 또한 아무런 것도 말해 주는 바 없고 그리고 ‘철학의 진보를 위한 학문적 기여들이 중요한 듯한’ 인상을 일깨워 줌에 틀림없다. // 철학은 공적으로는 달리 고지될 수 없는데, 그 까닭은 모든 근본낱말들의 소진 및 낱말과의 참다운 관련의 파괴로 인해 모든 본질적인 표제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형이상학으로부터 존재 역사적 사유에 이행하는 시대에는 존재의 진리에 관한 물음 안에서 보다 근원적인 근본 태도에 입각해서 사유하는 시도만이 감행될 수 있는 한에서, 공적인 제목도 사태에 대응한다. 그러나 성공적인 시도조차 철저히-사유되어야 하는 것의 근본생기에 맞추어서, 이제까지의 양식을 지닌 작업을 지향하는 모든 잘못된 요구를 멀리해야 한다. 다가올 사유는 사상(思想)의 도정인데, 이러한 도정을 통해 ‘이제까지 여하튼 감추어졌던 존재의 현성의 영역’은 관통되고 비로소 비추어져 그것의 가장 고유한 생기의 성격 안에서 도달된다.(3, 3)

1.1.2 본질적 표제

(e1.1.2.1) 이 작품에서 추구하는 사유가 ‘이제까지 여하튼 감추어졌던 존재의 현성의 영역’을 관통함으로써 존재의 고유한 생기에 도달하는 ‘다가올 사유’인 한에서, 이 작품의 본질적 표제는 ‘생기로부터’(Vom Ereignis)이다. 우리는 Vom Ereignis를 ‘생기에 관해’ 혹은 ‘생기에 대해’라고 읽기도 하는데, 이러한 읽기는 잘못이다. 이 표제가 의미하는 바는, 생기에게 우리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생기로부터 울려 나오는 그대로 존재를 사유하고 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표제가 의미하는 바에 따라 규정된 인간은 이성적 동물로서의 인간이 아니다. 생기로부터 존재를 사유하고 말하는 한에서, 인간은 현-존재이다. 이 표제로부터 우리는 이성적 동물로서의 인간으로부터 현-존재로서의 인간으로의 본질적 변화를 읽어내게 된다.

(q1.1.2.2) 어떤 것에 대해 다루며 대상적인 것을 현시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생-기에게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기에게 자신을 내맡긴다는 것은 이성적 동물로부터 현-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 변화에 필적하는 바다. 따라서 그에 맞는 표제는 생기로부터(Vom Ereignis)라고 들리게 된다. 이 표제는 ‘생기에 관해’ 또한 ‘생기에 대해’ 보고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에게로 또한 존재라는 낱말에게로 사유적으로-말하는 귀속함은 생기로부터 생-기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자 한다.(3, 3)

1.2 『철학에의 기여』의 사유 궤도

1.2.1 이행적 사유

(e1.2.1.1) 『철학에의 기여』에서 시도된 사유는 이행적 사유이다. 이행적 사유는 철학의 제1시원으로부터 다른 시원으로 이행함으로써 제1시원 안에 감추어져 있던 존재의 진리를 사유하고자 한다. 이행적 사유는 존재의 본질로부터, 즉 생기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다른 시원으로서의 이행을 위한 결단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다른 시원은 아직은 예감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존재의 진리의 자유로운 짜임 구조를 우리가 존재 자체에 입각하여 짜 맞추는 능력은 아직 없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사유가 성공을 거둔다면, 우리는 존재의 떨림 속에서 존재의 본질에 맞게 사유의 열개를 규정지음으로써 마지막 신을 맞이하는 가운데 비로소 현-존재로서 자신의 소명을 다하게 된다.

(q1.2.1.2) 『기여』는 서구의 사유가 이제야 진입하게 된 다른 시원을 향한 이행을 통해 비로소 닦여진 궤도 안에서 묻는다. 이 궤도는 이행을 역사의 열려진 장 안으로 가져오며, 이행을 아마도 매우 오랜 동안의 체류로서 근거 제시하는데, 이러한 체류가 이행(履行)된다 한들 사유의 다른 시원은 비록 이미 결단된 것이긴 하나 단지 예감된 것으로만 항상 남아 있다. // 그러므로 『기여』는, 비록 그것이 이미 단지 존재의 본질에 입각해서 즉 생-기로부터 말한들, 아직은 존재의 진리의 자유로운 짜임구조를 존재 자체로부터 짜 맞추는 능력은 없다. 그러나 언젠가 이러한 일이 성공을 거둔다면, 존재의 떨림 속에서 존재의 저 본질은 사유하는 작업의 열개 자체를 규정지을 것이다. 그런 다음 이러한 떨림은 신들 중의 신이 신으로 등장하는 저 사건의 친밀함으로 해소된 부드러운 힘으로 강화되는데, 이러한 힘에 입각하여, 현-존재를, 즉 존재를 위해 진리를 근거 지음으로서의 현존재를 존재에게로 할당함은 생긴다.(4, 3-4)

1.2.2 다른 시원 안에서의 사유

1.2.2.1 다른 시원

(e1.2.2.1.1) 이행이란 다른 시원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시원이란 이제까지 서구의 사유가 비롯되었던 유일무이하게 단 하나뿐인 시원 안에 감추어져 있던 마찬가지로 유일무이하게 단 하나뿐인 시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 언급된 다른 시원을 사유의 제1시원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임의적인 철학들과 다른 형태 정도의 시원으로 간주한다면, 그것은 사유의 제1시원과 다른 시원의 상호 지시성을 오해한 것이다.

(q1.2.2.1.2) 그러므로 사유의 다른 시원이라고 이름 지어진 까닭은, 그 시원이 이제까지의 다른 임의적인 철학들과 단지 다른 형태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유일무이하게 단 하나인 제1시원에 대한 관련에 입각해 유일무이하게 다른 시원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시원과 다른 시원 서로간의 이러한 지시성에 입각하여, 이행하는 과정 속에 있는 사유적 숙고의 양식도 이미 규정된다.(5, 4)

1.2.2.2 이행적 사유 속에서 제1시원

(e1.2.2.2.1) 우리가 사유의 제1시원으로부터 다른 시원으로 이행한다고 해서, 제1시원 자체가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존재의 역사를 숙고함으로써 이제까지의 형이상학이 거기로부터 발원한 제1시원의 유일무이성을 비로소 개시하며 제1시원에 대한 가장 명확한 두려운 존경심을 갖게 된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두려운 존경심으로 인해 우리는 제1시원 안에 감추어진 다른 시원(즉 제1시원을 가능하게 하였으면 서도 아직 묻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다른 시원)의 말 없는 목소리를 듣게 된다. 이처럼 이행적 사유 안에서도 제1시원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행적 사유에서 제1시원의 시원으로서의 역할은 여기까지이다. 제1시원 앞에서 두려운 존경심을 갖는 순간 우리는

제1시원 안에 감추어진 다른 시원에 관한 물음과 말함으로 등을 돌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행적 사유에서도 제1시원은 여전히 제1의 것으로는 중요하게 남아 있으나 시원으로서는 극복된다.

(q1.2.2.2.2) 이행적 사유의 얹 속에서 제1시원은 제1의 것으로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에서 남아 있으나 그러나 시원으로서는 극복된다. 이러한 사유에서 제1시원 앞에서의 가장 명확한 두려운 존경심(제1시원의 유일무이성을 비로소 개시하는 두려운 존경심)에 병행하는 것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다른 물음과 말함으로 등을 돌리는 것이다.(6, 5)

1.2.2.3 말함과 말해져야 할 것의 동일성

(e1.2.2.3.1) 다른 시원 안에서의 사유에서는 말함과 말해져야 할 것이 동일하다. 제1시원 안에 감추어져 있는 다른 시원의 말 없는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이행적 사유는 그 말 없는 목소리인 존재의 현성에 입각해서만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말함은 말해져야 할 것에 대해 대답하지 않는다. 오히려 말함은 말해져야 할 것 자체 즉 존재의 현성이 된다. 따라서 다른 시원 안에서의 사유는 어떠한 체계적 철학도 허락하지 않는다. 오로지 사유는 ‘가장 물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의 존재로부터 발원하며 ‘가장 물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시된 채 남아 있는 하나의 눈짓의 저 광범한 눈짓함이 된다. 즉 사유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존재의 진리를 향해 자신을 마주 던짐으로써 존재의 진리의 시간-놀이-공간을 근거지으면서 활짝 여는 것이 된다. 또한 그럼으로써 사유는 존재자의 본질적 형태를 존재의 진리에 입각해 지어내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사유는 아직 요원하다. 이러한 사유는 우리에게 기술되거나 설명된 바가 없고 또한 공포되거나 가르쳐진 바도 없으니, 장래의 철학은 자신의 얹의 밝음에 입각하여 자신의 본질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q1.2.2.3.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연습에서처럼 여기에서도 철학의 저 사유하는 말함은 다른 시원 안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그러한 말함에 관해 타당한 점은 다음과 같다. 즉 여기에서는 기술되거나 설명되는

바가 없고 또한 공포되거나 가르쳐지는 것도 없다. 여기에서 말함은 말해져야 할 것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말함은 말해져야 할 것 자체 즉 존재의 현성이다. // 이러한 말함은 존재를 그것의 본질의 첫 번째 나지막한 울림을 향해 모으는데, 그러나 그 자신은 단지 이러한 본질에 입각해서만 울리기 시작한다. // 예비연습 안에서 언급된 것은 하나의 물음인데, 이러한 물음은 어떤 개별자의 의도된 행동도 아니고 어떤 공동체의 제한된 계산도 아니며 오히려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물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부터 발원하며 ‘가장 물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시된 채 남아 있는 하나의 눈짓의 저 광범한 눈짓함이다. // 모든 개인적으로 제작된 것으로부터의 해방은 가장 초기의 귀속함이 갖는 친밀성으로부터만 성공한다. 그러한 해방 안에서 보증되지 않을 어떠한 근거 지움도 허락되지 않는다.(4, 3-4)

(q1.2.2.3.3) 체계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존재자의 본질적 형태를 존재의 진리에 입각해 지어내는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철학은 다른 시원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본질적인 것을 이미 수행했어야 한다. 즉 그것은 바로 마주 던짐, 다시 말하자면, 존재의 진리의 시간-놀이-공간을 근거 지으면서 활짝 여는 것이다. 이 유일무이한 일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아무런 선구성도 없는 채로 또한 아무런 발판도 없는 채로 남아 있다. 이제까지의 것의 단순한 변형들은, 비록 그것들이 역사학적으로 숙지된 사유 방식들을 최대한 가능하게 서로 섞어 놓음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우리를 [이제까지의 것의] 그 자리로부터 데려오지 못한다. 더욱이 모든 양식의 스콜라주의적 세계관도 철학의 바깥에 머물러 있는데, 그 까닭은 그러한 따위의 세계관은 존재가 물을 가치가 있음을 부정함을 근거로 해서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물을 가치가 있는 것을 존중하는 가운데 철학은 그 자신만의 연역될 수도 없고 계산될 수도 없는 존엄성을 갖는다. 이러한 존엄성을 보전함에 의해 또한 이러한 존엄성을 보전함으로서 철학의 행위에 대한 모든 결단은 내려진다. 그러나 가장 물을 가치가 있는 것의 영역 안에서 [철학의] 행위란 단지 하나의 유일무이한 물음일 수 있을 뿐이다. 철학의 감추어진 어떤 시대에서든 다른 시원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철학은 자신의 앞의 밝음에 입각하여 자신의 본질에 대한 결단을 내렸어야만 한다.(5, 4)

1.2.3 존재물음

(e1.2.3.1) 이행적 사유가 추구하는 물음은 존재물음이다. 이제까지 형이상학을 주도해 온 물음이 “존재자란 무엇인가?”를 묻는 존재자적 물음이라면, 존재자가 비로소 본연의 존재자로서 드러나는 의미 근거가 존재(혹은 존재의 진리)인 한에서, 형이상학의 주도적 물음을 근거 짓는 것은 “존재(혹은 존재의 진리)란 무엇인가?”를 묻는 존재물음이다. 그런데 신들도 하나의 존재자인 한에서 신들 역시 존재물음의 짜임구조의 심연에 종속하므로, 우리는 존재물음을 근본물음이라 부르기로 한다.

(q1.2.3.2) 존재물음은 존재의 진리에 관한 물음이다. 존재물음이 역사적으로 실현되고 파악될 때, 존재물음은 이제까지 철학이 추구해 온 존재자에 관한 물음(즉 주도적 물음)과는 대조적으로 근본물음으로 된다. // 물론 존재의 진리에 관한 물음은 깊숙이 보존되어 있는 것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물음이다. 왜냐하면 존재의 진리는 [...] 아마도 결코 신(神)들에게 귀속하지 않고 오히려 신들조차 거기에 종속해 있는 저 짜임구조라는 심연적 차원에만 유일무이하게 속하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자가 있다면, 존재가 반드시 현성해야 한다. 그러나 존재는 어떻게 현성하는가? 그러나 과연 존재자는 있는 것인가? 여기에서 사유는, 존재의 진리에 입각해서가 아니라면, 달리 무엇에 입각해서 결단을 내리는가? 따라서 존재는 더 이상은 존재자에 입각해 사유될 수 없다. [오히려] 존재는 그것 자신에 입각해 철저히 사유되어야 한다.(6-7, 5)

1.2.4 『철학에의 기여』의 윤곽

(e1.3.1) 『철학에의 기여』의 윤곽은 여섯 가지의 짜임 구조로 이루어진다. 나지막한 울림, 건네줌, 도약, 근거지움, 도래할 자들, 마지막 신등이 이 여섯 가지의 짜임 구조에 해당한다. 이 짜임 구조 각각은 인간 현존재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존재의 진리를 뒤쫓아 사유함으로써 존재의 진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수행 단계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여섯 가지의 짜임 구조는 하나의 본질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

가 이 여섯 가지의 짜임 구조를 아래의 것(즉 나지막한 울림)으로부터 위의 것으로 상승하는 단선적 계열로 이해한다면, 그러한 이해는 잘못이다. 이 여섯 가지의 짜임 구조 각각은 그 자체의 독자성을 갖기는 하되 모두 동일하게 존재의 진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므로 서로 긴밀하게 관련된다. 더욱이 이 여섯 가지의 짜임 구조는 아직은 완성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지금 우리는 이행적 사유를 준비하는 단계에 서 있으므로, 『철학에의 기여』의 이러한 윤곽은 이행적 사유의 역사성에 비추어 그려낸 약도로부터 추측된 것에 불과하다. 다만 이러한 윤곽은 존재의 진리에 도래할 자들이 걸어가야 할 시간-놀이-공간에 대한 밑그림으로서는 충분하다.

(q1.3.2)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이 『철학에의 기여』의 윤곽은 이행 자체의 역사성에 대해 아직 재대로 성취되지 않은 약도로부터 추측된다. // 나지막한 울림/건네줌/도약/근거지음/도래할 자들/마지막 신 // 이 윤곽은 상이한 대상들에 대한 상이한 고찰들을 늘어놓지 않는다. 이 윤곽은 아래의 것으로부터 위의 것을 향해 하나하나를 소개하는 상승구조도 아니다. 이 윤곽은, 이행의 역사가, 그 역사의 법칙에 입각하여 “과연 우리가 장래가 없는 이들 즉 항상 단지 영원한 이들이냐 혹은 도래할 자들 즉 단 한번 뿐인 이들이냐”를 결정짓기 위하여 그것의 영역으로서 비로소 창조한 시간-놀이-공간에 대한 밑그림이다.(6, 5)

(q1.3.3) 존재에 의해 생긴 현-존재에 대해 존재가 맺는 전향적 관련의 풍요로움은 측량될 수 없으며, 또한 생기의 충만함은 산출(算出)될 수 없다. 그리고 여기 이러한 시원적 사유에서는 생기로부터 단지 근소한 것만이 언급될 수 있다. 언급된 내용은 첫째 시원과 다른 시원의 서로간의 건네줌 안에서, 존재의 떠남이라는 곤경 안에서의 존재의 나지막한 울림에 입각해, 존재로의 도약을 위해, 마지막 신을 맞이할 도래하는 자들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인 존재의 진리의 근거지음을 위해 물어지고 사유된다.(7, 6)

2. 나지막한 울림

2.1 나지막한 울림과 존재망각

(e2.1.1) 존재가 자신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한, 우리는 존재를 망각한다. 존재망각은 우리가 처해 있는 곤경이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망각을 존재망각으로서 각성할 때, 즉 곤경을 곤경으로서 인정할 때, 자신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존재의 나지막한 울림을 들을 수 있다.

(q2.1.2) 존재망각이라는/우리를 곤경으로 몰아넣는 곤경을 통해/존재의 떠남으로부터 비롯되는/존재의 현성의/나지막한 울림. // 존재망각 속에 감추어진 힘이 출현하도록 우리가 회상을 통해 이러한 망각을 망각으로서 가져온다면 거기에 존재의 나지막한 울림이 있다. 곤경에 대한 인정.
(107, 75)

2.2 나지막한 울림과 기분

(e2.2.1) 현대 기술 문명 앞에서 경악하는 가운데 현대 과학 기술 문명을 가능하게 한 존재의 역사적 운명인 몰아세움(Gestell) 속에 감추어진 존재의 진리를 기다리는 경외심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의 나지막한 울림을 듣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를 존재의 나지막한 울림으로 이끄는 주도적 기분은 경악과 경외이다. 그러나 경악과 경외가 우리를 존재의 나지막한 울림으로 이끄는 근본기분은 아니다. 우리가 아직 존재자를 지배하고자 하는 형이상학적 의지를 지니고 있는 한, 우리는 현대 과학 기술 문명 앞에서 경악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문명의 찬란함에 예속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우선 요구되는 것은 형이상학적 의지를 스스로 억제하는 자제이다. 우리가 자제라는 기분에 젖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경악과 경외라는 주도적 기분 속에서 존재

의 나지막한 울림으로 다가선다. 그러므로 자제는 우리를 존재의 나지막한 울림으로 이끄는 근본기분이다. 경악과 경외는 그때마다 자제로부터 발원한다.

(q.2.2.2) 나지막한 울림으로 이끄는 주도적 기분: 경악과 경외, 그러나 경악과 경외는 그때마다 자제함이라는 근본-기분으로부터 발원한다.(107, 75)

(q2.2.3) 나지막한 울림의 주도적 기분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저 ‘존재의 떠남’ 안에서의 경악이며 또한 동시에 나지막하게 울리는 생기 앞에서의 경외이다. 경악과 경외가 하나가 되어 비로소 나지막한 울림을 사유 안에서 실현되게끔 한다.(396, 277)

(q2.2.4) 자제는 근본-기분이다. 왜냐하면 자제는 현-존재의 근거를 캐어몰어 근거 짓는 것을, 다시 말해 생기를 캐어몰어 근거 짓는 것을, 또한 따라서 현-존재를 근거 짓는 것을 기분에 짓게 하기 때문이다. // 자제는 생-기를 맞이하기 위한, 다시 말해 생기 안에서의 전향에 관한 진리 안에 본래적으로 내립하도록 던져짐을 위한 현존재의 가장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부드러운 준비이다.(참고. 마지막 신) 마지막 신의 지배는 단지 자제만을 맞닥뜨린다. 자제는 그것, 즉 지배에게, 또한 그것, 즉 마지막 신에게 위대한 고요함을 제공한다. // 자제는 인간의 장래의 현존재에 있어서 진리를 간직하는 그때마다의 근거 짓는 순간을 기분에 짓게 한다. 현-존재 안에 근거지어진 역사는 위대한 침묵이 은폐된 역사이다. 그러나 침묵 안에서만 아직 민족이 존재할 수 있다. // 이러한 자제만이 오로지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모임을 자기 자신에게로, 다시 말해 인간에게 위탁된 사명으로, 즉 마지막 신의 지속으로 결집할 수 있다.(34, 24-25)

2.3 나지막한 울림과 마지막 신의 첫 번째 눈짓

(e2.3.1) 현대 과학 기술 문명에 도취된 채 우리는 존재의 역사적 운명을 읽어내지 못한다. 존재가 떠나버린 가운데 우리는 존재를 망각한다.

우리의 시대를 가능하게 한 존재의 역사적 운명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존재 망각,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곤경이다. 그러나 우리는 곤경을 곤경으로서 대처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시대가 아무런 곤경에 처해 있지 않는 양 자위한다. 하지만 곤경을 곤경으로서 각성하지 못하는 무곤경성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위기의 본질이다. 즉 무곤경성의 곤경이야말로 최고의 곤경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제, 경악, 경외의 기분에 젖어 비로소 곤경을 곤경으로서 각성할 때, 몰아세움이라는 존재의 역사적 운명 안에서 나지막하게 울리는 존재의 진리를 듣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존재의 나지막한 울림이 비로소 나지막하게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줄 마지막 신의 첫 번째 눈짓과 만나게 된다.

(q.2.3.2) 최고의 곤경: 무곤경성의 곤경. [무곤경성의 곤경을 각성함으로써] 비로소 처음으로 [존재의 현성을] 나지막하게 울리게끔 한다면, 이때 필연적으로 다수의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물어질 수도 없는 것으로 남을 터이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신의] 첫 번째 눈짓이 가능하게 된다.(107, 75)

2.4 나지막한 울림과 말함

(e2.4.1) 존재의 나지막한 울림은 침묵으로 다가온다. 그렇다면 존재의 나지막한 울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말함은 어떠한 말함이 되어야 하는가? 아마도 침묵을 침묵으로서 맞이하는 단순 소박한 말함, 그러니까 묵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q.2.4.2) 말함의 어떤 단순 소박한 노선이 여기에서 선택되어야 하며 또한 아무런 부수적 고찰 없이 이끌려져야 하는가?(107, 75)

2.5 나지막한 울림과 균열

(e2.5.1) 존재의 진리는 자신을 완강히 거부한다. 존재는 자신을 드러내는 동시에 자신을 은폐한다. 따라서 존재는 균열이다. 그런데 존재의 나지막한 울림은 이러한 균열을 포함한다. 존재의 나지막한 울림 속에서는 이제까지의 존재의 역사가 자신을 우리에게 건네주는 동시에 또한 새롭게 밝아오는 존재의 역사가 자신을 우리에게 건네주기도 한다. 나지막한 울림 속에서는 존재의 제1시원의 역사 및 다른 시원의 역사가 자신을 우리에게 건네준다. 따라서 나지막한 울림은 건네줌을 위한 역행적 놀이로서 분절되어야 한다.

(q.2.5.2) 나지막한 울림은 균열 전체를 포괄해야 하며 또한 무엇보다 건네줌을 위한 역행적 놀이로서 분절되어야 한다.(107, 75)

2.6 나지막한 울림과 존재의 떠남

2.6.1 공작과 존재의 떠남

(e2.6.1.1) 존재는 자신을 드러내는 동시에 자신을 은폐한다. 존재는 균열이다. 존재의 진리가 자신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한, 존재의 드러난 측면은 존재의 진리가 아니다. 즉 존재는 비성(非性)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다면 인간만이 오직 유일하게 존재를 이해하고 있는 한, 인간의 사명은 존재의 은폐와 왜곡을 꿰뚫고 나아가 존재의 진리를 사유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존재의 진리를 사유하기는커녕, 그때마다의 존재의 역사적 운명에 따라 사유한다. 오늘날의 인간은 오늘날의 존재의 역사적 운명인 몰아세움(Gestell) 안에서 몰아세움에 따라 사유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가 구체화된 모습이 공작이다. 공작은 오늘날 인간이 존재자를 대하는 근본적 태도이다. 공작은 이 낱말 자체가 암시하듯, 인간

이 존재자를 그것의 고유한 지평 안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존재자를 인위적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존재자로부터 존재는 떠나고 만다. 존재의 떠남은 존재의 비성으로부터 발원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의 떠남은 존재의 비성을 꿰뚫고 존재의 진리를 사유하기는커녕 존재의 역사적 운명에 매몰된 채 존재자를 인위적으로 공작함으로 인해 비롯된 존재의 비본질로부터 발원한다. 단, 우리가 주의할 점은 여기에서 언급된 존재의 비본질이란 존재의 진리가 아직 현성하지 않은 채 은폐되어 있다는 의미에서의 비본질이 아니라 존재의 진리가 인간의 인위적 공작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의미에서의 비본질이다.

(q.2.6.1.2) 존재의 떠남은 어떻게 경험되어야 하는가? 존재의 떠남이란 무엇인가? 존재의 떠남 자체는 공작에 입각한 존재의 비본질로부터 발원하였다. 존재의 비본질은 어디로부터 발원하는가? 그것은 가령 존재의 비성(非性)으로부터 발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107, 75)

(q.2.6.1.3) 무엇이 무엇을 떠나 버렸는가? 존재자에게 또한 단지 존재자에게만 귀속하는 존재가 존재자로부터 떠나 버렸다. 존재자는, 마치 존재가 현성하지 않는 양, 그렇게 나타난다. 즉 존재자는 대상 및 눈앞에-있는 것으로서 나타난다. 존재자는 동일한 무결단성과 임의성 안에서 무차별적인 것인 동시에 추근덕거리는 것이다. // 존재의 떠남은 근본적으로는 존재의 현성의-부패(Ver-wesung)이다. 본질은 방해 받으며 그리고는 단지 그렇게 해서 표-상활동의 올바름으로서의 진리에 이르고 만다. 존재자는 현전자로 남아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현전하면서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제약하는 자, 즉 무-제약자, 즉 절-대자 등이 본래적으로 존재한다. // 그러나 이러한 떠남은 어떤 역사의 어떤 사건인가? 존재의 역사가 있는가? 존재의 역사는 비록 은닉되어 있을지언정 참으로 드물게 또한 참으로 가까스로 빛에 이르지 않는가? // 존재의 떠남은 존재자에게서, 그것도 전체 안에서의 존재자에게서, 또한 이와 아울러 바로 인간이라는 저 존재자에게서, 다시 말하자면 존재자의 한 복판에 서 있으면서 이때 존재자의 존재를 망각하는 바로 저 존재자에게서 발생한다.

(115-116, 80-81)

2.6.2 체험과 공작

(e2.6.2.1) 인간이 존재자를 인위적 욕구에 맞게 공작한 결과 존재자는 인간 앞에 지속적으로 현전하게 된다. 즉 존재자는 인간의 삶(Leben)의 영역 안으로 편입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작은 체험(Erlebnis)으로 확장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흔히 탈마법화라고 명명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대 자연과학의 본질이 존재자를 부품으로 탈은폐하도록 인간을 부추기는 존재의 역사적 운명임을 망각한 소치이다. 인간이 존재자를 그것의 고유한 의미 안에서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공작을 통해 존재자를 부품으로만 왜곡하여 드러내는 한, 우리가 말하는 탈마법화는 오히려 근원적 의미에서 보자면 마법화가 된다. 공작, 체험, 마법화는 동 근원적이다.

(q.2.6.2.2) 공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작과 지속적 현전성, 포이에시스-테크네. 공작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가? 체험(Erlebnis)으로. 그것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피조물 - 현대적 자연과 역사 - 기술) 존재자의 탈마법화를 통해, 그런데 이 탈마법화는 탈마법화 자체를 통해 실현된 마법화에게 권력을 양도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탈마법화이다. 탈마법화와 체험.(107, 75)

2.6.3 존재의 떠남과 존재 망각

(e2.6.3.1) 인간이 인간인 소이는 존재와의 관련 속에 있다. 존재는 자신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자신을 감추는 가운데 끊임없이 인간에게 다가온다. 존재의 역사적 운명에 매몰된 인간이 존재자를 자신의 인위적 욕구에 따라 공작함으로써 존재가 존재자를 떠난 상황 속에서도 존재의 진리는 인간을 향해 자신을 나지막하게 울리고 있다. 그러나 인간이 존재를 망각한 이상, 존재의 떠남은 궁극적으로 고착화된다.

(q.2.6.3.2) 나지막한 울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 존재의 떠남 속에서의 존재의 현성의 나지막한 울림. [...] 존재망각 안에서 존재의 떠남은 궁극적으로 고착화됨.(107, 75)

2.6.4 존재의 떠남과 스스로 빠져 나가는 은폐로서의 존재

2.6.4.1 스스로 빠져 나가는 은폐로서의 존재

(e2.6.4.1.1) 존재가 존재자를 떠나 버렸다고 해서 존재가 어떤 의지 작용에 의해 사라진다는 것은 아니다. 존재가 존재자처럼 어떤 형태를 가진 구체적 실체가 아닌 이상, 존재가 어떤 의지 작용에 의해 사라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만 ‘존재가 존재자를 떠나 버렸다’는 사태가 의미하는 바는, ‘존재자가 존재자로서 드러나는 고유한 의미로서의 존재는 자신을 밝히는 동시에 은폐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인간에게 다가오고 있건만 인간은 존재의 은폐된 진리를 망각한 채 존재자를 인위적으로 공작하여 탈은폐하므로 존재의 진리는 존재자의 개방 가능성 안에서 스스로를 은폐하고 만다’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의 떠남이라는 사태에서 보자면, 존재는 ‘스스로 빠져 나가는 은폐’로서 규정된다.

(q2.6.4.1.2) 그렇다면 다음의 사실이 밝혀진다. 즉 존재가 존재자를 떠난다는 것은 존재가 존재자의 개방가능성 안에서 스스로를 은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존재 자체는 ‘이렇게 스스로 빠져나가는 은폐’로서 규정된다.(111, 78)

2.6.4.2 형이상학의 역사 속에서의 존재

(e2.6.4.2.1) 존재가 존재자의 개방 가능성 안에서 스스로를 은폐한 결과 존재는 가장 평범하며 가장 공허한 것으로 폄하된다. 인간이 존재자를 인위적 공작을 통해 탈은폐하는 한, 인간은 존재자가 존재자로서 드러나는 고유한 의미로서의 존재는 주목하지 않은 채, 이미 드러나 있는 존재자의 공통적 특성인 존재자성만을 주목할 뿐이며, 더욱이 존재자성마저 인간의 절대적 지적 활동에 의해 가장 익히 알려진 것이자 가장 확실한 것으로 장악된다. 그리고는 마침내 니체에 이르러서 존재자성은 현세에 있어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실현하지 못한 나약한 인간에 의해

그러진 필연적 가상으로 전락한다. 이로써 형이상학의 역사는 종말을 고하게 된다.

(q2.6.4.2.2) 존재의 이러한 은폐된 본질(존재자의 열려 있음 안에서
의 [존재의] 자기 은폐)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증명은 존재가 가장 평범하
며 가장 공허한 것으로 폄하되었다는 것 정도가 아니다. 이에 대한 증명
은 형이상학의 전(全) 역사를 통해 수행되는데, 형이상학의 역사에 있어
실로 존재자성은 절대적 지적 활동에게는 가장 익히 알려진 것이자 더욱
이 가장 확실한 것으로 되어야 하며, 마침내 니체에게 이르러서는 필연적
가상으로 되어야 한다.(112, 78)

2.6.5 존재의 떠남에 대한 존재 역사적 해석

2.6.5.1 존재의 떠남과 존재의 제1의 역사

(e2.6.5.1.1) 존재의 떠남은 현상적으로 보자면 분명히 퇴락이다. 존
재자가 자신의 고유한 의미 안에서 드러나지 못한 채, 피조물로서 혹은
공작의 대상으로서 정립되었으니 존재의 떠남을 퇴락이라 단정 짓는 것
도 당연한 듯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존재 역사적으로 교
정할 필요가 있다. 존재는 균열이다. 존재는 끊임없이 인간과 관련을 맺
고 있건만 자신의 진리를 감춘 채로 인간에게 다가온다. 따라서 존재가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낸 한 측면인 존재의 역사적 운명에 인간이 매몰된
채 빛어진 결과가 존재의 떠남이라면, 존재의 떠남은 단순히 퇴락이
아니라 존재의 제1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 즉 존재의 떠남은 존재가 자
신의 진리를 은닉한 채로 도래하기 시작한 그 제1시원 및 제1시원에서
파생되어 뒤에 남은 것이 밝아온 역사로 파악되어야 한다.

(q2.6.5.1.2) 존재의 떠남: 존재가 존재자를 떠나 존재자를 그 자신에
게 맡겨 놓은 결과 존재자는 공작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 모든 것은
단순 소박하게 퇴락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 자체의 제1의 역사이다. 즉

제1의 시원 및 그것으로부터 파생되어 그로써 필연적으로 뒤에 남은 것의 역사이다.(111, 78)

2.6.5.2 존재의 떠남과 고대 형이상학

(e2.6.5.2.1) 철학의 제1시원 이래 존재자의 근본 성격은 알레테이아로서 규정된다. 그리고 알레테이아가 소멸되면서 존재자의 존재자성은 이데아로 규정된다. 그런데 존재자의 근본성격이 알레테이아로서 규정될 때, 이미 존재는 존재자를 떠나 버렸다. 알레테이아(ἀλήθεια)의 본질은 존재의 은폐(κρυψ)이건만, 존재의 은폐를 사유하지 못하였기에 존재는 이미 존재자를 떠나 버린 것이다. 존재가 떠나 버린 상황에서 존재자의 존재자성은, 인간의 인식이 존재자를 올바르게 향하고자 할 때 아프리오리한 조건으로서 존재자에 부속된 부록에 불과하다.

(q2.6.5.2.2) 존재자가 스스로 빠져 나간 결과 알레테이아(ἀλήθεια)가 존재자의 근본성격이 되고 이로써 이데아(ιδέα)라는 존재자성의 규정을 준비하는 동안, 존재는 이미 존재자를 떠나 버린다. 이제 존재자는 존재자성을 단지 하나의 부록으로서만 간주되게끔 하는데, 이러한 부록은 존재자 그 자체를 올바르게 향한다는 그 지반에서는 물론 프로테론(πρότερον)과 아프리오리(a priori)가 되어야 한다.(111-112, 78)

2.6.5.3 존재의 떠남과 기독교

(e2.6.5.3.1) 기독교는 존재자를 창조주의 피조물로서 설명한다. 창조주가 가장 확실한 존재자라면, 존재자는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된다. 창조주는 모든 존재자의 원인이며 모든 존재자는 창조주의 결과가 된다. 이로써 존재자의 고유한 의미는 상실된다. 존재자가 인과 관계의 지배를 받는 가장 통상적이며 가장 익숙한 것으로 설명된 결과, 존재자가 비로소 존재자로서 드러나는 고유한 의미로서의 존재는 >한층 더< 통상적이며 가장 익숙한 것으로 전락한다. 더욱이 존재는 가장 비통상적인 것이기에, 존재는 완전히 존재자로부터 빠져 나가 존재자를 떠나버리고

만다. 이처럼 기독교에서 존재의 떠남은 발생한다. 더욱이 존재자를 기독교적 신의 피조물로 확신하는 중세적 분위기 안에서 존재의 떠남은 가장 결정적으로 은닉되므로, 존재의 떠남은 가장 강력하게 전개된다.

(q2.6.5.3.2) 존재의 떠남은 그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은닉되어 있는 경우 가장 강력하다. 그러한 일은, 존재자가 ‘가장 통상적인 것이자 가장 익숙한 것’이 되어 버렸거나 혹은 그렇게 되어야만 했던 경우에 일어난다. 그러한 일은 우선은 기독교와 그것의 교의학 안에서 일어났다. 이에 따르면, 모든 존재자는 그것의 근원에서 보자면 피조물로서 설명되며 또한 창조주는 가장 확실한 존재자인 반면 [이외의] 모든 존재자는 이 [창조주라고 하는] ‘가장 존재하는’(seiendst) 원인의 결과가 된다. 인-과-관계는 가장 평범한 것이며, 가장 조잡한 것이며, 가장 친근한 것인데, 모든 인간적 차원의 계산 및 존재자로의 방향 상실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즉 어떤 것을 평범하며 익숙한 것의 명확성 안으로 밀어 넣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도움을 빌리고 있다. 존재자가 가장 익숙한 것이 되어 버리고 마는 이러한 경우, 필연적으로 존재는 한층 더 통상적이며 가장 통상적인 것이 되고 만다. // 그런데 진실로 존재는 가장 비통상적인 것이므로, 여기에서 존재는 존재자로부터 완전히 빠져 나가 존재자를 떠나버렸다.(110, 77)

2.6.5.4. 존재의 떠남과 근대

(e2.6.5.4.1) 근대의 특징은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졌던 존재자가 이제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되었다는 점이다. 근대에 이르러 인간의 사유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근거지어지지 않는 최고의 존재자로서 존재자의 존재자성을 규정한다. 존재자의 존재자성은 사유의 논리적 형식에 의해 규정된다. 중세에 존재자가 피조물로서 드러났다면, 근대에 이르러서 존재자는 사유에 의해 인위적으로 공작된 대상으로 정립된다. 따라서 근대에서도 존재자로서의 존재자는 인간을 빠져 나가며, 하물며 존재자가 존재자로서 드러나는 고유한 의미로서의 존재 역시 인간을 떠나간다. 즉 존재는 존재자를 떠나 버린다. 존재의 진리를 길어내는 창조가 가능하려면, 모든 존재자가 존재 및 존재의 진리 안에서 비로소 근원

적으로 발원하여 인간을 놀랍게 해야 할 터인데, 존재가 떠나 버린 지금 이러한 창조는 요원한 실정이다.

(q2.6.5.4.2) 존재자로부터의 존재의 떠남: 존재는 존재자로부터 물러났고 존재자는 우선은 (즉 기독교적으로는) 단지 다른 존재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되고 말았다. 모든 존재자의 원인인 최고 존재자가 존재의 본질을 인수하였다. [그러나] 이제 존재자가 단지 그것의 대상성 안에서만 받아들여지고 지배받는 한에서, 예전에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졌던 존재자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되었다. 존재자의 존재자성은 논리적 형식으로, 즉 그 자체로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근거지어지지 않는 사유에 의해 사유될 수 있는 것으로 탈색된다. // 인간은 ‘대상적이며 공작된 것’을 통해 완전히 눈이 멀어 버리는데, 이 결과 존재자는 이미 인간을 빠져 나간다. 하물며 존재 및 존재의 진리가 이미 인간을 빠져 나갔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창조가 그것의 위대한 동인(動因), 즉 [존재의 진리를] 길어내기 위한 위대한 동인을 얻기 위해서는, 존재 및 존재의 진리 안에서 모든 존재자가 비로소 근원적으로 새롭게 발원하여 우리를 놀랍게 해야 한다. (111, 77-78)

2.6.6 존재의 떠남과 곤경

2.6.6.1 곤경에 대한 통상적 이해

(e2.6.6.1.1) 통상적으로 우리는 곤경을 행복의 결핍 정도로 생각한다. 이에 반면 곤경이 없다는 것, 즉 무곤경성은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곤경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유용하며 즐길 만한 것’이다. ‘유용하며 즐길 만한 것’이 끊임없이 공급될 경우에만 행복은 유지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곤경이 된다.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의 행복은 우리에게 아무런 장래도 약속하지 못한다. 이러한 행복은 바로 눈앞에 있는 유용하며 즐길 만한 것만을 추구하니깐.

(q2.6.6.1.2) 곤경이란 낱말을 사용할 때면, 왜 사람들은 즉각 결핍과

악, 즉 다시 말해 우리가 분명히 싫어하는 그런 것 따위를 생각하는가? 그 까닭은 사람들은 ‘무곤경성’(곤경이 없음, Notlosigkeit)을 좋은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인데, 우리는 행복과 행운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어디서든 정당하게 그렇게 평가한다. 행복과 행운은 ‘유용하며 즐길만한 것’이 끊임없이 공급될 때에만, 즉 진보를 통해 그 양이 계속 불어나는 그런 이미 눈앞에 있는 것에 의해서만 유지된다. 그러나 진보는 아무런 장래성도 없다. 왜냐하면 진보는 단지 이제까지의 것만을 그것의 고유한 가도(街道) 위에서 더 촉진하기 때문이다.(112-113, 79)

2.6.6.2 곤경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

(e2.6.6.2.1) 존재의 떠남은 존재 망각을 통해 고착화된다. 존재 망각이야말로 인간이 처한 곤경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곤경을 곤경으로서 각성하지 못한 채 마치 우리가 아무런 곤경에도 처해 있지 않은 듯 살아간다. 따라서 무곤경성이야말로 우리가 처한 최고의 곤경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존재가 새로이 도래하며, 또한 다른 한편으로 우리 중 누군가가 존재의 도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한, 우리 중 누군가는 자신이 이제까지 곤경에 처해 있음을 비로소 자각한다. 이러한 자각이 우리에게 우리가 도달해야 할 장래를 비로소 열어 준다.

(q2.6.6.2.2)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귀속해 있고 또한 비록 은폐된 채 로긴 하나 거기에도 우리가 다가서도록 강요받고 있는 ‘그런 것’이 문제된다면, 그렇다면 곤경은 어떤 상황인가? [우리를] 곤경으로 몰아넣는 것, 즉 우리에게 의해 포착되지 않으나 자기의 동일성이 보존되는 것, 그런 것은 본질적으로 모든 진보를 능가하는데, 그 까닭은 그런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장래적인 것이며 또한 그 결과 그런 것은 여하튼 선악의 구별로부터 떨어져 나와 모든 계산에서 빠져 나가기 때문이다. // 이렇게 곤경으로 몰아넣음이 우리에게 (누구일까?) 다시 한 번 닥쳐 올 수 있는가? 곤경으로 몰아넣음은 인간의 완전한 변화를 의도해야 하지 않는가? 곤경으로 몰아넣음이 우리를 최고조로 의아스럽게 하는 그런 것이 갖는 불가피성보다 덜 한 것이 되어도 좋은가?(113, 79)

2.6.7 공작과 체험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

2.6.7.1 공작

2.6.7.1.1 공작에 대한 통상적 이해

(e2.6.7.1.1.1) 통상적으로 우리는 공작(Machenschaft)이란 낱말을 악한 인간이 저지르는 음모 따위를 가리키는 낱말로 이해한다. 즉 통상적으로 공작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자를 왜곡하는 인간의 태도를 의미한다.

(q2.6.7.1.1.2) 통상적 의미에서 보자면 공작이란 낱말은 악한 종류의 인간의 행동 및 그러한 행동을 꾀하는 음모를 가리키는 낱말이다.

2.6.7.1.2 공작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

2.6.7.1.2.1 존재 현성의 방식으로서의 공작

(e2.6.7.1.2.1.1) 공작(Machenschaft)이란 낱말은 존재자에 대한 인간의 특정한 태도인 제작(machen)을 즉각 지시한다. 그리스인들은 제작을 포이에시스 혹은 테크네로 이해한 바 있다. 또한 ‘자신을-스스로-제작함’을 뜻하는 쾰지스도 근본적으로는 제작으로서의 테크네에 입각하여 이해된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공작을 단순히 인간의 태도로만 보아서 안 된다. 존재자를 제작한다는 것은 이미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특정한 해석을 전제한다. 존재자가 제작 가능한 것으로서 드러나는 한에서만, 우리는 존재자를 우리의 임의대로 제작한다. 따라서 공작(혹은 제작)은 단순히 인간의 태도가 아니라 존재 현성의 방식이 된다. 비록 공작을 통해서 존재자가 자신의 고유한 의미 안에서 드러나 않고 단지 제작 가능한 것으로만 드러나긴 하나, 즉 공작은 존재가 비본질적으로 현성하는 방식이긴 하나, 존재의 비본질도 본질적으로는 존재의 본질에 속하는 한, 공작은 존재가 현성하는 하나의 방식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의 현성의 방식인 공작에 입각해서만 인간의 하나의 태도인 제작은 가능하게 된다.

(q2.6.7.1.2.1.2) 존재물음과의 연관에서 이 낱말과 함께 거론되어야 할 것은 인간의 태도가 아니라 존재의 현성의 방식이다. 비록 공작이 존재의 비본질을 두둔한다 할지라도, 공작을 경멸하는 따위의 여타의 율령조차 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본질조차, 그것 역시 본질적으로는 본질에 속하므로, 평가 절하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공작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가 인간의 태도라고 당연히 인지하고 있는 제작(ποιήσεις, τέχνη)이란 것을 즉각 지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태도 그 자체도 존재자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근거로 해서만 가능한데, 이러한 해석이란, 그 안에서 존재자의 제작가능성이 출현하며 그로써 존재자성이 실로 지속성과 현전성으로 규정되는 해석을 말한다. 어떤 것이 자신을 스스로 제작하며 그 결과 그에 상응하는 진행 절차에 있어서도 제작 가능하다는 것, 즉 자신을-스스로-제작함이란 것은, 테크네와 그것의 시계(視界)에 입각해 실현된 필지스(φύσις)에 대한 해석인데, 이 결과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이미 ‘제작 가능한 것’과 그것을 ‘스스로 제작하는 자’, 즉 간략히 말하자면 공작이라고 거명되는 것이다.(126, 88)

(q2.6.7.1.2.1.3) 공작은 제작과 제작된 것의 지배이다. 그러나 여기에 서 인간의 행동과 추진력 및 그것의 경영 따위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것은, 그것이 갖는 무제약성과 배타성에 비추어 볼 때 공작을 근거로 해서만 가능하다. 공작은 존재자(혹은 존재자의 존재자성)의 특정한 진리를 거명하는 것이다.(131-132, 92)

2.6.7.1.2.2 공작의 법칙

2.6.7.1.2.2.1 공작의 제1법칙

(e2.6.7.1.2.2.1.1) 제1시원의 시대 이래 인간은 공작의 관점에서 존재자를 탈은폐한다. 존재자는 그것의 고유한 의미 안에서 드러나지 못한 채 존재의 비본질적인 현성 방식에 따라 드러난다. 그러나 공작이 더 강력하게 전개될수록 공작은 더 집요하게 또한 더 공작적으로 자신을 그 자체로서 은폐한다. 이 점이 공작의 제1법칙이다. 하지만 아직껏 이러한 법칙의 근거가 캐어물어져 근거지어진 적은 없다.

(e2.6.7.1.2.2.1.2) 제1시원 이래 형이상학의 역사에서 공작은 은폐되어 있다. 고대 그리스의 형이상학에서 존재자는 그것의 형상을 실현한 엔텔레케이아로서 간주되었고 중세 형이상학에서는 신의 피조물로서 파악되었고, 또한 근대 형이상학에서 존재자의 존재는 대상성 혹은 객관성으로서 규정되었다. 즉 신의 피조물이라는 존재자의 규정 속에는 존재자가 어떤 원인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라는 점이 들어 있고, 대상성 혹은 객관성이라는 존재자성 속에는 존재자의 존재가 인간 주체에 의해 규정된 것이라는 점이 들어 있듯, 중세 형이상학에서 논의되는 존재의 질서 및 존재의 유비 배후에는, 또한 근대 형이상학에서 논의되는 대상성과 객관성의 배후에는 공작이 그 자체로서 은폐되어 있다. 이처럼 존재자의 공작적 본질의 출현을 역사적으로 파악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형이상학을 극복하려는 궤도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형이상학의 역사 속에 그때마다 등장하는 존재자의 존재(즉 존재자성)의 규정 배후에 숨어 있는 공작의 본질을 밝혀내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존재론의 역사에 대한 존재론적 해체이다.

(q2.6.7.1.2.2.1.3) 그러나 제1시원의 시대에 쾰지스가 힘을 잃게 된 이래에도, 아직 공작은 그것의 완전한 본질 안에서 백일하에 드러난 바 없다. 공작은, 시원적인 그리스적 사유 내부에서 보자면 엔텔레케이아(ἐντελέχεια)에서 최고의 정점에 이른 바 있는 지속적 현전성 안에 은닉된 채로 있다. 중세의 악투스(actus) 개념은 존재자성에 대한 시원적으로 그리스적인 해석의 본질을 이미 은폐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작적 성격이 더 명확하게 등장하며 또한 유대교적-기독교적 창조 사상 및 이에 상응하는 신의 표상이 내부적으로 작용함을 통해 존재자는 피조물이 된다. 비록 사람들이 창조의 이념에 대한 조잡한 해석을 단념한다 할지라도, 존재자가 어떤 원인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는 점만은 본질적으로 남아 있다. 원인-결과-연관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연관으로 된다(자기 원인으로서의 신). 이것은 쾰지스로부터 본질적으로 거리가 있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근대적 사유에서 존재자성의 본질로 간주되는 공작의 출현을 향한 이행(移行)이기도 하다. 기계론적 사유 방식 및 생물학적 사유 방식은 항상 단지 존재자에 대한 은폐된 공작적 해석의 결과일 뿐이다.(126-127, 88)

(q2.6.7.1.2.2.1.4) 공작이 — 중세와 근대에서 그러한 것처럼 — 더 강력하게 전개될수록 공작은 더 집요하게 또한 더 공작적으로 자신을 그 자체로서 은폐한다. 즉 중세에는 존재의 질서 및 존재의 유비 배후에서, 그리고 근대에는 현실성 및 존재자성의 근본형식인 대상성과 객관성의 배후에서 공작은 자신을 그 자체로서 은폐하는데, 이러한 점이 공작의 법칙인 듯 보이나, 아직 이러한 법칙의 근거가 캐어물어져 근거 지어진 적은 없다.(127, 89)

(q2.6.7.1.2.2.1.5) 공작은 존재자(혹은 존재자의 존재자성)의 특정한 진리를 거명하는 것이다. 우선 대개 이러한 존재자성은 우리에게 대상성(표상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존재자)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공작은 이러한 존재자성을 더 심오하게 더 시원적으로 파악하는데 그 까닭은 공작이 테크네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공작 안에는 존재자를 — 신앙적으로든 혹은 세속적으로든 여하튼 — 피조물로서 받아들이는 기독교적-성서적 해석도 들어 있다. // 존재자의 공작적 본질의 출현을 역사적으로 파악하기란 상당히 어려운데, 그 까닭은 그러한 본질은 근본적으로는 이미 서구 사유의 제1시원 이래 (더 정확히는 알레테이아의 붕괴 이래)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 데카르트의 발걸음은 이미 공작의 제1의 결과이자 결정적인 결과이다. 즉 그것은 공작에 대한 복종인데, 이로 인해 공작은 변화된 진리(올바름)로서, 즉 확실성으로서, 지배력을 확보한다. // 존재자를 ‘확실한 것’으로서 파악하는 형태 안에 있는 공작의 본질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 형이상학을 극복하는 궤도에서 ‘확실한 것’은 공작적인 것에 입각해 해석되어야 하며 이로써 공작적인 것은 결정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이에 따른 결론: 수학적인 것과 체계 그리고 이와 함께 기술.(132, 92)

2.6.7.1.2.2.2 공작의 제2법칙

(e2.6.7.1.2.2.2.1) 공작은 자신을 은폐한다. 그러나 공작이 자신을 더 집요하게 은폐할수록 존재자는 자신의 고유한 의미를 상실한 채 더욱 더 인간의 삶(Leben)의 영역 안으로 편입된다. 즉 근대 형이상학에서 존재자의 존재는 객관성(혹은 대상성)으로 규정되나, 이때의 객관성이란

인간 주관에 의해 규정된 객관성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작이 더 결정적으로 자신을 은폐할수록, 공작은 체험(Erleben)을 향해 더욱 더 압박해 온다. 언뜻 보기에는 공작과 체험이 서로 상반된 듯하나, 오히려 공작의 본질은 체험이 된다. 그러니까 “공작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더 결정적으로 자신을 은폐할수록, 공작은 자신의 본질과 전혀 상반된 듯 보이나 하지만 자신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그것의 우월함을 향해, 즉 체험을 향해 더욱 더 압박해 온다.”

(q2.6.7.1.2.2.2.2) 그리고 공작의 이러한 제1법칙에는 다음과 같은 제2법칙이 결합되어 있다. 즉, 공작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더 결정적으로 자신을 은폐할수록, 공작은 자신의 본질과 전혀 상반된 듯 보이나 하지만 자신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그것의 우월함을 향해, 즉 체험을 향해 더욱 더 압박해 온다.(127, 89)

2.6.7.1.2.2.3 공작의 제3법칙

(e2.6.7.1.2.2.3.1) 공작에 의해 존재자는 인간의 삶의 영역 안에 편입된다. 존재자는 존재의 비본질적 현성의 방식에 따라 인간의 조작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따라서 체험이 올바름과 진리의 척도로서 등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체험이 더욱 더 무제약적이게 될 수록, 공작을 존재의 비본질적 현성으로서 인식할 가능성은 더욱더 사그라진다. 인간은 마치 자신이 주체로서 존재자를 탈은폐하여 자신의 삶 속에 편입한 것인 양 거들먹댄다. 인간이 존재자를 자신의 의지대로 탈은폐한다고 생각하는 한, 존재에 대한 사유는 더욱더 인간으로부터 멀어진다. 이것이 공작의 제3법칙이다.

(q2.6.7.1.2.2.3.2) 그러므로 제3법칙이 이어진다. 즉 올바름과 진리 (그리고 현실성과 지속성)의 척도로서의 체험이 더욱더 무제약적이게 될 수록, 이로부터 공작 그 자체의 인식이 실현될 가망성은 더욱더 사그라진다. (127, 89)

2.6.7.1.2.3 공작과 존재

(e2.6.7.1.2.3.1) 공작은 존재의 현성이다. 정확히 말해 공작은 존재의 비본질적 현성이다. 그런데 공작에 구속된 인간이 존재자를 탈은폐하여 자신의 삶의 영역 안으로 편입할수록 공작의 베일을 벗겨낼 가망성은 더욱더 사그라진다. 공작 자체가 스스로를 은폐하므로 존재 자체가 스스로 빠져 나갈 뿐더러, 존재와의 관련을 망각한 인간은 자신의 행동과 사유가 자신의 주체적 역량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작이 은폐될수록 존재자의 고유한 의미는 더욱 더 묻어지지 않게 되며 또한 존재가 갖는 물음의 가치성은 더욱 더 망각된다. 그러나 존재의 비본질적 현성으로서의 공작이 오히려 존재의 진리를 향한 첫 눈짓을 우리에게 건네 줄 가능성은 없는가? 비록 존재는 완강히 자신을 거부하고 있건만, 존재의 나지막한 울림은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는가?

(q2.6.7.1.2.3.2) 이렇게 공작의 베일을 벗겨내는 일의 가망성이 더욱더 사그라질수록, 존재자는 더욱 더 묻어지지 않게 되며, 존재가 갖는 물음의 가치성에 대한 반감은 더욱 더 결정적이게 된다. // 공작 자체는 스스로 빠져나간다. 또한 공작은 존재의 현성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도 스스로 빠져나간다. // 그러나 만약 길으로는 단지 유해하며 거절하는 듯 보이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존재의 본질에 대한 전혀 다른 통찰이 발원한다면, 또한 존재 자체가 자신을 완강한 거부로서 탈은폐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지막한 울림에 이른다면, 상황은 어떠한 것인가?(127-128, 89) // 존재자성의 현성으로서의 공작은 존재 자체의 진리를 향한 첫 눈짓을 준다. 존재의 진리가 플라톤으로부터 니체에 이르기까지 종래의 서구 철학을 철저히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재의 진리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127, 88-89)

2.6.7.2 체험

(e2.6.7.2.1) 근대 형이상학에서 인간이 존재자를 지배하는 방식은 존재자를 자기 앞에 세우는 활동(das Vorstellen: 표상 활동)이다. 존

재자는 인간의 욕구에 맞게 인간 앞에 세워져 인간의 삶(生) 안으로 편입된다. 표상된 것으로서의 모든 존재자의 존재는 ‘나’의 ‘확실성’에 맞게 규정된다. 이러한 사건을 우리는 체험이라고 명명한다. 체험의 영역에서는 ‘체험된 것’ 혹은 ‘체험될 수 있는 것’, 즉 ‘인간이 자기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의 체험의 등장은 인간 중심적 사유 방식을 촉진하며 고착화한다.

(q2.6.7.2.2) 표-상된 것으로서의 존재자를 관련의 중앙인 자기 쪽으로 연관시켜 그로써 삶(生) 안으로 편입한다. // 왜 인간은 삶(이성적 생명체)(라치오 - 표-상활동!)으로서 파악되는가? // 단지, 체-험된 것 그리고 체-험될 수 있는 것, 체-험의 권역 안에서 앞으로-밀고 나오는 것, 인간이 자기 쪽으로 가져올 능력이 있고 또한 자기 앞으로 가져올 능력이 있는 것, 그런 것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129, 90) 체험이란 무엇인가? // 체험은 ‘나’의 확실성 안에 어느 만큼이나 놓여 있는가? (이 점은 존재자성과 진리에 대한 특정한 해석 안에 소모되어 있다.) // 체험의 등장은 인간 중심적 사유 방식을 어떻게 촉진하며 고착화하는가? // 체험은 어느 만큼이나 종말인가? (왜냐하면 체험은 공작을 무조건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이다.)(131, 92)

2.6.7.3 공작과 체험

2.6.7.3.1 공작과 체험의 상호 공속성 및 시간적 비-동시성

(e2.6.7.3.1.1) 공작과 체험은 겉으로는 극단적으로 상반된 듯 보인다. 공작이 존재의 현성이라면, 체험은 인간 주체에 의해 존재자가 인간의 삶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사건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 주체의 사유와 행동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존재에 의해 구속되어 있는 한, 공작과 체험은 본질적으로 공속한다. 공작이 존재의 현성으로 되 존재의 비본질적 현성이라면, 체험은 존재의 비본질적 현성에 따라 인간이 존재자를 왜곡적으로 탈은폐하여 자신의 삶 속으로 편입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다만 존재의 비본질적 현성으로서의 공작이 자신을 은폐하므로 우리에게는 공작과 체험이 극단적으로 상반된 듯 보일 뿐이다. 더욱이 공작

이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체험의 배후로 물러나 버릴 때, 공작의 비본질은 확산되고 고착화된다. 그러나 공작과 체험 사이에는 상호 공속성이 성립할뿐더러, 존재의 역사의 시간 내부에서 보자면, 본질적인 비-동시성이 성립한다. 또한 공작과 체험은 서구 사유의 주도적 물음을 위한 정식인 ‘존재자성(존재)과 사유’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버전(版)이 된다. 서구의 형이상학에서는 인간의 사유가 존재자의 존재자성을 규정한다고 하나, 인간의 사유가 존재의 현성인 공작에 의해 구속되어 있는 한, 엄밀히 말하자면, 공작에 의해 규정된 인간의 사유가 존재자의 존재자성을 규정하는 것이다.

(q2.6.7.3.1.2) 만약 공작과 체험이 함께 거명된다면, 이는 양자 서로간의 본질적 귀속성을 지시하나 그러나 동시에 존재의 역사의 시간 내부에서 [이 양자가 맺는 서로간의] 동일하게 본질적인 비-동시성은 은닉한다. 공작은 이른 시기의 그러나 아직은 오랫동안 은폐되어 있는 ‘존재자의 존재자성의 비본질’이다. 그러나 공작이 근대에서 그런 것처럼 특정한 형태를 갖춘 채 존재자의 해석의 공공성 안으로 출현한다 할지라도, 공작은 그 자체로서 인식되지 않으며 하물며 전혀 개념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도리어 공작은 그것의 극단적 반대인 듯 보이나 [실상은] 그야말로 단지 그것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그런 것의 배후로 그 자신 분명하게 물러나 버리는데, 이런 가운데 공작의 비본질은 확산되고 고착화된다. [앞서 언급된] 그런 것이란 바로 체험이다. // 이 양자의 상호귀속성은 이 양자의 가장 폭 넓은 비동시성으로의 회귀에 입각해서만 또한 이 양자의 가장 극단적인 모순성이라는 가상에 대한 해체에 입각해서만 개념적으로 파악된다. (존재의 진리에 관한 물음으로서의 또한 단지 이러한 물음으로서의) 사유적 숙고가 이 양자의 상호귀속성에 관한 앞에 이를 때, 제1시원의 역사(서구 형이상학의 역사)의 근본 특징도 다른 시원에 대한 앞에 입각해 이미 동시에 개념적으로 파악된다. 공작과 체험은 형식적으로 보자면, 서구 사유의 주도적 물음을 위한 정식인 ‘존재자성(존재)과 (표-상적 개념-파악으로서의) 사유’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버전(版)이다.(128, 89-90)

2.6.7.3.2 공작과 체험이 갖는 망상

(e2.6.7.3.2.1) 공작과 체험은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지 못할뿐더러 무엇보다도 존재의 진리 앞에서의 당혹감 및 경외감을 인지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 양자는 존재자를 왜곡하여 탈은폐하면서도 자신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망상에 젖어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도리어 이 양자는 이제 그 본질이 비어버린 존재자에 의해 스스로 기만당한다. 존재가 자신의 진리를 은폐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를 사유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존재에게만 구속될 때, 즉 인간이 존재의 비본질적 현성에게만 구속될 때, 존재는 존재자를 떠나버리는데, 이러한 곤경을 곤경으로 각성하지 못하는 인간은 공작과 체험에 안주하는 가운데 존재의 진리로 부터 멀어져만 간다.(131, 91)

(q2.6.7.3.2.2) 이 양자의 본질 안에서 우리가 주목할 바는, 이 양자는 아무런 한계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무엇보다 아무런 당혹감 및 그리고 더욱이 아무런 경외감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존재의 진리를] 보존하는 힘이 이들에게는 가장 멀리 있다. 그러한 힘 대신에 그 자리에 등장하는 것이 혹사, 부르짖음, 그리고 맹목적이며 단순한 소리쳐 부름인데, 그러한 소리쳐 부름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불러내며 [그 본질이] 비어버린 존재자에 의해 스스로 기만당한다. 자신들의 한계와 당혹감이 소멸된 것에 걸맞게, 공작과 체험에게는 모든 것이 열려 있고 아무런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자신을 영속적인 것으로 간주할 정도로 망상에 젖어 있어야 하는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영속적인 것만큼 익숙한 것도 없다. 모든 것은 영원 하다. 그리고 영원한 것 - 이 영원한 것 - 그런 것이 어떻게 또한 본질적인 것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영원한 것이 본질적인 것이라면, 그것과 대비해서 무엇이 거명될 수 있을 것인가? 존재자의 비성(非性)과 존재의 떠남은 공작과 체험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참된 현실성의 가면 속에서 더 잘 또한 더 위대하게 보존될 수 있을까?

3. 건네줌

3.1 건네줌에 관한 논의의 전체적 윤곽

(e3.1.1) 존재는 자신의 진리를 완강히 거부하면서도 자신의 진리를 우리에게 나지막하게 울리고 있다. 존재의 진리의 나지막한 울림을 우리가 알아들을 때 철학의 제1시원은 자신을 우리에게 건네준다. 즉 이제까지의 철학을 주도했던 “존재자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 우리에게 자신을 건네준다. 이처럼 건네줌은 처음에는 제1시원을 건네줌이다. 그런데 우리가 제1시원에 입각해 종래의 존재의 역사를 존재의 진리가 부재하는 역사로서 경험할 때 철학의 제1시원은 우리에게 다른 시원의 존재의 역사의 가능성을 건네준다. 즉 건네줌은 ‘서로-건네줌’이다. 건네줌 안에서는 다른 시원으로의 도약을 향한 준비가 이루어진다. “존재자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의 주도적 물음으로부터 “존재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의 근본물음을 향한 도약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생기-사유의 둘째 짜임 구조인 건네줌이다. 따라서 건네줌의 주도적 기분은 시원들(즉 제1시원 및 다른 시원)에 관해 물으면서 시원들 상호간을 넘나드는 즐거움이다. 물론 이러한 즐거움은 이제까지의 모든 존재론을 숙고하는 가운데 다른 시원을 향한 결단을 요구하는 즐거움이다.

(q3.1.2) 제1시원의 근원적 정립에 입각하여 다른 시원의 필연성과 대결함. // 주도적 기분: 시원들에 관해 물으면서 시원들 상호간을 넘나드는 즐거움. // 여기에는 주도적 물음과 근본물음의 구별에 관한 모든 것, 주도적 물음에 대한 답변과 주도적 물음의 본래적 전개 그리고 근본물음으로의 이행(『존재와 시간』) 따위가 속한다. // 철학의 역사에 대한 모든 강의들도 여기에 속한다. 모든 존재론에 대한 결단.(169, 119)

3.2 건네줌의 역사적 본질

3.2.1 건네줌의 역사적 본질에 대한 해명

(e3.2.1.1) 건네줌은 철학의 제1시원으로부터 다른 시원으로의 이행을 위한 가교를 처음 놓는 존재론적 사건이다. 그런데 철학의 다른 시원이라 하여 우리가 임의로 꾸며 낸 새로운 시원은 아니다. 오히려 철학의 다른 시원은 철학의 제1시원을 가능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묻어지지 않은 채로 제1시원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본질적 가능성으로서의 시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 제1시원의 사유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숙고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말없이 울려나는 다른 시원을 알아들을 때, 제1시원과 다른 시원의 서로-건네줌은 성립한다. 이것이 바로 건네줌의 역사적 본질이다.

(q3.2.1.2) 건네줌은 역사적 본질을 지니고 있다. 건네줌은 이행(移行)을 위한 가교를 처음 놓는 작업인데, 이때 가교란 비로소 결정되어야 할 강가를 향해 흔들리는 가교이다. // 그러나 제1시원적 사유의 역사를 건네줌이란 새로운 체계에 대한 역사학적 부록이나 혹은 새로운 체계에 대한 전조(前兆)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는 다른 시원을 위한 본질적이며 또한 변화의 동인(動因)이 되는 준비이다.(169, 119)

3.2.2 건네줌과 철학의 근본물음

(e3.2.2.1) 제1시원의 사유의 역사를 주도하는 물음은 “존재자란 무엇인가?”이다. 그런데 존재자가 존재자로서 드러나는 고유한 의미가 존재인 한에서, 우리는, 제1시원의 사유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숙고함으로써, 그러한 주도적 물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철학의 근본물음을 부지불식간에 만나게 된다. 즉 제1시원의 사유의 역사에 대한 역사적 숙고를 통해, 우리는 “존재자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의 주도적 물음을 가능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물음 안에 아직 묻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존재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의 근본물음을 만나게 된다. 따라서 제1시원의

사유의 역사에 대한 역사적 숙고는, 근본적으로 보자면, “존재란 무엇인가?”를 묻는 철학의 다른 시원으로부터 발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적 숙고의 본질을 외면한 채 자신이 임의로 선택한 사유가의 작품에 대한 역사학적 고찰에만 매달려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철학사 강의이다. 철학사 강의는 철학의 주도적 물음 안에 은닉된 채로 전개되고 있는 존재의 역사를 읽어내지 못한 채 논리학을 통해 철학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철학의 제1시원의 역사를 역사학적으로만 고찰할 때, 존재 자체의 역사인 동시에 모든 결단들 중의 저 결단을 자신 안에 담지하고 있는 그런 역사의 눈짓은 발현하지 않는다.

(q3.2.2.2) 따라서 우리는 아마도 [지금까지 보다] 훨씬 더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또한 훨씬 더 결정적인 방식으로 단지 제1시원의 역사의 사유가들을 향해서만 우리의 역사적 숙고의 방향을 조정해야 하며, 또한 그들의 물음의 태도를 물어가며 그러한 태도와 대화함을 통해 ‘다른 시원 안에 뿌리 박은 것으로서 처음 고유하게 발견되는’ 그러한 물음을 부지불식간에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숙고는 스스로 자신을 근거 짓는 시원들, 즉 그때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심연에 귀속하는 시원들을 건네주는 것으로서, 다른 시원으로 이행하는 가운데 그 다른 시원으로부터 발원하며 또한 이 다른 시원에 대한 파악은 이미 도약을 요구하므로, 이러한 역사적 숙고는 어떤 임의적인 선호에 의해 선별된 사유가의 작품에 대해 단지 역사학적 고찰들만을 발견하는 오해에 너무도 쉽게 직면한다. 특히 이러한 역사적 숙고들의 극단적 형태(철학사 강의)는 철학의 완결된 역사에 관한 추가적인 학설 정도만을 표명하는 것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169-170, 119)

(q3.2.2.3) 역사적 숙고들은 오로지 역사학적 고찰들로서 사용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개선 가능한 고찰들 및 그리고 아마도 개선 가능한 발견들로서도 사용될 수 있는데 — 물론 이러한 사용도 유용하긴 하나 —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역사적 숙고들로부터 역사의 눈짓은 결코 발현하지 않는다. 즉 존재 자체의 역사인 동시에 모든 결단들 중의 저 결단을 자신 안에 담지하고 있는 그런 역사의 눈짓은 발현하지 않는다. // 역사적 숙고들은 그것들의 실현 가능성의 근거를 존재 역사적 사유 안에

두고 있다. 그러나 만약 사유의 본질은 우리에게서 이미 사라져버렸고 논리학이 사유를 마음대로 처리할 운명이 되어버린 반면 논리학 자체는 단지 사유의 무력함의 찌꺼기일 뿐이라면, 즉 논리학은 존재의 진리의 심연 안에서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하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물음의 찌꺼기일 뿐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만약 사유가 대상들에 관한 올바른 표상활동 안에서의 무오류적 추론들로서만 즉 저 물음 앞에서의 회피로서만 타당성을 갖는다면, 어떻게 되는가?(170, 119-120)

3.3 건네줌과 이행적(移行的) 사유

3.3.1 제1시원 이래 존재에 관한 형이상학의 견해

(e3.3.1.1) 존재는 존재자가 비로소 본연의 존재자로서 드러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존재자의 본질을 묻는 제1시원이래의 형이상학에서는 ‘사건으로서의 존재’가 망각된다. 존재에 대한 이해를 지평으로 하여 우리는 존재자를 비로소 존재자로서 이해하건만, 형이상학은 존재자에게로만 시선을 고정시킨 결과 존재를 망각할뿐더러 이미 드러나 있는 존재자의 공통적 속성이나 혹은 존재자의 생성 원인 따위를 존재로서 간주한다. 즉 형이상학은 존재자의 공통적 속성인 존재자성(Seiendheit)이나 혹은 최고의 존재자를 존재로서 간주한다. 특히 데카르트 이래의 근대 형이상학에서는 인간의 자기의식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으로서, 모든 존재자의 존재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로써 우리는 존재자를 비로소 본연의 존재자로서 존재하게 하는 존재의 진리로부터 멀어진다. 인간은 유일하게 존재를 이해하는 존재자로서 현존재이건만, 현존재로서의 인간은 존재의 진리를 근거 짓기는커녕, 존재자가 아닌 것으로서의 무(無), 그러니까 존재를 망각한 결과, 형이상학에 대한 체념을 발판으로 하여 존재의 진리에 다가서 그것을 수호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외면한다.

(q3.3.1.2) 형이상학은 존재가 존재자에게서 발견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사유는 존재자를 넘어선다. // 점점 더 배타적으로 사유가 존재자에게로만 향하고 가장 존재하는 근거를 독자적으로 탐색할수록(참고. 데카르트와 현대), 점점 더 결정적으로 철학은 존재의 진리로 부터 멀어진다. // 그러나 무(無)에게 맡겨지지 않은 채로 어떻게 존재자에 대한 형이상학적 체념, 즉 형이상학에 대한 체념이 가능한가? // 현-존재는 존재의 진리를 근거지움이다. // 인간이 [단순한 존재자의 차원에서] 존재하지 않을수록, 또한 인간은 자신을 존재자로만 여기고 있는데 인간이 그러한 존재자로서의 자기를 덜 고집할수록, 인간은 존재에게 더 가까이 다가선다. (결코 불교가 아니다! 그 반대.) (170-171, 120)

3.3.2 제1시원 이래 존재자에 관한 형이상학의 견해

(e3.3.2.1) 철학의 제1시원 당시 그리스인들은 본래 존재자를 쾰지스와 관련지어 이해하였다. 그들에게 존재자는 다른 이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피어오른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존재자를 비로소 존재자이게끔 하는 ‘피어오름’ 그 자체의 본질, 그러니까 쾰지스 그 자체의 본질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었기에, 존재자를 비로소 존재자로서 있게 하는 ‘존재로서의 쾰지스’는 형이상학적 사유에서 망각되었으며, 따라서 철학의 제1시원의 역사는 존재 망각의 역사로서 규정된다. 그리고 존재 망각의 역사 속에서 존재자는 플라톤적으로는 이데아의 그림자로서, 중세 기독교적으로는 최고의 존재자인 기독교적 신에 의해 야기된 피조물로서, 또한 근대 형이상학에서는 주체로서의 인간이 자기 눈앞에 정립한 대상으로서 규정된다. 존재 망각의 역사가 깊어질수록, 존재자를 비로소 존재자로서 있게 하는 존재의 진리는 더욱더 우리로부터 멀어진다.

(q3.3.2.2) 존재자는 자기 자신에로의 출현 속에 있다(고대 그리스). 존재자는 자기의 본질을 지닌 최고의 존재자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중세). 존재자는 대상으로서 눈앞에 있는 것이다(현대). // 존재의 진리가

점점 더 감추어질수록, 이러한 진리 그 자체가 근거 짓는 힘이 되어 여하튼 비로소 인식된다는 그런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진다.(171, 120)

3.4 제1시원의 근원적 전유

3.4.1 주도적 물음으로부터 근본물음으로의 이행

(e3.4.1.1) 제1시원의 근원적 전유(專有)는 제1시원을 가능하게 하였음에도 아직 묻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다른 시원 안에 발을 들여놓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제1시원에서의 주도적 물음인 “존재자란 무엇인가?”로부터 철학의 근본물음인 “존재(혹은 존재의 진리)란 무엇인가?”로의 이행 안에서 실현된다. 즉 존재자를 비로소 존재자로서 가능하게 하는 의미 근거가 존재인 한에서, 제1시원의 근원적 전유는 우리가 존재(혹은 존재의 진리)에 대해 물음을 던질 때 비로소 실현된다.

(q3.4.1.2) 제1시원(그리고 그것의 역사)의 근원적 전유(專有)는 다른 시원 안에 발을 들여놓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건은 주도적 물음(즉 존재자란 무엇인가?, 존재자성 혹은 존재에 관한 물음)으로부터 ‘존재의 진리란 무엇인가?’를 묻는 근본물음으로의 이행 안에서 실현된다. (여기에서 존재와 존재는 동일하면서도 그러나 상이하다.)

3.4.2 형이상학의 극복

3.4.2.1 형이상학의 극복이 갖는 이행적 성격

(e.3.4.2.1.1) 주도적 물음으로부터 근본물음으로의 이행은 형이상학의 극복이다. 더욱이 이러한 이행은 형이상학에 대한 최초이자 최초로

가능하게 된 극복이다. 그런데 형이상학의 극복이라 하여 기존의 형이상학을 단순히 내버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형이상학의 극복은 제1시원의 형이상학의 본질을 캐어몰어 그러한 본질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묻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다른 시원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형이상학의 극복은 이미 다른 시원에 입각하여 묻고 있는 것이며, 이로써 기존의 모든 형이상학은 종말에 이른다.

(q.3.4.2.1.2) 역사적으로 파악해 보자면, 이러한 이행은 모든 형이상학의 극복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형이상학의 최초이자 최초로 가능하게 된 극복이다. 형이상학은 이제 비로소 그것의 본질 안에서 인식 가능하게 되며, 또한 이행적(移行的) 사고로 인해 [마침내] 형이상학에 관한 모든 언급은 그것의 애매성을 드러낸다. 다른 시원으로 이행하는 영역 속에서 제기된 (『존재와 시간』과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의 연관 속에서의 강연 참고.)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다른 시원으로 이행하기 위한 교두보를 최초로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이미 형이상학의 본질을 캐어묻는다. 달리 말하자면, 그러한 물음은 이미 다른 시원에 입각하여 묻고 있다. 그러한 물음이 형이상학의 규정으로서 드러내 보이는 것, 그것은 이미 형이상학이 아니라(171, 120-121) 형이상학의 극복이다. 이러한 물음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형이상학에 관해 이제까지 필연적으로 착종되었던 표상들에 대한 해명과 고수가 아니라 오히려 이행을 위한 자극이며, 또한 이로써 만약 철학이 다른 시원을 획득해야 한다면 모든 종류의 형이상학은 이미 종말에 이른 것이며 또한 종말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위한 자극이다.

3.4.2.2 현-존재 그 자체에 속하는 것으로서의 형이상학

(e3.4.2.2.1) 형이상학의 극복을 통해 인간과 존재의 근원적 관련성은 회복된다. 인간은 기존의 형이상학에서 추구된 이성적 동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현-존재로서 확인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형이상학은 현-존재 그 자체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드러난다. 즉 인간 현-존재만이 존재를 이해할뿐더러 존재의 진리를 알아들어 존재의 진리를 근거 지을 수 있는 근거인 한에서 형이상학은 현-존재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밝혀진다. 따라

서 형이상학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인간 중심주의적 해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인간 현존재만이 존재를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존재는 자신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인간을 필요로 하는 한에서, 형이상학은 인간 현-존재로부터 출발하여 인간 현-존재 그 자체에 속하는 사건이 된다. 이로써 존재자로부터 출발하여 존재자의 존재자성으로의 넘어섬을 실현 하던 기존의 형이상학은 극복된다.

(q3.4.2.2.2) 만약 형이상학이 현-존재 그 자체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드러나게 된다면, 이것은 매우 싸구려 차원에서 형이상학의 분과를 인간 안에 인간중심적으로 정박시킨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존재의 진리가 근거하는 저 근거는 현-존재와 더불어서 획득되며, 이 결과 이제 존재 자체가 근원적으로 지배력을 발휘하게 되며 그리고 존재자를 넘어서는 태도 [즉 존재자를 넘어서서 최고의 존재자에게로 이르는 태도], 즉 존재자로부터 출발하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눈앞의 것 혹은 대상으로서의 존재자로부터 출발하는 태도는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이로써 형이상학이 무엇이었는가의 여부, 즉 바로 [형이상학은] 존재자로부터 존재자성으로의 이러한 넘어섬[이었음]이 밝혀진다.(172, 121)

4. 도약

4.1 도약에 대한 예비적 이해

(e4.1.1) 우리는 사유의 제1시원으로부터 다른 시원으로의 이행을 기초존재론적으로 숙고한다. 이러한 이행은 제1시원으로부터 다른 시원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다. 그런데 제1시원으로부터 다른 시원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도약을 위한 결단이 요구된다. 이러한 결단에서는 우리가 제1시원 및 거기로부터 파생된 생물학주의 등등의 형이상학에 사로잡힌 채 남을 것인가 혹은 다른 시원을 맞이할 준비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인가라는 양자택일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시원은 단지 도약 안에서만 일어나는 한, 다른 시원을 맞이할 준비 역시 이미 하나의 도약이다.

(q4.1.2) 기초존재론적 숙고(존재론의 극복으로서의 존재론의 정초)는 제1시원의 종말로부터 다른 시원으로의 이행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행은 동시에 도약을 위한 발판인데, 오로지 도약을 통해서만 시원은, 즉 특히 ‘제1시원에 의해 끊임없이 추월당하는 것’으로서의 다른 시원은 시작될 수 있다. // 여기에서는, 즉 이행에서는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또한 때문에 가장 역사적이기도 한 결단이 준비된다. 즉 이러한 결단은 어떠한 은닉의 영역이나 회피의 영역도 남아 있지 않은 ‘이것이냐 혹은 저것이냐’에 대한 결단이다. 즉 종말 및 거기로부터 흘러나온 것에, 즉 점점 더 조잡해지며 점점 더 근거와 목적을 상실하는 새롭게 변형된 형이상학(즉 새로운 생물학주의 등등)에 사로잡힌 채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혹은 다른 시원을 시작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다른 시원을 맞이할 준비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인가? // 그런데 시원은 단지 도약 안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도 이미 하나의 도약이며 또한 동시에 제1시원 및 그것의 역사와의 대결(건네줌)로부터 유래하며 발원한다.(228-229, 162)

4.2 도약의 의미

(e4.2.1) 도약은 사유의 제1시원으로부터 다른 시원으로의 도약이다.

사유의 제1시원의 역사가 자신을 우리에게 건네줄 때 우리가 제1시원 속에 감추어져 있는 다른 시원의 말 없는 목소리를 알아들어 제1시원과 다른 시원 사이에 ‘서로 건네줌’이 성립한다면, 여기에는 이미 다른 시원에서의 도약이 관여한다. 따라서 도약은 시원적 사유의 진행과정에서 가장 과감하게 취해진 움직임이다. 도약은 제1시원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버린 채, 또한 존재자로부터는 아무런 것도 직접적으로는 기대하지 않은 채, 오로지 존재의 완전한 현성인 생기를 향해 뛰어든다. 즉 도약은 제1시원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였음에도 아직 묻어지지 않은 채 감추어져 있는 존재의 역사를 향해 최초의 돌진을 감행하는 모험이다.

(q4.2.2) 도약은 시원적 사유의 진행 과정에서 가장 과감하게 취해진 움직임이다. 도약은 우리에게 익숙한 모든 것을 내버린 채, 존재자로부터는 아무런 것도 직접적으로 기대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먼저 생기로서의 존재의 완전한 현성 안에서 존재로의 귀속성에 다다른다. [...] // 도약은 존재의 역사에로의 최초의 돌진을 감행하는 모험이다.(227, 161)

4.3 도약의 주도적 기분

(e4.3.1) 도약은 겉으로는 제1시원의 역사 속에서 익숙했던 것은 아무 것도 되돌아보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도약도 이미 일종의 기분에 젖어 있다. 그러한 기분이 바로 경외이다. 존재의 진리는 머뭇거리면서 자신을 거절하나, 우리가 욕구를 자제하는 가운데, 말없이 울려 나오는 존재의 진리의 목소리를 경외롭게 경청할 때 비로소 도약은 실현된다. 즉 경외에 젖어 있을 때 우리는 머뭇거리는 거절의 ‘그 가장 먼 가까움’을 견디어내면서 비로소 존재의 완전한 현성 안에 들어선다. 즉 우리는 존재의 완전한 현성 안에 내립(內立)하게 된다.

(q4.3.2) 그러므로 도약은 겉으로는 아무 것도 전혀 되돌아보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실로 도약은 경외에 젖어 있다. 경외 속에서 우리의 자체의 의지는 머뭇거리는 거절의 가장 먼 가까움을 견디어내는 내립성(內立性, Inständigkeit)으로 넘어선다.(227, 161)

4.4 도약에서 바라본 존재의 역사

4.4.1 이행의 낮설음

(e4.4.1.1) 제1시원으로부터 다른 시원으로 이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단지 ‘아직 있어온 바 없던 시대’로 들어선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른 시원의 역사는 그야말로 이제까지의 제1시원과 다른 시원 안에서 펼쳐지는 전혀 다른 역사이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제1시원의 역사가 지금 당장 종말을 고하지는 않는다. 인간만이 존재를 이해하며 또한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간을 필요로 하는 한에서, 존재가 자신의 진리를 향해 회귀한다한들 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이 없다면, 제1시원의 종말은, 아직 장구한 시간 동안, 지금보다 더 활기에 넘치고 더 급속도로 진행되어 이행을 가로막아 간섭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존재로의 가까움에 자신을 집약하지 못한 채 제1시원에서의 삶에만 친숙해 있는 한, 존재로의 가까움은, 달리 말하자면, 제1시원으로부터 다른 시원으로의 이행은 우리에게 낯선 것으로 남을 것이다.

(q4.4.1.2) 제1시원의 종말로부터 다른 시원으로의 이행을 준비하기 시작함으로써 인간은 가령 단지 ‘아직 있어온 바 없던 시대’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역사의 영역 안으로 들어선다. 제1시원의 종말은 아직도 장구한 시간 동안 이행에 간섭할 것이며 또한 이뿐 아니라 다른 시원에도 간섭할 것이다. // 종말의 역사가 더욱 더 흘러가고 사건에 따라 측정해 보자면 예전보다 더 활기에 넘치고 더 급속도로

진행되며 더 혼란스럽게 될 것이 확실한 만큼이나, 이행 자체는 ‘가장 물을 가치가 있는 것’이자 또한 무엇보다 ‘가장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남을 것이다. 서로를 모르는 극소수의 인간만이 현-존재의 시간-놀이-공간을 준비할 것이며 존재로의 가까움에 자신을 집약할 터인데, 이러한 가까움은 생에 친숙한 모든 이들에게는 낯설게 남아 있음에 틀림없다.(227, 161)

4.4.2 도약과 생-기

4.4.2.1 몇 안 되는 드문 생기들

(e4.4.2.1.1) 존재의 역사에게는 순간들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장구한 시간 동안, 몇 안 되는 드문 생기들이 존재의 역사 안에 등장하였다. 존재가 생기함으로써 존재자가 존재자로서 드러나는 사건이 첫 번째 생기이다. 존재는 존재자를 비로소 존재자로서 드러내는 진리의 사건이다. 즉 진리가 존재에게 할당된다. 그러나 비록 존재가 진리의 사건이긴 하나 존재가 현성할 때 존재의 진리는 감추어지고 왜곡되는 한, 존재의 진리는 완강한 거부로서 현성한다. 진리의 사건으로서의 존재는 엄격히 말해 반쪽짜리 진리의 사건이다. 따라서 두 번째 생기는 진리의 붕괴이다. 더욱이 진리는 명제적 차원에서 명제의 올바름으로 고착화되는데, 이는 존재자를 비로소 존재자로서 드러내는 존재가 망각되었음을 증거한다. 이것이 세 번째 생기이다. 또한 존재의 망각이 깊어짐에 따라 인간이 존재의 진리를 사유하지 않은 채 존재의 역사적 운명에 따라 존재자를 탈은폐하므로, 존재는 존재자로부터 떠나버린다. 이것이 네 번째 생기이다. 그러나 존재가 망각될수록 존재의 진리도 존재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드디어 존재가 자신의 진리를 향해 회귀하니, 이것이 다섯 번째 생기다. 또한 존재가 자신의 진리로 회귀한다 한들, 즉 존재가 새롭게 도래한다 한들, 인간이 이에 응답하지 않으면 존재가 새롭게 드러날 수 없는바, 인간이 존재의 새로운 도래에 응답함이 여섯 번째 생기

이며, 이로써 존재와 인간이 자신의 고유함을 회복함으로써 존재의 일회적 유일성이 변뜩이게 되는 것이 일곱 번째 생기 즉 우리가 말하는 생기 그 자체가 된다.

(q4.4.2.1.2) 존재의 역사에게는 단지 순간들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나 그 장구한 시공간 동안 존재의 역사는 몇 안 되는 드문 생기들을 인지한다. 즉 생기들 그 자체: 존재로의 진리의 할당, 진리의 붕괴, 진리의 비본질(올바름)의 고착화, 존재자로부터의 존재의 떠남, 자신의 진리로서의 존재의 회귀, 마지막 신이 스쳐 지나가는 고독한 장소인 아궁이 불(존재의 진리)의 점화, 존재의 일회적 유일성의 변뜩임.(227-228, 161)

4.4.2.2 존재의 최고의 소명으로서의 생기

(e4.4.2.2.1) 존재 망각이 깊어짐에 따라 존재도 자신의 진리로부터 멀어진다. 따라서 존재는 자신의 진리를 향해 회귀하는데, 존재와 인간이 근원적으로 관련된 이상, 존재가 자신의 진리를 회복하여 새롭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인간을 필요로 한다. 즉 존재와 인간 사이에는 전향적 관련이 성립하는데, 이것이 바로 존재의 최고의 소명인 생기이다. 이러한 생기를 통하여 존재와 인간은 서로의 고유함을 회복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점은, 이성적 동물로서의 인간으로부터 현존재로서의 인간으로의 본질 변화이다. 존재와 인간의 근원적 관련성을 망각한 채 마치 스스로 주체인양 거들먹거렸던 것이 지금까지의 이성적 동물로서의 인간이라면, 이제 인간은 신들의 신성함을 맞이할 결단을 내리며 존재의 진리가 펼쳐 질 시간-놀이-공간을 수호하는 현존재로서의 인간이 된다.

(q4.4.2.2.2) 이제까지의 세계의 파괴는 일종의 자기 파괴이다. 이러한 파괴가 허공을 향해 승리의 찬가를 소리 높이 내지르는 동안, 존재의 본질은 자신의 최고의 소명을 향해 자신을 집약한다. 그런데 존재의 최고의 소명은 존재의 역사의 일회성 안에서 신들의 신성에 대한 결단의 영역에 게 근거 및 시간-놀이-공간을, 다시 말해 현-존재를 가져다주는 생기(Er-eignung)을 의미한다.(228, 161)

4.4.2.3 도약과 몰락

(e4.4.2.3.1) 생-기로서의 존재는 자신을 거절(은닉)한 채로 인간에게 도래한다. 따라서 이를 맞이하기 위하여 인간에게는 존재론적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존재론적 전환이란 인간이 이제까지 제1시원 안에서 누려 왔던 익숙한 것을 여윈 채 자신의 위대함을 존재의 유일하면서도 일회적인 진리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순간 속에 집약하는 몰락을 의미한다. 즉 제1시원으로부터 다른 시원으로의 도약은 일종의 몰락이다. 인간은 스스로 몰락함으로써만 인간에게 은닉한 채로 다가오는 존재의 진리를 맞이한다. 몰락은 생기가 인간에게 자신을 보내오는 그 거절에로의 가장 친밀한 가까움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몰락하는 이는 극히 드물다. 또한 ‘언제’ ‘누가’ ‘어떻게’ 존재의 역사 속에 등장할지는 계산의 대상도 아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가 구가하는 문화가 존재의 망각 및 존재의 떠남을 고착화한 현상일뿐더러 인간중심주의를 강화하며 기독교적 오해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존재의 진리를 맞이하기 위한 몰락은 우리에게 요원하다.

(q4.4.2.3.2) 생-기로서의 존재는 신을 증언함에 있어 불가피한 것이 거둔 승리이다. 그러나 존재자가 존재의 섭리에 순응하는가? 지속적인 전진에서의 황량함 대신에 몰락의 유일성이 인간에게 허락되는가? 몰락은 존재의 유일하면서도 일회적인 진리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 순간 속으로 모든 위대한 것이 집약된 것이다. 몰락은 생기가 인간에게 자신을 보내오는 그 거절에로의 가장 친밀한 가까움이다. // 존재의 역사 속으로의 인간의 등장은 계산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문화 자체가 존재자로부터의 존재의 떠남에 대한 고착화를 의미하고 인간존재를 인간중심주의 안에서 점점 더 영끌어지게 하거나 혹은 실로 인간을 다시 한 번 존재의 모든 진리에 대한 기독교적 오해 속으로 밀어 넣는 한, 문화의 모든 진보나 혹은 쇠퇴로부터 독립적이다.(228, 161-162)

4.5 도약의 구조

4.5.1 가장 극단적인 마주 던짐으로서의 도약

(e4.5.1.1) 우리가 존재자 일반에게서 존재자의 일반적 특성을 추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존재자가 비로소 존재자로서 드러나게 되는 존재’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존재의 본질을 규정함에서 있어서 존재자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형이상학적 오해에 불과하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자신을 던져오는 존재의 진리를 향해, 즉 생기를 향해 우리를 마주 던지는 한에서 비로소 존재의 진리를 이해한다. 따라서 도약은 존재의 진리(본질)를 향한 가장 극단적인 마주 던짐이다. 존재의 진리를 향해 우리를 마주 던지는 한에서, 우리는 ‘존재의 진리를 활짝 여는 궤도’ 안으로 비로소 도약하며 또한 비로소 우리 자신이 된다.

(q4.5.1.2) 도약은 존재의 본질을 향한 가장 극단적인 마주 던짐이다. 이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열려진 영역 안으로 우리를 세워 거기에 서 있게 되며 또한 생기를 통해 비로소 우리 자신이 된다. 그러나 존재의 본질을 규정하기 위해서라면, 존재자가 아직도 주도적 역할을 해야만 하지 않는가? 하지만 여기에서 주도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이미 주어져 있는 존재자에게서 존재자의 가장 일반적 특성으로서의 존재를 구별한 바 있는데, 이러한 구별은 존재가 무엇인가를 파악함에 있어 단지 부록에 불과할 것이다. 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존재자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은 여전히 남을 것이다. 마주 던짐이 항상 앞서 있다. 그리고 던지는 자로서의 마주 던지는 자 자신이 존재의 진리를 활짝 여는 궤도 안으로 도약하느냐의 여부(참고, 건네 줌, 제1시원), 혹은 마주 던짐 자체가 생기에 입각한 사건으로서 경험되며 존속하는가의 여부 [...] 라는 물음만이 남는다.(230-231, 163)

4.5.2 던져져 있음 안에서의 마주 던짐

(e4.5.2.1) 존재의 진리를 향해 우리 자신을 마주 던짐은, 우리가 이

미 존재의 진리에 의해 존재의 진리 안으로 던져져 있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인간 현존재는 던져져 있는 자이다. 이때 던지는 자는 존재이다. 존재는 이미 우리를 존재의 진리를 향해 던져 놓았다. 그러나 인간 현존재는 자신이 존재의 진리 안으로 던져져 있음을 망각하고 있다. 즉 인간 현존재는 자신과 존재의 근원적 관련성을 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이상학의 역사는 존재 망각의 역사이요, 존재 망각이 깊어짐에 따라 존재는 존재자로부터 떠나 버린다. 따라서 존재의 진리를 향한 마주 던짐은 우리가 존재의 떠남이라는 곤경을 곤경으로서 받아들이는 결단을 내려 우리의 던져져 있음을 회복하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점은, 존재의 진리를 향한 마주 던짐에서는 던지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점이다. 인간 현존재는 존재의 진리를 향해 자신을 던지는 자가 된다.

(q4.5.2.2) 도약은 열려 있는 터로의 진입이라는 의미에서 존재의 진리를 향한 마주 던짐의 실현이다. 이때 마주 던짐에서 던지는 자는 던져져 있는 자로서 자신을 경험한다. 즉 그는 자신을 존재를 통해 생-기된 것으로 경험한다. 마주 던짐을 통해 활짝 연다는 것은, 그것이 던져져 있음 및 따라서 존재로의 귀속성의 경험으로서 발생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것은 가능성의 조건과 관련된 단지 초월적일 뿐인 인식방식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도약, 134쪽. 현-존재와 존재의 관련 참고.) // 던져져 있음은 존재의 은닉된 역사의 근본사건들 안에서만 입증되며 또한 진정 우리에게는 특히 존재의 떠남이라는 곤경 및 결단의 필연성 안에서 입증된다. // 던지는 자는 마주 던진다. 즉 던지는 자는 생기로부터 사유적으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던지는 자 자신은 그가 점점 더 마주 던질수록, 던져져 있는 자로서의 그는 점점 더 던져져 있게 된다는 사실이 밝혀진다.(239, 169)

4.5.3 상호공속적 진동

4.5.3.1 인간과 존재의 상호 관련성

(e4.5.3.1.1) 존재는 현성하기 위하여 인간을 필요로 한다. 비록 존재가 새롭게 도래한들, 인간이 존재를 존재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존재의 진리는 실현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생기는, 엄밀히 말하자면, 상호공속적 진동이다. 한편으로는 존재가 인간을 존재의 진리 안으로 던져 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자신의 던져져 있음 안에서 존재의 진리를 향해 자신을 마주 던짐으로써 존재의 진리에 귀속하는 한에서만, 생기는 비로소 생기가 된다. 즉 생기는 상호공속적 진동이요, 달리 말하자면 ‘필요와 귀속의 상호 관련성’이다.

(q4.5.3.1.2) 존재의 현성을 활짝 여는 가운데 드러나는 점은, 현-존재는 생-기의 상호공속적 진동을 포착하지 않는다면, 즉 이러한 진동 안으로 진입하여 비로소 스스로 자기 자신이 되지 않는다면, 즉 던져져 있음 안에서 마주 던지는 보존자, 즉 근거지어진 채로 근거를 근거 짓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239, 169) // 존재는 현성하기 위하여 인간을 필요로 한다. 인간은 존재에게 속하는데, 그 결과 인간은 현-존재로서의 자신의 극단적 사명을 완수한다. [...] // 필요와 귀속의 이러한 상호공속적 진동이 생기로서의 존재를 형성한다. 이러한 상호 공속적 진동의 흔들음을 단순 소박한 앎으로 이끌어 올려 그것의 진리 안에 근거지우는 것이 우리 사유가의 의무 중 첫 번째 것이다. // 이 때 우리는 존재의 이러한 현성을 누구에게든 언제나 임의적으로 표상될 수 있는 것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습관을 단념해야 한다.(251, 177)

(q4.5.3.1.3) 그러나 만약 이러한 필요가 심지어는 존재의 본질을 형성하며 단지 존재의 본질의 귀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면, 존재는 타자에게 의존적이지 않은가?

그러나 이러한 필요가 ‘필요해서 취해진 자’를 그의 근거에로 개조하며 비로소 자기가 되도록 장악할 때, 어떻게 우리가 감히 의-존성에 관해

언급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만약 인간이 생-기된 자이자 존재로의 귀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로 존재자애로의 자기 상실을 포기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인간이 역으로 존재를 자신의 지배 하에 가져올 수 있는가?(251, 177)

4.5.3.2 인간의 극단적 사명

(e4.5.3.2.1) 생기-사유에서 보자면, 인간의 극단적 사명은, 존재가 인간 자신을 존재의 진리로 던지는 한에서, 존재의 진리를 향해 자신을 마주 던져 존재의 진리를 보존하는 것이다. 인간 현존재가 존재의 진리에 의해 근거 지어져 있는 한, 인간 현존재의 극단적 사명은, 즉 인간 현존재의 제1의무는, 존재의 진리를 보존함으로써 존재의 진리를 근거 짓는 것이다.

(q4.5.3.2.2) 존재의 현성을 활짝 여는 가운데 드러나는 점은, 현-존재는 생-기의 상호공속적 진동을 포착하지 않는다면, 즉 이러한 진동 안으로 진입하여 비로소 스스로 자기 자신이 되지 않는다면, 즉 던져져 있음 안에서 마주 던지는 보존자, 즉 근거지어진 채로 근거를 근거 짓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239, 169)//존재는 현성하기 위하여 인간을 필요로 한다. 인간은 존재에게 속하는데, 그 결과 인간은 현-존재로서의 자신의 극단적 사명을 완수한다. [...] // 필요와 귀속의 이러한 상호공속적 진동이 생기로서의 존재를 형성한다. 이러한 상호공속적 진동의 흔들음을 단순 소박한 얇으로 이끌어 올려 그것의 진리 안에 근거지우는 것이 우리 사유가의 의무 중 첫 번째 것이다.(251, 177)

5. 근거지움

5.1 근거지움의 이중적 의미에 대한 예비적 해설

(e5.1.1) 인간과 존재가 근원적으로 관련되는 한에서, 근거지움은 이중적 의미이다. 존재가 현성하는 한에서만 존재자가 비로소 존재자로서 드러난다는 것이 근거지움의 첫 번째 의미라면, 인간 현존재가 근거로서의 존재 그 자체에 도달하여 그것을 인수하는 한에서만 존재의 현성이 비로소 실현된다는 것이 근거지움의 두 번째 의미이다.

(q5.1.2) 1. 근거는 근거 짓는다. 근거는 근거로서 현성한다.(진리의 본질과 시간-공간. 참고) // 2. 이 근거 짓는 근거가 그 자체로서 도달되며 인수된다.(307, 216)

5.2 근거지움의 첫 번째 의미

(e5.2.1) 존재는 그 안에서 존재자가 비로소 존재자로서 드러나게 되는 근거이다. 존재가 현성하는 한에서만, 존재자는 비로소 존재자로서 드러난다. 이러한 의미에서 존재는 존재자를 비로소 존재자로서 근거 짓는다. 따라서 우리는 근거로서의 존재를 존재자의 생성 원인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존재자의 생성 원인(즉 최고의 존재자)도 엄밀한 의미에서 존재자인 한에서, 최고의 존재자 역시, 근거로서의 존재가 현성하는 한에서만, 비로소 존재자로서 드러난다.

(q5.2.2) 1. 근거는 근거 짓는다. 근거는 근거로서 현성한다.(진리의 본질과 시간-공간. 참고) [...] 근거는 근원적으로 근거 짓는 활동을 하는 바(1), 이러한 활동이 존재의 진리의 현성이다. 진리는 근원적 의미에서의 근거이다. // 근거의 본질은 근원적으로는 진리의 본질, 진리, 그리고 시간-공간(무-근거)으로부터 비롯된다. //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에서 이에 대한 주석(1936) 참고.(307, 216)

5.3 근거지움의 둘째 의미

5.3.1 근거-답음

5.3.1.1 근거-답음에 대한 해명

(e5.3.1.1.1) 인간 현존재가 근거로서의 존재 그 자체에 도달하여 그것을 인수하는 한에서만 존재의 현성이 비로소 실현된다는 것이 근거지움의 두 번째 의미이다. 우리는 이러한 둘째 의미에서의 근거지움을 근거-답음이라 명명한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근거-답음도 이중적 구조이다. 즉 존재의 진리는 존재자를 통해 구현되므로, 인간 현존재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근거로서의 존재를 받아들여, 근거로서의 존재를 근거로서 현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거로서의 존재를 존재자 안에 간직함으로써 존재의 진리를 존재자를 통해 구현해야 한다. 그런데 존재의 진리를 구현하는 방식은 특히 인간 현존재가 거주하는 삶의 지평과 관련하여 대지 위에서의 건축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지가 대지로서 비로소 드러날 때, 존재의 진리도 구현된다.

(q5.3.1.1.2) 근거-답음 // a) 근거를 근거 짓는 근거로서 현성하게 함. // b) 근거로서의 근거 위에 건축을 하며, 어떤 것을 근거에게로 가져옴. // 근거는 근원적으로 근거 짓는 활동을 하는 바(1), 이러한 활동이 존재의 진리의 현성이다. 진리는 근원적 의미에서의 근거이다. // 근거의 본질은 근원적으로는 진리의 본질, 진리, 그리고 시간-공간(무-근거)으로부터 비롯된다. // 『근거의 본질에 관하여』에서 이에 대한 주석(1936) 참고. // 도약과의 연관에 맞게 보자면, 근거지움이란 제목은 우선 2의 a)와 b)의 의미를 염두에 두는데, 그러나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실로 1)의 의미에 관련될뿐더러 그 의미에 입각해 규정된다.(307, 216)

5.3.1.2 근거-답음과 현-존재

(e5.3.1.2.1) 근거-답음은 근거로서의 존재를 현성하게 함과 동시에 건축 활동을 통해 존재의 진리를 대지 안에 간직해 놓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거-답음이 비로소 근거-답음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현존재가 존재 망각으로부터 벗어나 자신과 존재의 근원적 관련성을 회복해야 한다. 즉 인간 현존재는 자신이 존재의 진리가 현성하는 장(즉 Da, 現) 안에 있음을 회복해야 한다. 따라서 역으로 말하자면, 근거-답음이란 현-존재를 현-존재로서 근거지음을 의미한다. 인간 현-존재만이 근거로서의 존재를 받아들일 근거인 한에서, 이러한 의미에서의 근거를 근거로서 근거지을 때, 다시 말하자면, 근거로서의 존재를 받아들일 인간 현-존재를 비로소 인간 현-존재로서 근거 지을 때, 근거-답음은 가능한 것이다.

(q5.3.1.2.2) 존재의 진리라는 근거 및 존재의 진리 자체를 받아들일 근거-답음. 현-존재의 확고부동함을 통해 이러한 근거(생기)를 근거로서 있게 함. 따라서 근거-답음은 현-존재를 근거지음이 된다. 즉 근거-답음이란 근거를 받아들일 근거 답음, 다시 말해 존재의 진리를 받아들일 근거-답음이 된다.(307, 216)

5.3.2 간직함

5.3.2.1 진리의 현성과 간직함

(e5.3.2.1.1) 근거-답음은 다시 말해 간직함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간직함이란 눈앞의 진리를 존재자 안에 추가로 보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현존재에게 은닉된 채 다가오는 존재의 진리를 받아들여 존재자 안에 간직해 놓음으로써 존재의 진리를 존재의 진리로서 현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인간과 존재가 근원적으로 관련된 한에서, 만약 인간 현존재가 존재의 진리를 간직하지 않는다면, 존재의 진리는 현성할 수 없다.

(q5.3.2.1.2) 우리가 ‘진리는 결코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전적으로 도외시한다고 하더라도, 간직함이란, 그 자체로 눈앞에 있는 진리를 존재자 안에 추가로 보관한다는 것이 아니다. // 간직함은 진리의 현성에 속한다. 만약 진리가 간직함 안에서 결코 현성하지 않는다면, 진리의 현성은 현성이 아닌 것이다.(389, 271)

5.3.2.2 간직함과 존재자

5.3.2.2.1 자기 은폐를 위한 밝음과 간직함

(e5.3.2.2.1.1) 존재의 진리가 자신을 은폐하는 가운데 자신을 인간 현존재에게 밝히고 있는 한, 존재의 진리의 본질은 ‘자기 은폐를 위한 밝음’이다. 인간 현존재의 사명은 ‘자기 은폐를 위한 밝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밝음을 밝음으로 보존함으로써 존재의 진리를 현성하게 하는 것이다.

(q5.3.2.2.1.2) 따라서 만약 우리가 진리의 본질을 지적하는 가운데 진리의 본질이 자기은닉을 위한 밝음(die Lichtung)으로 명명된다면, 이러한 밝음이 발생하는 까닭은 단지 진리의 현성을 비로소 전개하기 위해서이다. 밝음은 그것의 열린 장 안에서 자신을 근거 지어야 한다. [...] // 간직함 자체가 자기은폐의 밝음에 의해서 철저히 지배되듯, 간직함은 그 때마다 특정하게 자기은폐를 열린 장 안으로 밀어 넣는다.(참고. 1936년 강연들에서의 이러한 연관에 관한 증명) // 간직함은 그것의 근경과 필연성을 어디로부터 갖는가? 자기은폐로부터. 자기은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을 간직함이다. [...] // 그러나 언제나 자기은폐에 대한 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단지 이렇게 해서만 ‘현존재적으로 근거지어진 역사’는 생기 안에 남을 것이며 또한 그로써 존재에게 속하기 때문이다.(389-391, 271-273)

5.3.2.2.2 존재의 진리를 보존하는 장소로서의 존재자

(e5.3.2.2.2.1) 존재가 존재자의 존재인 한에서 존재의 진리는 존재자를 통해 구현되므로, 밝음을 보존하는 장소는 존재자가 된다. 사물, 도

구, 작품은 존재의 진리를 간직하는 장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존재자에 입각해 존재의 진리의 현성에 이르는 길을 발견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존재자가 과연 존재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가? 즉 오늘날 존재자 안에서는 대지와 세계와의 투쟁을 통해 존재의 진리가 구현되고 있는가?

(q5.3.2.2.2.2) 밝음은 열려 있음 안에서 밝음을 보존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그때마다 상이한 존재자(즉, 사물-도구-작품)이다. [...] // 그러므로 — 물론 존재에 대해 응답하면서 존재자로 앞서 도약함과 더불어서 — 존재자에 입각해 진리의 현성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고 이러한 길 위에서 간직함을 진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드러내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길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존재자와 맺는 관련들을 우리가 그 안에 서 있는 그대로 비로소 포착해야 하며 따라서 극도로 통상적인 것을 주목해야만 하지 않는가?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일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인데, 그 까닭은 이러한 일은 동요 없이는, 다시 말해 존재 자체에로의 그리고 진리에로의 근본적 관련의 전위(傳位) 없이는 결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 존재자가 어떤 진리 안에 서 있고 또한 존재자가 그러한 진리 안에서 어떻게 그때마다 서 있는가의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여기에서 세계와 대지가 어떻게 투쟁을 벌이고 있는지’의 여부 및 ‘이러한 투쟁 및 따라서 저 세계와 대지 자체가 어떻게 스스로를 탈은폐하면서 또한 은폐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해져야 한다.(389, 271-272)

5.3.2.2.3 존재의 진리의 현성

5.3.2.2.3.1 마주 던짐과 초연한 내맡김

(e5.3.2.2.3.1.1) 존재의 진리를 대지(존재자) 안에 간직해 넣기 위해서는 우선 현존재가 자신에게 현성해 오는 존재의 진리를 존재의 진리로서 맞아들여야 한다. 현존재가 기존의 형이상학적 사유에서 벗어나 자신을 존재의 진리에게 초연하게 내맡기는 가운데 존재의 진리를 향해 자신을 마주 던짐으로써만 현존재는 존재의 진리를 존재의 진리로서 맞는다. 존재의 진리를 존재자 안에 간직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존재의 초연한 내맡김과 마주 던짐이 요망되는 것이다.

(q5.3.2.2.3.1.2) 진리를 존재자에게로 간직함에게는 그 어느 것이나 그때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마주 던짐과 실행이 속한다. // 모든 마주 던짐은 폭풍이며, 축복이며, 진동이며, 순간이다. 모든 실행은 초연한 내맡김, 인내, 체념(본래적으로 파악하면 그렇다. 거기에 속하는 비본래성의 형식. 비-본질?)이다. 이 둘 중 어느 것도 다른 것과 기분을-같이 함 없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둘 모두 언제나 간직함이라는 필연성을 근거로 하여 발생한다.(391, 273)

5.3.2.2.3.2 대지와 세계의 투쟁을 투쟁으로 점화함

(e5.3.2.2.3.2.1) 현존재는 존재의 진리를 대지(존재자) 안에 간직하고자 하나, 대지는 자기 폐쇄적이다. 마치 화강암 위에 신전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화강암이 자신의 떠받치는 힘을 감추고 있듯, 대지는 자기 폐쇄성을 갖는다. 존재의 진리가 대지 안에 간직됨으로써 존재의 진리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대지의 폐쇄성이 분쇄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존재는 존재의 진리가 펼쳐지는 세계를 대지 위에 건립한다. 바야흐로 대지와 세계 사이에 투쟁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것은 은폐와 밝음의 투쟁이다. 하지만 이러한 투쟁은 서로를 격멸시키는 투쟁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비로소 드러내는 상생의 투쟁이 된다. 즉 이러한 투쟁을 통해 대지는 비로소 대지로서 드러나며 또한 세계는 세계로서 구현되며, 이로써 존재의 진리는 대지 안에 간직된다.

(q5.3.2.2.3.2.2) 진리를 간직함이란 대지의 폐쇄성으로의 역성장이다. 이러한 역성장은 단순한 표-상들과 감정들 안에서는 결코 실현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때마다 고려함, 제작, 노동 안에서, 간략히 말하자면, 세계를 세계로 있게 함이 단순한 경영 따위로 벗어나지 않는다면, 세계를 세계로 있게 함 안에서 실현된다.(391, 273)

(q5.3.2.2.3.2.3) 간직함은 그것의 곤경과 필연성을 어디로부터 갖는가? 자기은폐로부터. 자기은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을 간직함이다. 이 사건은 대지와 세계의

투쟁 속에서 변화하며 그러한 투쟁 안에 보존된다(왜). 투쟁의 투쟁화는 진리를 작품 안으로, 도구 안으로 정립하며, 진리를 사물로서 경-험하며, 진리를 행위와 희생 안에서 완성한다.(390-391, 273)

(q5.3.2.2.3.2.4) 진리는 언제나 이미 단지 현-존재로서만 또한 따라서 투쟁의 투쟁화로서만 현성한다.(형상-질료의 구별의 근원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한 강연들을 참고할 것) // 그러나 여기에서 현성하는 연관들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현전자를 표상하는 단순 소박한 사유방식으로부터 (즉 현전성으로서의 존재로부터 또한 현전자에게로의 동화라는 의미에서의 진리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나 사유의 시선이 특히 진리의 전체적 현성을 철저히 가능할 수 있도록 사유의 시선을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390, 272-273)

5.3.2.2.4 존재의 진리를 존재자 안에 간직하는 사건에 대한 오해

(e5.3.2.2.4.1) 존재의 진리는 이미 완성된 채로 독자적으로 진리인 것이 아니다. 존재와 인간은 근원적으로 관련된다. 즉 인간 현존재가 유한자인 것은 물론이지만, 존재도 인간을 필요로 한다. 비록 존재의 진리가 인간 현존재에게 다가온다 한들, 인간 현존재가 그것을 맞이하여 존재자 안에 간직하지 않는다면, 존재의 진리는 현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존재의 진리를 존재자 안에 간직하는 사건을 플라톤 철학적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플라톤 철학에서 이데아, 즉 형상은 독자적으로 이미 진리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데아의 빛 속에서 질료는 비로소 형태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존재의 진리의 현성은 이와 다르다. 인간 현존재가 존재의 진리를 존재자 안에 간직해 놓을 때 존재의 진리는 비로소 존재의 진리로서 현성하는 것이다.

(q5.3.2.2.4.2) 따라서 진리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마주 던짐에는 언제나 일목요연한 플라톤적 관계를 위한 자리란 처음부터 없다. 왜냐하면 존재자 안에 진리를 간직함 — 이것은 너무도 명백히 ‘이데아 즉 형상을 질료 안에 집어넣어 그 형태를 조성한다는 것’ 따위를 상기시키지 않는가? 그러나 진리를 존재자 안으로 간직함이라는 문구조차 이미 우리를 오

도하는데, 그 까닭은 이러한 문구에서는 마치 진리가 그때마다 이미 독자적으로 진리일 수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6. 도래할 자들

6.1 도래할 자들에 대한 예비적 이해

(e6.1.1) 도래할 자들은 우리에게 낯선 이들이다. 우리가 존재를 망각한 채로 있고 또한 존재가 존재자를 떠나 있는 한, 존재의 진리를 근거 짓는 자로서의 그들은 우리에게 낯선 이들이다. 그러나 도래할 자들이야말로 우리가 그리는 장래의 인간들이다. 그들을 지배하는 근본기분은 자제함인데, 그들이 형이상학적 욕구를 자제한 채로 존재의 진리에 대해 결단을 내릴 때 비로소 존재의 진리는 현성한다. 마지막 신은 비로소 우리를 스쳐 지나가며 존재자는 자신의 고유한 의미 안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우리 시대의 과제는 도래할 자들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준비는 말없이 다가오는 존재의 진리의 현성을 말없이 맞이할 때 가능하다. 즉 이러한 준비에 기여하는 것은 생기를 묵언으로 맞이하는 시원적 사유이다.

(q6.1.2) 자신들에게 몫으로 주어진 선물과 거절에 대해 동일하게 결단을 내린 동일한 마음을 지닌 저 낯선 이들. 존재의 진리 안에서 존재자는 모든 사물과 모든 숨이 갖는 단순 소박한 본질적 지배력을 발휘하도록 양양되는데, 이러한 존재의 진리의 권장(權杖)을 받드는 사람. 가장 고요한 고요 속에서 ‘감지할 수 없는 충격’은 진리를 모든 계산된 올바름으로서의 진리들의 혼란으로부터 끄집어내어 그것의 본질에로 되돌리는데, 이러한 가장 고요한 고요에 대한 가장 고요한 증인들. 가장 은폐된 것을 은폐된 채로 보유함. 신들의 결단에 의한 스쳐 지나감의 떨림. 존재의 현성. // 도래할 자들: 진리의 이러한 본질에 서서히 그리고 오랫동안 귀 기울이면서 진리의 본질을 근거 짓는 자들. 존재의 부딪혀 움에 맞서 있는 자들. // 도-래할 자들은 자기희생적인 자제를 발휘하는 가운데 귀로에서 [존재의 진리를] 기-대하는 인간들로서 장래의 인간들인데, 마지막 신의 멀고도 가까운 눈짓과 엄습은 그들을 향해 다가온다. // 이러한 도래할 자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준비에 기여하는 것은 생기를 묵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서의 시원적 사유다. 그러나 사유는 소수의 인간들이 존재의 도약을 감행하는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다.(395, 277)

6.2 도래할 자들의 근본기분

6.2.1 자제

(e6.2.1.1) 도래할 자들의 근본기분을 하나의 낱말로 명명하자면, 자제이다. 자제란 인간 현존재에게 도래하는 생기에 의해 기분에 젖어 있으면서 생기를 알고자 하는 의지로 충만되어 있는 용기의 심정으로서 존재자를 지배하고자 하는 형이상학적 욕구를 억제함을 의미한다.

(q6.2.1.2) 이러한 근본기분은 자제라는 이름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하나의 낱말로는 거의 명명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낱말은 생기에 대한 철저한 사유에 의해 생기의 의미로 역사적으로 자라나는 전체적인 근원적 충족감 안에서 취해져야 한다. // 근본기분은 기분에 젖어 있음을 포함한다. 즉 근본기분은 생기에 의해 기분에 젖어있으면서-그것을 알고자 하는 의지로서의 용기의 심정을 포함한다.(395-396, 277)

6.2.2 근본기분과 주도적 기분

(e6.2.2.1) 생기의 짜임구조 각각에는 그것을 주도하는 기분이 있다. 나지막한 울림의 주도적 기분이 경악과 경외라면, 건네줌의 주도적 기분은 즐거움이고, 도약의 주도적 기분은 경외이다. 그런데 이 각각의 주도적 기분은 근본기분에 입각하여 근원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주도적 기분들은 도래할 자들의 근본기분인 자제를 통해 하나의 울림으로 통합된다.

(q6.2.2.2) 나지막한 울림과 건네줌, 그리고 도약과 근거 지움은 각각 그것들의 주도적 기분을 갖고 있는데, 이 주도적 기분들은 근본기분에 입각하여 근원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 그러나 이러한 근본 기분은 시원적 사유의 전체 안에서는 서술될 수도 없고 또한 야기될 수도 없다. [...] // [...] // 주도적 기분들은 하나의 울림 안에서 서로 조율되어 있고 또한 서로를 조율하고 있다. // 나지막한 울림의 주도적 기분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저 '존재의 떠남' 안에서의 경악이며 또한 동시에 나지막하게 울리는

생기 앞에서의 경외이다. 경악과 경외가 하나가 되어 비로소 나지막한 울림을 사유 안에서 실현되게끔 한다. // 주도적 기분들의 근원적인 하나의 울림은 근본기분을 통해 비로소 완전히 조율된다. 도래할 자들은 근본기분 안에 있다. 그렇게 기분에 젖어 있는 자들로서의 그들은 마지막 신에 의하여 그 운명이 규-정된다.(395-396, 277-278)

6.3 도래할 자들이 추구하는 앎

(e6.3.1) 도래할 자들은 인간 현존재에게 은닉된 채로 도래하는 존재의 진리에 의해 이미 기분에 젖어 있는 가운데 존재의 진리를 알고자 한다. 그들이 추구하는 앎은 존재의 진리에 대한 앎, 다시 말하자면, 생기에 대한 앎이다. 그런데 이러한 앎은 실용적 가치에서 보자면 무용하나, 앞으로의 역사를 결정짓는 근원적 영역을 밝혀주는 한에서, 참다운 앎이 된다. 참다운 지자(知者)는 그때마다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개별적 사건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개별적 사건들 전체를 일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존재의 역사적 운명을 통찰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은닉된 채로 전개되는 존재의 진리를 파악함으로써, 오늘날 역사적 사건의 시각이 존재를 향한 몰락의 시대임을 가늠한다.

(q6.3.2) 그들은 참다운 앎으로서의 지배적인 앎 속에 있다. 이러한 앎에 도달하는 이는 계산되거나 강요되지 않는다. 그밖에도 이러한 앎은 무용하며 아무런 가치도 갖지 않는다. 즉 이러한 앎은 현행 경영의 조건으로서 간주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 // 참다운 지자(知者)의 앎은 무엇과 더불어 시작되어야 하는가? 본래적인 역사적 인식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역사에 대한 결단이 내려 질 그 영역에 대한 앎 및 그 영역 안에 서의 내존(물음)과 더불어서. 이러한 역사적 인식은 결코 사건들의 지금의 상황들과 다양한 층들 및 그 사건들 안에 담겨진 목적들과 요구들에 대한 확정과 서술 안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앎은 역사가 형성하는 그 사건의 시각들을 알고 있다. // 우리의 시각(時刻)은 몰락의 시대이다. (396-397, 278)

6.4 도래할 자들과 몰락

6.4.1 몰락

(e6.4.1.1) 우리가 말하는 몰락은 통속적 의미에서의 몰락이 아니다. 비본질적인 몰락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우리를 압도하는 거대한 것 배후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 정체하고 마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본질적 의미에서의 몰락은 앞으로의 역사를 결정지을 존재의 진리를 향한 몰락이다. 그러니까 본질적 의미에서의 몰락은 존재의 진리에 이르고자 하는 다가올 자들을 준비하는 도정이요, 지금은 떠나버린 마지막 신을 맞이하기 위한 결단이 내려지는 그 순간과 장소를 침묵하는 가운데 준비하기 위한 도정이 된다.

(q6.4.1.2) 몰-락은, 본질적 의미에서 보자면, 다가올 자들을 침묵하는 가운데 준비하기 위한, 또한 신들의 도래와 부재에 대한 결단이 내려지는 그 순간과 장소를 침묵하는 가운데 준비하기 위한 그 도정이다. 이러한 몰락이야말로 가장 최초의 시원이다. 그러나 몰락의 비-본질은 그것의 독자적이며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몰락의 비-본질은 정체(停滯)이며, 더 이상 할 수 없음이다. [...] (397, 278)

6.4.2 몰락하는 자들

(e6.4.2.1) 도래할 자들은 몰락하는 자들이다. 몰락하는 자들은 존재의 떠남이 갖는 저 가장 극단적인 통분을 견디어내는 가운데, 자신에게 말없이 은닉된 채로 다가오는 존재의 진리를 향해 몰락한다. 모든 다른 이들은 존재 망각의 역사에 안주한 채 몰락을 두려워하고 부정하나, 몰락하는 자들은 앞으로의 역사를 가늠할 존재의 진리의 현성(즉 생기)에로 자신을 집약하는 저 고요함을 활짝 열어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이들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그 어떤 칙칙한 체념이나 아무것도 참되게 의욕하지 못하는 낙관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그들은 존재의 진리의

부름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운데, 경건한 마음으로 존재의 진리에 관해 끊임없이 묻고 있을 뿐이다.

(q6.4.2.2) 물-락하는 자들은 본질적 의미에서 보자면, 다가오는 것(장래의 것)으로 달려-내려가 그 눈에 드러나지 않는 장래의 근거에 자신을 희생하는 이들이다. 즉 그들은 끊임없이 물음에 자신을 내 놓으며 그러한 근거 안에 서 있는 이들이다. // 물-락의 시대는 그 몰락에 귀속하는 이들에게만 알려질 수 있다. 모든 다른 이들은 필경 물-락을 두려워하며, 따라서 몰락을 부정하고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몰락은 단지 허약함이며 종말이기 때문이다. // 참되게 물-락하는 이들은 칙칙한 체념을 알지 못한다. 그런 따위의 체념은 장래의 것을 의욕하지 못하기에 더 이상 아무런 것도 의욕하지 못하는 체념에 불과하다. 또한 참되게 물-락하는 이들은 떠들썩한 낙관론도 알지 못한다. 그런 따위의 낙관론은 자신을 넘어서 의욕함으로써 변화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길로부터 자신을 봉쇄하였기에 그 모든 확신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무런 것도 참되게 의욕하지 못하는 낙관론에 불과하다.//물-락하는 자들은 언제나 묻는 이들이다. 물음이 갖는 고요하지-못함은 공허한 불확실성이 아니라 오히려 저 고요함을, 다시 말하자면, 자신을 향해 오는 부름의 단순 소박한 친밀성을 애타게 기다리며 존재의 떠남이 갖는 저 가장 극단적인 통분을 견디어내는 저 고요함을, 즉 가장 물을 가치가 있는 것(생기)으로의 집약인 저 고요함을 활짝 열어 마음 안에 품는 것이다.(397, 278-279)

6.5 도래할 자들과 민족

6.5.1 민족과 신

(e6.5.1.1)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 근거는 신이다. 하나의 민족이 자기 민족의 신을 잃어 버렸을 때, 그 민족은 자기 민족의 존립 조건 정도에 불과한 것을 자기 민족의 무제약적 조건으로 우상화하는 위험에 빠져 버린다. 즉 하나의 민족은 현재의 이익에만

급급할 뿐 그 민족이 나아가야 할 근본적인 방향을 상실한다. 그러기에 하나의 민족은 자기 민족의 신을 발견해야 한다. 그러한 신만이 하나의 민족에게 현재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좌표를 설정하여 줌으로써 하나의 민족을 비로소 하나의 민족으로서 성립하게 한다.

(q6.5.1.2) 하나의 민족은 그 민족이 자기 민족의 신을 발견하는 가운데 자기 민족의 역사를 주어진 그대로 인수할 때에만 비로소 하나의 민족이 된다. 저 신은 바로 그 민족을 그 민족 자체를 넘어서도록 강요해서 그 민족을 다시 존재자로서 세우는 그러한 신을 의미한다. 단지 그렇게 해서만 그 하나의 민족은, 자기 민족 자체의 주변을 맴도는 위험으로부터, 즉 자기 민족의 존립의 조건들 정도에 불과한 것을 자기 민족의 무제약적 조건들로 우상화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난다.(398, 279)

6.5.2 민족의 본질

(e6.5.2.1) 하나의 민족은 자기 민족에게 은닉된 채로 다가오는 존재의 진리를 대지 안에 간직해 놓을 때 비로소 자기 민족의 신을 발견한다. 대지와 세계의 투쟁 속에서만 하나의 민족은 자기 민족의 신을 맞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된다. 즉 하나의 민족은 존재의 진리의 생기 안에서만 자기 민족의 신에게로 귀속한다. 하나의 민족이 신에게로의 귀속성에 입각해 자기 민족의 역사성에 근거할 때 비로소 민족의 본질은 성립한다.

(q6.5.2.2) 민족의 본질은 신에로의 귀속성에 입각해 자신에게 속하는 이들의 역사성에 근거한다. 이러한 귀속성은 생기 안에서 역사적으로 근거지어 지는데, 이러한 생기에 입각하여 비로소, “왜 생과 육체 및 번식과 남녀의 성, 그리고 혈통은 — 대지라는 근본날말 안에서 언급해 보자면 — 역사에 속하며 또한 그것들 나름의 방식으로 다시 역사를 자신들 안으로 회수하며 그리고는 그때마다 무제약자가 되고자 하는 가장 내적인 경외감에 의해 이끌려진 채 단지 대지와 세계의 투쟁에만 예측되는가” 하는 그 까닭에 대한 근거제시가 발원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본질은 투쟁에 친밀하기 때문에 언제나 동시에 생기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399, 279-280)

(q6.5.2.3) 이러한 신은 한 민족을 넘어선 가장 단순 소박한 그러나 가장 극단적이기도 한 모순들을 그 민족이 자신을 넘어서 편력하는 길들로서 설립하고자 하는데, 이는 그 민족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발견하고 그 민족의 역사의 순간을 몽땅 길어내기 위해서이다.//세계와 대지는 그것들의 투쟁 속에서 존재자의 진리를 다양하게 성취하는 가운데 사랑과 죽음을 그것들의 최고조로 이끌어 올려 신에 대한 충정으로 고양하며 또한 기존의 혼란을 하나로 엮어 내고자 한다.(399, 280)

6.5.3 마지막 신에게로 도래할 자들

6.5.3.1 도래할 자들과 마지막 신

(e6.5.3.1.1) 도래할 자들은 인간에게 은닉된 채로 다가오는 존재의 진리를 향해 도래한다. 그들은 대지와 세계의 투쟁에 불을 지피 생기를 투쟁을 통해 쟁취하는 가운데 존재의 진리를 대지 안에 간직해 넣음으로써 인간을 구원할 마지막 신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마지막 신이 인간 현존재에게 스쳐 지나갈 때 비로소, 이제까지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사라졌던 신들의 시대는 다시 막을 올릴 것이며 또한 대지를 착취 가능한 것으로만 탈은폐하던 저 ‘세계가 빈곤한 이들’의 단순한 삶 속으로의 복귀는 종식된다. 따라서 도래할 자들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신에게로 도래할 자들로서, 이제까지 민족답지 못했던 민족을 비로소 민족으로서 존재하게 하는 이들이다.

(q6.5.3.1.2) 마지막 신에게 도래할 자들은 이러한 투쟁에 불을 지피는 가운데 생기를 투쟁을 통해 쟁취하며 가장 폭넓게 뒤를 바라보는 가운데 창조된 것 중 가장 위대한 것 즉 존재의 충족된 일회성과 유일성을 회상하고자 한다. 그 밖에도 대량의 것은 자신의 미처 날뛰던 모든 욕망을 청산하며 모든 불확실한 것, 반쪽에 불과했던 모든 것, 단지 이제까지의 것만을 가지고 자신을 위로하던 모든 것을 떠내려 보낼 것이다. 그렇다면

신들의 시대가 막을 내릴 것이며, 또한 대지가 아직 착취 가능한 것만으로 남아 있던 저 ‘세계가 빈곤한 이들’의 단순한 삶 속으로의 복귀가 시작될 것인가?(399, 280)

(q6.5.3.1.3) 그러나 만약 그 민족을 위하여 침묵한 채로 탐구하면서 이러한 탐구자로서 ‘아직 민족답지 못한 민족’에 걸으로나마 대항하여 서 있어야 하는 그런 이들이 없다면, 그 민족은 신을 어떻게 발견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지만 이러한 탐구자들 자신이 무엇보다 먼저 존재해야 한다. 그렇게 존재하는 자들로서의 그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현-존재, 이것은 이러한 존재자들, 즉 마지막 신에게로 도래할 자들의 존재를 근거 지움과 다른 것인가?(398-399, 279)

(q6.5.3.1.4) 단지 존재하는 것에 불과한 것, 즉 전체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의 무수함 그리고 존재의 드물음, 이런 까닭에 사람들은 존재자 내부에서 신들을 탐색한다. 만약 사람들이 신들을 탐색하나 발견하지 못한 채 강제적인 공작으로 강요된다면, [신들을] 만남과 [신들의] 눈짓을 자체한 채 고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짜임 구조를 고귀하게 바라보는 마음, 눈짓에 대한 신뢰가 갖는 강건함, 두려운 것이 펼치는 분노, 현존재는 가장 내적인 질서이다. 투쟁에 불붙이는 것은 이러한 질서로부터 비로소 그것의 법칙을 획득한다. 투쟁화는 만나는 것 모두를 두루 비추며 본질적인 것의 단순 소박함을 우리가 비로소 경험하게끔 한다. 질서는 가장 단순 소박하게 자신을 내보이는 것인데, 그것은 나타나는 것들 옆에 혹은 위에 있는 어떤 것으로 쉽사리 잘못 간주되기도 한다. 즉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다.(400-401, 281)

6.5.3.2 현-존재와 마지막 신에게로 도래할 자들

6.5.3.2.1 마지막 신의 눈짓

(e6.5.3.2.1.1) 마지막 신에게 도래할 자들은 소수이다. 형이상학적 욕구에 젖어 있는 한, 인간 현존재는 자신에게 섬광처럼 다가오는 존재의 진리를 포착하지 못한다. 그러나 마지막 신에게 도래할 소수의 이들이 젖어 있는 근본기분은 자체이다. 그들은, 모든 형이상학적 욕구를 자

제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말없이 은닉된 채로 다가오는 존재의 진리를 침묵 속에서 맞이한다. 존재의 진리는 은폐와 밝힘 속에서만 인간 현존재에게 다가오는데, 존재의 균열은 스스로의 욕구를 자제하며 침묵하는 이들에게만 자신을 열어준다. 그리고 그들이 존재의 진리를 대지 안에 간직해 놓음으로써 대지의 사물들의 단순 소박함을 회복할 때 비로소, 마지막 신은 그들에게 눈짓한다. 마지막 신에게 도래할 자들은 그들에게 엄습해 오는 마지막 신의 눈짓을 간직한다.

(q6.5.3.2.1.2) 자제와 침묵은 마지막 신을 맞이할 가장 친밀한 축제가 될 것이며 또한 사물들의 단순 소박함에 이르는 신뢰의 고유한 방식 및 사물들의 작품들이 갖는 저 ‘우리를 홀리면서 밀어 옹기는 친밀성’의 고유한 흐름을 쟁취할 것이다. 진리의 간직은 가장 은폐되어 있는 것을 은폐된 채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그것에게 유일한 현재를 허락할 것이다. // 오늘날 이렇게 도래할 소수의 사람들은 이미 있다. 그들의 예감과 탐구는 그들 자체 및 그들의 진정한 불안전성에게는 거의 인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전성은 균열의 고요한 지속이다. 이러한 불안전성은 마지막 신의 가장 경외스럽고도 가장 아득한 눈짓에 의해 적중된 또한 생기의 내리 닥침에 향해 있는 확실성을 담지한다. 자제된 침묵함 속에서 이러한 눈짓은 눈짓으로서 어떻게 간직되는가, 또한 이러한 간직은 여임과 도래 안에, 특히 슬픔과 기쁨 안에, 즉 존재의 균열은 자제한 이들에게만 자신을 열고 또한 닫기도 하는데 그러한 자제한 이들의 저 근본기본 안에 어떻게 서 있는가? 열매와 들이-닥침, 엄습과 눈짓.(399-400, 280)

6.5.3.2.2 현-존재를 근거지움

(e6.5.3.2.2.1) 마지막 신에게로 도래할 자들은 그들에게 엄습하는 마지막 신의 눈짓을 간직한다. 그들은 자제하는 침묵 속에서 마지막 신의 섬광을 모아 다시 그 빛을 반사하는 가운데 그 소수의 몇몇 안 되는 드문 이들에게 그 섬광을 선사하는데, 이로써 그들 모두는 현-존재를 근거 짓는다. 현-존재의 본래적 의미가 인간이야말로 존재의 진리가 발현하는 근본적 장소라는 것이라면, 도래할 자들이 마지막 신의 눈짓을 자신 안에 간직함으로써 존재의 진리의 생기를 생기로서 구현할 때 그들은

비로소 참다운 의미에서 현-존재가 된다. 즉 오로지 도래할 자들에게만 생기로서의 존재는 도래하며, 또한 이에 반면 생기로서의 존재는 이들을 생기하게 하며 이들에게 존재의 진리를 간직할 권능을 부여한다.

(q6.5.3.2.2.2) 도래할 소수의 이들은 본질적으로 눈에 띄지도 않는 이들을 자신들에게 세어 넣는다. 이 본질적으로 눈에 띄지도 않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공공성도 속하지 않으나,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내적인 이름 다음 속에 마지막 신의 섬광을 모으며 다시 그 빛을 반사하는 가운데 그 소수의 몇몇 안 되는 드문 이들에게 그 섬광을 선사한다. 그들 모두는 현-존재를 근거 짓는다. 신의 가까움은 자만하지도 침잠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가장 친밀한 경외의 확고부동함을 가장 유일한 진동의 공간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신의 가까움이 갖는 하나의 울림은 현-존재를 통해 진동한다. 현-존재 - 마지막 신의 땀과 가까움(엄습)의 모든 관련들을 관통하여 옮겨 놓음. // [...] // 도래할 자들은 근거지어진 현-존재 안에 자체의 심성을 지닌 채 서 있는 이들이다. 오로지 이들에게만 생기로서의 존재(도약)는 도래하며 또한 생기로서의 존재는 이들을 생기하게 하며 그리고 이들에게 존재의 진리를 간직할 권능을 부여한다.(400-401, 280-281)

6.5.3.2.3 가장 참다운 의미에서 도래할 자

(e6.5.3.2.3.1) 신이 사라진 시대에 횡탈린은 마지막 신의 도래를 갈구함으로써 우리에게 잃어버린 민족의 고향을 일깨운다. 그는 우리에게 국수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존재의 진리로의 가까움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귀향을 요구한다. 그는 신이 사라져 버린 가난한 시대에 이 땅에 존재의 진리를 구현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한 시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도래할 자들 중에서도 가장 참다운 의미에서 도래할 자가 된다.

(q6.5.3.2.3.2) 횡탈린은 가장 멀리에서 다가오는 따라서 도래할 자들 중 가장 도래하는 그들의 시인이다. 횡탈린은 도래할 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참다운 의미에서 도래할 자이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폭 넓은 곳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며 또한 가장 위대한 것을 이러한 폭 안에서 두루 가늠하면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401, 281)

7. 마지막 신

7.1 마지막의 것이 갖는 본래적 의미

(e7.1.1) 우리는 마지막 신을 이제까지의 모든 신 이후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신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오해는 시간에 대한 자연과학적 표상에 기인한다. 시간에 대한 자연과학적 표상에 따르면, 마지막 신은 자연과학적 시간 계산에 따라 그것의 도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신에 불과하다. 즉 마지막 신은 낱말 그대로 신들의 존재의 종식을 장식하는 신이 된다. 하지만 마지막 신은 오히려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시원이 되는 신을 의미한다. 마치 우리가 죽음으로 선구함으로써만 비로소 우리의 본래적 가능성을 회복하여 본래적 자기로서의 삶을 펼쳐나가듯, 마지막 신은 우리가 거기에로 선구함으로써만 비로소 존재의 진리가 펼쳐지는 삶의 시원이 된다. 따라서 마지막 신에서 ‘마지막의 것’이란 가장 오랜 선-구를 필요로 할뿐더러, 가장 심오한 시원이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q7.1.2) 마지막의 것이란 가장 오랜 선-구를 필요로 할뿐더러, 그 자체 종식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심오한 시원인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 가장 심오한 시원은 가장 폭넓게 성큼 나아가면서도 가장 어렵게 자신을 가져온다. // 따라서 마지막의 것은 모든 계산으로부터 벗어나며 또한 따라서 가장 떠들썩하면서도 가장 빈번한 오해의 짐을 견디어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의 것이 어떻게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 만약 우리가 아직껏 죽음을 그것의 극단적 의미 안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신의 그 드문 눈짓을 알아볼 만큼 자라나고자 할 것인가?(405, 285)

(q7.1.3) 그러나 마지막 신, 그것은 신에 대한 폄하, 아니 바로 모독 그 자체가 아닌가? 그러나 만약 신들 가운데서 또한 신들 사이에서 신들에 대한 우리의 결단이 신이라는 존재의 유일성의 본질을 궁극적으로 가져오고 또한 그로써 그 본질을 최고조로 이끌어 올리기 때문에 마지막 신

이 그렇게 이름 지어져야 한다면, 어떠한가? // 마지막 신, 만약 우리가 여기에서 계산적으로 사유하고 이 마지막이란 것을 최고의 것에 대한 극단적이며 최단의 결단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종식과 종말로서만 받아들인다면, 마지막 신에 관한 모든 얇은 물론 불가능하다. 그러나 신의 존재를 사유함에 있어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낯설며 계산으로 헤아려 볼 수 없는 그런 것의 위기를 두루 숙고하는 대신 계산하려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가?(406-407, 286)

7.2 마지막 신을 맞이하기 위한 결단

7.2.1 마지막 신을 맞이하기 위한 결단이 갖는 의미

(e7.2.1.1) 신들의 도피와 도래에 관한 결단은 존재의 진리를 시원으로 하여 새로운 삶의 지평을 구현하기 위한 결단이다. 존재의 진리는 은닉된 채로 우리에게 생기하는데, 우리가 존재의 생기를 생기로서 맞아들여 존재의 진리를 대지 안에 간직해 놓음으로써 마지막 신을 맞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시대의 질곡을 극복한 새로운 삶의 지평을 펼치게 되므로, 신들의 도피와 도래에 관한 결단은 존재의 진리를 근거 짓기 위한 결단, 즉 생기를 비로소 생기로서 구현할 수 있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의 시간-공간을 활짝 여는 사건이 된다. 특히 존재의 진리는 완강히 자신을 거부한 채로 우리에게 다가오므로, 이러한 결단은 완강한 거부로서의 존재가 비로소 생기로서 생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단이다.

(q7.2.1.2) 우리는 신들의 도피와 도래에 관한 결단을 내릴 시간-공간 안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이런 일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만약 신들의 도피 혹은 신들의 도래가 장래의 사건이 된다면, 신들의 도피 혹은 신들의 도래가 우리가 짐을 지으며 기다리고 있음을 규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신들의 도래에 관한 결단은 존재의 근거지어진 진리, 아니 존재의 최초로 근거지어진 진리, 즉 생기를 위한 전혀 다른 시간-공간을 활짝 여는 것인

가? // 만약 신들의 도피 혹은 도래에 관한 전체 안에서의 저 결단의 영역이 바로 종말 그 자체라면, 어떠한 것인가? 만약 이를 넘어서 존재가 처음으로 자신의 진리 안에서 생기로서, 즉 소위 우리가 완강한 거부라고 부르는 그것이 그것으로서 생기는 그러한 생기로서 파악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것인가?(405, 285)

7.2.2 완강한 거부로서의 존재

7.2.2.1 완강한 거부가 갖는 긍정적 의미

(e7.2.2.1.1) 존재의 진리는 자신을 완강히 거부한 채로 인간 현존재에게 도래한다. 존재는 완강한 거부이다. 그러나 우리는 존재의 진리의 완강한 거부를 부정적으로만 파악하진 말아야 한다. 오히려 존재의 진리는 완강한 거부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허락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완강한 거부는 존재의 진리가 자신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최고의 고귀함이 된다. 또한 존재는 자신을 완강히 거부하므로 낯설음 그 자체인 것이며 마지막 신이 스쳐 지나가는 고요함이 된다. 더욱이 인간 현-존재는 완강한 거부로서의 존재가 지닌 고요함을 파수하는 자신의 사명을 근거 지을 때 비로소 존재 안에서 현-존재로서 생기하므로, 완강한 거부로서의 존재의 진리는 자신 안에 위대함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다.

(q7.2.2.1.2) 그것은 도피도 아니고 도래도 아니며, 또한 도피이면서 도래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근원적인 것, 즉 완강한 거부 안에서 존재를 허락하는 충만함이다. 여기에 장래 양식의 근원, 즉 다시 말하자면 존재의 진리 안에서의 자체의 근원이 근거한다. // 완강한 거부는 선사가 지닌 최고의 고귀함이며 또한 그것의 개현가능성이 존재의 진리의 근원적 본질을 형성하는 저 자기 은폐가 지닌 근본특성이다. 오로지 그런 이유로만 존재는 낯설음 자체, 즉 마지막 신이 스쳐 지나가는 고요함이 된다. // 그러나 이러한 고요함에 대한 파수를 근거지움으로서의 현-존재는 존재 안에서 생긴다. // 신들의 도피와 도래는 이제 기존의 것으로

함께 이동하며 과거의 것으로부터 물러난다. // 그러나 장래의 것, 즉 완강한 거부로서의 존재의 진리는 자신 안에서 위대함을 보증하는데, 이러한 위대함은 공허하며 거대한 영원성을 지닌 위대함이 아니라 최단 궤도의 위대함이다.(405-406, 285)

7.2.2.2 완강한 거부가 갖는 부정적 의미

(e7.2.2.2.1) 존재의 진리가 자신을 완강히 거부하므로, 인간 현존재가 자신에게 은닉된 채로 다가오는 존재의 진리를 향해 자신을 마주 던지지 않는 한, 존재는 인간 현존재에 대한 구속성을 상실할뿐더러 왜곡된다. 또한 이에 따라 존재자는 자신의 본연의 의미 안에서 드러나지 않고 그것의 의미가 위장된 채로 드러난다. 존재의 진리가 감추어진 존재의 그때마다의 역사적 운명에 따라 인간 현존재가 존재자를 계획적으로 조정하는 공작의 차원에서 존재자를 탈은폐하는 한, 그렇게 탈은폐된 존재자는 참다운 의미에서는 비존재자이건만, 마치 존재자인 것처럼 위장된다. 따라서 인간 현존재의 삶도 황폐하게 된다. 그러나 존재의 균열, 다시 말하자면 존재가 자신을 밝히면서 은폐한다는 것을 사유하지 못한 채 위장된 존재자를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므로써 자신의 체험 안에 머무른 채 행복감에 젖어 있는 것이 인간 현존재의 현 주소이다.

(q7.2.2.2.2) 그러나 존재의 이러한 진리에는, 즉 완강한 거부에는 비존재자 그 자체의 위장 및 존재의 구속성 상실과 투매가 귀속한다. 이제 는 단지 존재의 떠남만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구속성 상실이 공허한 자의나 무질서는 아니다. 반대로, 모든 것은 이제 확실한 출발과 남김 없는 지배가 지닌 계획적 조정가능성과 정확성 안에 갇혀 버린다. 공작은 비존재자를 존재자라는 가상 하에서 그 가상의 보호 안으로 가져온다. 그리고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강요된 인간의 황폐화는 체험을 통해 보상된다. // 비본질로서의 이 모든 것은 예전보다 더 필연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가장 낮은 것은 이런 가장 통상적인 것을 필요로 하며 또한 존재의 균열이 조정, 혹은 행복, 혹은 잘못된 완성이라는 날조된 가상을 통해 파묻혀 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마지막 신은 특히 증오하기 때문이다.(406, 285-286)

7.2.3 생기 안에서의 전향

7.2.3.1 생기의 이중적 구조

7.2.3.1.1 생기의 이중적 구조에 대한 예비적 이해

(e7.2.3.1.1.1) 생기의 가장 내적인 사건은 전향이다. 생기 안에서는 전향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전향이야말로 다른 모든 전향을 가능하게 하는 은폐된 근거로서 근원적 전향이 된다. 그런데 생기 안에서의 이러한 근원적 전향은 이중적 구조이다. 즉 전향은 한편으로는 인간을 향한 존재의 전향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존재를 향한 인간의 전향이다.

(q7.2.3.1.1.2) 생기는 그것의 가장 내적인 사건과 가장 폭 넓은 내달음을 전향 안에 가지고 있다. 생기 안에서 현성하는 전향은 이 전향과는 다른, 이 전향에 종속된, 유래가 모호한, 묻어지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그리고 쉽사리 그 자체가 마지막 것이라고 받아들여진 그런 각종 전향들, 순환들, 선회들의 은폐된 근거이다.(407, 286)

7.2.3.1.2 인간을 향한 존재의 전향

(e7.2.3.1.2.1) 존재의 진리는 인간에게 은닉된 채로 도래한다. 존재의 진리는 섬광처럼 인간에게 엄습한다. 우리가 존재의 진리가 밝혀지는 사건을 현(現, Da)이라 한다면, 현의 생기는 인간을 향한 생기이다. 즉 생기 안에서의 전향이 갖는 1차적 의미는 인간을 향한 존재의 전향이다. 그런데 인간은 이처럼 자신에게 엄습해 오는 현의 생기를 생기로서 맞아들일 때에만 비로소 현-존재가 된다. 현의 생기는 현-존재를 비로소 현-존재로서 근거 짓는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을 향해 엄습해 오는 존재의 진리를 향해 거기에서 매력적으로 옮겨가기 위한 준비를 갖추 때에만 비로소, 존재의 진리를 존재자 안에 간직할 수 있다.

(q7.2.3.1.2.2) 생기 안에서 이 근원적 전향은 무엇인가? 존재의 엄습, 즉 현의 생기만이 현-존재를 자기 자신으로 가져오며 그로써 현-존재

를 내존적으로 근거 지어진 진리를 존재자 안에 실현(간직)하도록 가져온다. 존재자는 현의 밝혀진 은폐 안에서 자신의 장소를 발견하는 것이다. // 그리고 전향 안에서: 단지 현-존재를 근거지움, 즉 존재의 진리로 매력적으로 옮겨가기 위해 채비를 갖추는 준비만이 ‘듣는 자이자 귀속하는 자’를 엄습하는 생기의 눈짓을 향해 데려온다. // 진리를 근거 짓는 자기성의 열려 있는 중앙인 현-존재가 생기를 통해서 비로소 자신에게 내던져져 자기(自己)로 될 때, 존재의 현성을 근거 짓는 은폐된 가능성으로서의 현존재는 다시 생기에 귀속해야 한다.(407, 286-287)

7.2.3.1.3 존재를 향한 인간의 전향

(e7.2.3.1.3.1) 한편으로는 현의 생기가 인간을 비로소 현-존재로서 근거 짓는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생기도 인간을 필요로 해야 한다. 인간 현존재가 자신에게 엄습해 오는 존재의 진리를 진리로서 맞아들여 존재자 안에 간직해 놓지 않는 한, 존재의 진리 역시 존재의 진리로서 구현되지 않으므로 존재의 진리의 생기는 인간 현존재를 마땅히 필요로 한다. 즉 생기는 현존재를 그를 향한 부름(소명) 속에 불러 세워 존재의 진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그를 마지막 신의 스쳐지나감 앞으로 데려와야 한다. 따라서 생기가 생기로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생기가 인간을 필요로 하는 한, 생기 안에서의 전향이 갖는 2차적 의미는 존재를 향한 인간의 전향이 된다.

(q7.2.3.1.3.2) 그리고 전향 안에서: 생기는 현존재를 필요로 해야 한다. 생기는 현존재를 필요로 하는 가운데 현존재를 소명(그를 향한 부름) 안에 세우며 그로써 현존재를 마지막 신의 스쳐지나감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407, 287)

7.2.3.2 상호 공속적 전향

7.2.3.2.1 존재와 인간 사이의 상호 공속적 전향

(e7.2.3.2.1.1) 생기의 가장 내적인 사건은 전향이다. 또한 전향은 이중적 구조이다. 한편으로는 존재의 진리가 인간을 향해 전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존재의 진리를 향해 전향할 때, 생기는 비로소 생기로서 구현된다. 생기는 인간이 존재의 진리가 자신에게 건네주는 소명을 소명으로서 받아들이며 존재의 진리에 귀속할 때 비로소 생기로서 구현된다. 따라서 전향은 귀속하는 자를 향한 소명과 그렇게 소명받은 자의 귀속 사이에서 현성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향은 존재와 인간 사이의 상호 공속적 전향이다.

(q7.2.3.2.1.2) 전향은 (귀속하는 자를 향한) 소명과 (불리어진 자의) 귀속 사이에서 현성한다. 전향은 상호 공속적-전향이다.(407, 287)

7.2.3.2.2 현존재의 언어

(e7.2.3.2.2.1) 존재와 인간 사이의 상호 공속적 전향을 통해서만 현존재는 비로소 현존재일 수 있는데, 현존재를 향해 존재는 말없이 도래하는 까닭에 이에 대한 인간의 응답 역시 침묵이어야 하므로, 근원적 의미에서 보았을 때, 인간 현존재의 모든 언어는 본질적으로 침묵이어야 한다.

(q7.2.3.2.2.2) 생기로의 소명적-도약을 속삭이는 건네진 부름은 가장 은폐된 자기 인지의 위대한 고요함이다. // 현-존재의 모든 언어는 이로 부터 자신의 근원을 획득하며 따라서 본질적으로는 침묵이다.(자제, 생기, 진리와 언어 참고.) (407-408, 287)

7.2.3.2.3 기존의 신들의 회귀와 도피에 대한 최고의 지배

(e7.2.3.2.3.1) 존재와 인간 사이의 상호 공속적 전향을 통해서만 생기는 생기로서 구현되는데, 생기가 생기로서 구현될 때에만 비로소, 인간의 삶의 세계로부터 사라졌던 기존의 신들은 회귀하므로, 생기야말로 기존의 신들의 회귀와 도피를 지배하는 최고의 지평이 된다. 극단적인 신, 다시 말해 마지막 신은 인간 현존재가 존재의 진리를 대지 안에 간직해 놓음으로써 그를 맞을 준비를 갖추는 때에만, 비로소 인간 현존재를 향해 눈짓한다.

(q7.2.3.2.3.2) 그러므로 생기는 상호 공속적 전향으로서 기존의 신들의 회귀와 도피에 대한 최고의 지배이다. 극단적인 신은 존재를 필요로 한다.(408, 287)

7.3 마지막 신에 대한 해명

7.3.1 가장 유일무이한 유일성

(e7.3.1.1) 소위 일신론, 범신론, 혹은 무신론 따위에서 언급되는 신은 모두 형이상학적 신이다. 형이상학적 신은 존재자 전체를 가능하게 하는 생성 원인으로서 설정된 신이다. 그러나 마지막 신은 인간 현존재가 존재의 진리를 존재의 진리로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현현하는 그야말로 가장 유일무이한 유일성 자체로서의 신이다. 또한 마지막 신이 눈짓할 때 비로소, 그동안 인간의 근원적 삶의 영역에서 사라졌던 다른 신들도 인간에게 도래한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신을 이제까지 형이상학의 역사 속에 등장하였던 기존의 신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마지막 신을 기독교적 신에 비유하지도 말아야 한다. 마지막 신은 이들 신과는 전혀 다른 신이다.

(q7.3.1.1) 마지막 신은 그야말로 가장 유일무이한 유일성을 갖고 있으며, 일-신론, 범-신론, 무-신론 따위의 칭호가 의미하는 그런 계산적 규정 밖에 서 있다. 일신론과 모든 유형의 유신론은 형이상학을 사상적 전제로 하는 유대교적-기독교적 변증론 이후 비로소 존재한다. 이러한 신의 죽음과 더불어서 모든 유신론들은 붕괴한다. 신들의 다수성은 숫자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신의 눈짓의 빛남과 은폐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의 장소 안에서의 근거들과 심연들의 내적 풍요로움에 종속한다.(411, 289)

(q7.3.1.2) 마지막 신. 기존의 신들과는, 특히 기독교적 신과는 전혀 다른 신.(403, 283)

7.3.2 다른 시원으로서의 마지막 신

(e7.3.2.1) 마지막 신은 기존의 신들에 뒤따라 순서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신이 아니다. 오히려 마지막 신은 존재의 진리가 구현된 인간 현존재의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시원이 되는 신이다. 즉 마지막 신은 인간 현존재의 본래적 삶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 다른 시원이다. 따라서 마지막 신의 도래를 위해 우리가 이제까지의 역사를 단순한 의미에서 종식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인간 현존재가 이제까지의 역사를 종말로로 가져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존재의 진리를 향해 몰락할 때 비로소 마지막 신은 우리에게 도래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마지막 신의 현현을 위한 준비는 우리가 존재의 진리를 존재의 진리로서 구현하기 위한 극단적 모험이며, 이러한 모험을 통해서만 우리는 마지막 신을 맞이하는 가운데 존재자를 비로소 그것의 고유한 의미 안에서 드러낸다.

(q7.3.2.2) 마지막 신은 종말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의 측량하기 어려운 그 가능성들을 담지한 다른 시원이다. 마지막 신을 위하여 이제까지의 역사가 종식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이제까지의 역사는 그것의 종말에 이르러야 한다. 우리는 이제까지의 역사의 본질적인 근본 입장들을 몰락과 준비어로 가져와서 변용(變容)해야 한다. // 마지막 신의 현현을 위한 준비는 존재의 진리의 극단적 모험이며, 이러한 모험에 의해서만 인간은 존재자의 복원에 성공한다.(411, 289)

참 고 문 헌

1) Martin Heidegger의 저서

Beiträge zur Philosophie, GA65, Vittorio Klostermann, Frankfurt am Main, 1989.

[위 책의 영역본] *Contributions to philosophy*, Parvis Emad & Kenneth Maly(tran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9.

Wegmarken, GA 9, Vittorio Klostermann, Frankfurt am Main, 1976.

[위 책의 영역본] *Pathmarks*, William McNeill(edit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위 책의 우리말본] 『이정표 2』, 이선일 옮김, 한길사, 2005.

Sein und Zeit, GA 2, Vittorio Klostermann, Frankfurt am Main, 1977.

2) 이차문헌

Friedrich-Wilhelm von Herrmann, “Die Frage nach dem Sein als hermeneutische Phänomenologie”, *Große Themen Martin Heideggers*, Verlag Rombach Freiburg, 1990.

신상희, 『시간과 존재의 빛』, 한길사, 2000.

『철학사상』 별책 2권

- 제1a호 철학의 주요 개념 1·2 / 백종현
- 제2호 『밀린다광하』 / 서정형
- 제3호 데카르트 『방법서설』 / 윤선구
- 제4호 로크 『통치론』 / 정윤석
- 제5호 루소 『사회계약론』 / 진병운
- 제6호 칸트 『실천이성비판』 / 박정하
- 제7호 헤겔 『법철학』 / 강성화
- 제8호 벤담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설』 / 정원규
- 제9호 밀 『공리주의』 / 김영정 · 정원규
- 제10호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백승영
- 제11호 마르크스 『독일이데올로기』 / 손철성
- 제12호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 이선일
- 제13호 프레게 『산수의 기초』 / 최 훈
- 제14호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 논고』 / 박정일

『철학사상』 별책 3권

- 제1a호 『대학』 / 박성규
- 제2호 맹자 『맹자』 / 이해경
- 제3호 나가르주나 『중론』 / 서정형
- 제4호 조선전기 이기론 / 허남진
- 제5호 조선전기 수양론 / 정원재
- 제6호 조선전기 심성론 / 김영우
- 제7호 조선전기 경세론과 불교비판 / 강중기
- 제8호 플라톤 『국가』 / 김인곤
- 제9호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 김남두 · 김재홍 · 강상진 · 이창우
- 제10호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 박경숙
- 제11호 데카르트 『성찰』 / 윤선구
- 제12호 로크 『인간지성론』 / 김상현
- 제13호 라이프니츠 『단자론』 / 윤선구

- 제14호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 진병운
 제15호 흄 『인설론』 / 장동익
 제16호 칸트 『순수이성비판』 / 김재호
 제17호 헤겔 『정신현상학』 / 강성화
 제18호 마르크스 『자본론』 / 손철성
 제19호 제임스 『실용주의』 / 정원규
 제20호 니체 『유고(1885년 가을-1887년 가을)』
 · 『유고(1887년 가을-1888년 3월)』
 · 『유고(1888년 초-1889년 1월 초)』 / 백승영
 제21호 후설 『유럽학문의 위기』 / 정은혜
 제22호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 신상규
 제23호 하이데거 『언어로의 도상』 / 이선일
 제24호 쿤 『과학혁명의 구조』 / 박은진
 제25호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디지털 지식 자원 구축 /
 최병일 · 이태수 · 심재룡 · 김영정

『철학사상』 별책 5권

- 제1호 공자 『논어』 / 박성규
 제2호 마명 『대승기신론』 / 서정형
 제3호 황종희 『명이대방록』 / 강중기
 제4호 플라톤 『향연』 / 김인곤
 제5호 흄 『인간지성에 관한 탐구』 / 윤선구
 제6호 칸트 『판단력비판』 / 김상현
 제7호 피히테 『전체 지식학의 기초』 / 김재호
 제8호 마르크스 『경제학-철학 수고』 / 강성화
 제9호 니체 『도덕의 계보』 / 백승영
 제10호 하이데거 『이정표』 / 이선일
 제11호 가다머 『진리와 방법』 1 / 정은혜
 제12호 군맨 『사실, 허구 그리고 예측』 / 김희정
 제13호 군맨 『세계제작의 방법들』 / 김희정
 제14호 롤즈 『정의론』 / 장동익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 19 호

발행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우)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http://philinst.snu.ac.kr
전 화	02) 880-6223
팩 스	02) 874-0126
인쇄일	2006년 5월 31일
발행일	2006년 6월 5일
출 판	도서출판 관악 02) 871-2118

